금주의 법구–〈법구경〉
세상에서 으뜸가는 재산은 믿음이다.
덕행을 쌓게 되면 행복이 찾아온다.
지혜롭게 사는 것이 최상의 생활이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90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6년 음력 5월 10일) 2022년 6월 8일 수요일

세계 비구니 승가 현황과 미래를 살피다

대행선연구원, 대행선사 10주기 추모 국제학술대회


쏘모 스님


툽텐 쬐돈 스님


하주 스님


모니카 베테 소장


히비노 이쿠코 스님


모니카 슈림프 교수


미도리카와 묘세이 스님


창쉔스님


본각 스님


혜선 스님


김응철 교수


류팝 스님


카와나미 히로코 교수


지하니 드 실바


카카낭 야바프라바스

〈사진 순서는 대회 발표순〉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6월 17~18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에서 '세계의 비구니 승가: 현재와 미래' 주제
동·서양 비구니 스님·석학 등 15명참석
한국·미국·티베트 등 비구니 승가 조명

한국을 비롯한 미국·일본·미얀마·티베트 등 전 세계 비구니 승가의 현황을 분석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학술대회가 열린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前 샤카디타인터내셔널 회장인 카르마 렉쉐 쏘모(미국 샌디애고대학교 종교학과 교수)와 달라이라마 등 여러 고승들로부터 지도받고 종교간 대화에 적극 나선 툽텐 쬐된 스님(미국 쉬라바스티 애비 주지) 등 세계적인 여성 학자들이 초청돼 이목이 집중된다.

한마음선원 대행선연구원은 묘공당 대행 선사 열반 10주기를 맞아 '세계의 비구니 승가: 현재와 미래(Buddhist Nuns' Sangha around the World: Present and Future)'를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한국불교 수행 및 포교와 비구니계 발전에 한 획을 그은 대행 선사의 사상을 기리고자 마련된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오는 6월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3층 법당에서 열리며, 유튜브로도 생중계된다.

비구니 승가 방향 제시한 대행 선사

대행 선사는 1972년 안양에 생활참선 수행도량인 한마음선원을 건립해 2012년 입적할 때까지 평생을 수행과 중생교화, 후학 양성에 심혈을 기울였다.

계급과 성별을 비롯한 어떠한 종류의 차이에도 차별이 없다는 것을 보여 준 대행 선사의 삶과 사상은 그 자체로 비구니 승가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지금도 전 세계의 수많은 출가·재가제자들이 대행 선사의 뜻을 실천 수행하고 있다.

석학·비구니 스님 한자리에

세계 비구니 승가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이날 국제학술대회에는 동·서양을 대표하는 비구니 스님들과 여성불교 전문 연구자들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끈다.

서양 비구니 스님으로는 前 샤카다카인터내셔널 회장으로 미국계 티베트 불교 스님인 카르마 렉쉐 쏘모 스님(Ven. Dr. Karma Lekshe Tsomo, 미국 샌디에고 대학 종교학과 교수), 달라이라마 등 여러 티베트 고승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미국 비구니 스님인 툽텐 쬐된 스님(Ven. Thubten Chodron, 미국 쉬라바스티 애비 주지), 한국 삼우 스님 아래서 수학한 하주 스님(Ven. Haju, 앤아버 선련사 주지)이 참여한다.

한국과 아시아 국가 비구니 스님으로는 현재 한국 비구니계를 이끌고 있는 조계종 전국비구니회장 본각 스님을 비롯해 학승인 대행선연구원 연구실장 혜선 스님, 대만 법고산대학 강사 창쉔(常諗) 스님, 베트남 불교대학 불교영어학과장 류팝 스님(Ven. Dr. Lieu Phap)이 참석한다.

세계 석학으로는 모니카 베테(Monica Bethe) 교토 중세일본학연구소장, 카와나미 히로코(Kawanami Hiroko) 영국 랭커스터대 교수, 모니카 슈림프(Monika Schrimpf) 독일 튀빙겐 대학 교수 등이 학술토론회에 참여할 예정이다.

대회 발표 논문들 '눈길'

학술대회 참가자들은 연구 논문을 통해 종교지도자이자 승가의 일원으로서 비구니 승가의 위상을 살핀다.

우선 카르마 렉쉐 쏘모 스님은 '히말라야 불교 전통의 여성 출가자들: 전승과 적응 그리고 혁신'이라는 주제로 히말라야 불교 전통의 여성 출가자와 비구니 승가의 문제를 다룬다.

툽텐 쬐돈 스님은 '서구의 티베트 불교 여성 출가자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티베트 불교에 귀의하는 서구의 여성 출가자들에 대해 논의한다.

이외에도 모니카 슈림프 교수가 '근현대 일본의 수계 여성들'이라는 주제로 일본의 여성과 불교에 대해 근현대의 역사를 통해 알아본다. 또한 한국과 더불어 가장 성공적인 비구니 승가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대만의 비구니 승가에 대해서는 창쉔 스님이 '대만의 비구니 승가와 불교 부흥'을 주제로 발표한다. 다만, 창쉔 스님은 대만의 코로나 사정으로 현장 참석이 불가능해 발표를 비대면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혜선 스님은 '생활참선 수행도량, 한마음선원의 포교 현황과 미래의 방향'을 주제로 현대 불교에 한 획을 긋고 있는 한마음선원의 포교와 전법의 역사, 현황, 전망과 방향에 대해 고찰하는 논문을 발표한다.

국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동남아시아와 스리랑카의 비구니 승가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논문들도 만나 볼 수 있다. 류팝 스님은 '베트남 비구니 승가의 설립과 발전'을, 카와나미 히로코 교수가 '미얀마 여성 출가자: 유산의 계승 그리고 미래에 대한 전망'을, 지하니 드 실바 박사(스리랑카 사바라가무와 대학 강사)는 '분파주의에서 화합으로: 스리랑카 비구니계의 전망'을, 카카낭 야바프라바스 박사(태국 탐마삿트 대학 강사)는 '태국의 비구니: 승가와 사회, 상황'을 각각 발표한다.

대행선연구원은 "'세계 비구니 승가'를 주제로 열리는 국제 규모 학술대회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뤄지는 시도"라며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비구니 승가의 현황을 알아보고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尹대통령, 종교지도자들과 첫 만남

새 정부 출범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은 5월 28일 7개 종교지도자들을 초청해 오찬을 가졌다. 이날 오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해 천태종 총무원장 무원 스님, 류영모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이홍정 한국기독교협의회 총무, 김희중 대주교(광주대교구장), 이용훈 한국천주교회의의장주교, 나상호 원불교 교정원장, 손진우 성균관장, 박상종 천도교 교령, 김령하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 등 종교계 인사 10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원행 스님은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라는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은 반드시 소중한 결실을 보게 될 것"이라고 덕담했다.

글=임은호 기자·사진=청와대 대통령실

광역지자체 17곳 중 제주·경남·부산 3곳 불자

6월 1일 전국지방선거 개표 결과
오영훈·박형준·박완수 당선돼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장 중 3명의 불자 당선인이 탄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월 2일 오전 8시 30분 현재, 시·도지사 선거의 개표를 99.91% 완료한 결과, 불자후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제주도지사 후보와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국민의힘 박완수 경남도지사 후보가 당선됐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은 이번 선거에서 163,116표를 획득, 116,786표를 얻은 국민의힘 허향진 후보를 누르고 과반이 넘는 득표율로 당선됐다. 오영훈 의원은 천태종 제주 문강사 신도회장 출신인 독실한 불자로, 국회정각회 부회장이자 더불어민주당 불자회장을 역임한 대표적인 불자정치인으로 손꼽힌다.

모태불자로 알려진 박형준 부산시장 당선인은 66.36%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더불어민주당 변성완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박 시장은 지난해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불교는 한국의 전통문화와 결부된 성보 문화재와 공공재 성격이 짙은 유산들이 많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한 불교국제교류사업에도 적극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 후보는 65.70%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이는 29.43% 득표율로 2위에 머문 양문석 후보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이 밖에 기초단체장 중 서철모(화성시장), 신상진(경기 성남시장), 최기문(영천시장), 이병선(속초시장) 당선인과 윤석준(대구동구청장), 정문헌(서울 종로구청장), 김기재(부산 영도구청장), 이갑준(부산 사하구청장) 당선인이 불자 기초단체장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심재국 평창군수 당선인과 함명준 고성군수 당선인, 이재화 대구시의원 당선인, 최기찬 서울시의원(서울 금천구)도 불자로 알려져 있다. 〈관련기사 2면〉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대한불교진흥원 2022년 하반기
4대 공모사업 및
대원아카데미
디지털대원아카데미
학생 모집

제19회 대원상 공모
접수 기간 : 2022년 9월 1일(목) ~ 9월 30일(금)

제5기 불교 기관·단체 지원사업 공모
접수 기간 : 2022년 6월 27일(월) ~ 7월 22일(금)

제5기 대원청년 불자상·동아리상 공모
접수 기간 : 2022년 7월 1일(금) ~ 7월 29일(금)

제6기 대원불교 학술·콘텐츠 공모
접수 기간 : 2022년 7월 11일(월) ~ 8월 12일(금)

학생 모집

(평생교육시설)
대원아카데미
2022년 9월 7일 개강
접수 기간 : 2022년 8월 1일 ~ 9월 6일
불교심리상담사, 명상지도사 자격 취득 가능
학점은행제 추진과목 포함 강의 진행

(온라인 교육)
디지털대원아카데미
2022년 9월 14일 개강
접수 기간 : 2022년 8월 1일 ~ 9월 13일
언제 어디서나 수강 가능한 강의 영상 제공함.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상세 공모 내용은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홈페이지(www.kbpf.org) 참조, 문의 : 02-719-1855

경기·대구·경북, 전통문화 정책 기대

6.1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정책분석

송지희 · 임은호 기자

김동연(경기), 당선인 중 유일하게 불교공약 발표
홍준표(대구) · 이철우(경북) 전통문화 보존의지 뚜렷
김진태(강원)는 '물음표'


오영훈


박형준


박완수

6.1 전국동시지방선거는 광역지자체장을 비롯한 기초단체장, 시도의회 및 구 · 시 · 군의회 의원과 교육감 · 교육위원까지 새롭게 선출하는 대대적인 변화의 장이었다. 이번 선거에서 선출된 4,131명의 당선인들은 한달뒤인 7월 1일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우리사회 지역 곳곳에서 실질적인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17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불자당선인은 3명에 불과하지만, 각 지역에서 불교계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온 당선인들도 적지 않은 만큼, 이에 따른 불교정책 변화를 짚어본다. 〈편집자주〉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김동연 후보는 광역단체장 출마자 27명 가운데 서울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던 송영길 후보와 함께 불교공약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불자들의 시선이 주목됐다. 6월 2일 개표결과 송영길 후보가 오세훈 서울시장에 밀려 낙선하면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사실상 17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유일하게 불교 관련 공약을 발표한 후보가 됐다.

김동연 당선인은 비록 불자는 아니지만 선거를 앞둔 5월 20일 조계종 제25교구본사인 남양주 봉선사를 찾아 정책간담회를 열고, 전통사찰 및 전통문화 보존계승 및 활성화를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동연 후보는 특히 △경기도 전통사찰 안정적 유지관리 지원 강화 △전통사찰 보수정비 및 주변 정비사업 지원확대 △전통문화 콘텐츠 지원 강화 △정부 공조사업에 대한 협조 △종교 간 화합을 통한 공존과 평화의 경기도 구축 등을 구체적인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당선인은 개신교 신자임에도, 종교를 넘어선 불교의 전통문화 보존 및 활용에 큰 관심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눈에 띈다. 이철우 당선인은 선거를 앞둔 4월경 동화사 본말사주지스님들과 '2022대한민국불교문화엑스포'를 방문해 라운딩하면서 "불교박람회 확대 등을 통해 전통불교문화산업에 활기를 불어넣겠다"고 공약했다. 이 당선인은 앞선 2018년 경북도지사 후보 당시에도 △전통사찰 보존 · 관리 △호국역사유적지 보전 및 홍보 △불교문화 홍보 및 관광자원화를 약속한 바 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 당선자는 공주 · 부여 · 청양을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명품 역사문화관광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불자들의 관심이 모인다. 이를 계기로 백제불교 복원에 대한 기대감도 고조되는 모습이다.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은 불교계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 온 정치인으로 손꼽힌다. 봉축법요식 등 불교계 주요 행사에 자주 참석하며 스님들과의 인연도 넓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뒷받침하듯, 이번 선거에서는 불교종단 대구경북연합회가 홍준표 후보 지지선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홍준표 당선인은 당선 후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8기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 출범계획을 밝혔는데, 주요인사 가운데 김재홍 조계종 前종정예경실 부실장이 교육문화분과 위원으로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재임에 성공한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도 불자는 아니지만, 지난 1년간 임기 중 연등회를 비롯한 각종 행사 등에 참석하며 불교계와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조계종이 현재 조계사를 중심으로 조계종 총본산성역화 불사를 진행중인데다가, 유네스코 등재유산인 연등회의 안정적인 전승을 위해 전승관 건립을 추진하는 등 핵심과제들과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 임기 중 정책방향에 불자들의 시각이 쏠리고 있다.

이밖에도 김영환 충북도지사 당선자는 부처님오신날 청주 용화사, 관음사, 명장사 등 사찰 곳곳을 방문해 소원등을 달고 축원문을 작성하는 등 친불교 행보를 보여줘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김진태 강원도지사 당선인은 다른 의미에서 불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던 인사다. 지난 2015년 새누리당 의원 시절,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신변보호한 조계사를 '범법자 비호세력'으로 표현하며 경찰병력 추입을 주장한 것이 재조명되며 논란을 빚은 것. 특히 조계종은 당시 김진태 예비후보를 겨냥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후보사퇴를 요구하는 등 성난 불심을 드러냈다. 김 당선인은 논란이 확대되자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을 예방하고 이 같은 발언을 공식사과했으며, 이를 계기로 기사회생해 당선으로 이어졌다. 이후 선거과정에서 불교계와의 스킨쉽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불교계 일각에서는 불편한 시각이 남아있어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덕수 총리, "부처님 자비로 화합 일굴 것"

6월 2일 조계종 총무원장 예방
원행스님 "통합 · 전통문화" 강조



한덕수 국무총리가 부처님 자비정신으로 화합을 일구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사회통합을 위해 종교화합의 중요성을 당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6월 2일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한마음으로 당면한 어려움들을 극복해 가고자 한다"며 "특히 부처님의 자비정신으로 갈등을 극복하고 화합으로 나아가겠다. 국민통합을 이끌기 위한 지혜와 고견을 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사진〉

이에 원행 스님은 종교화합을 비롯한 사회통합 노력과 함께, 전통문화 보존계승을 위한 정책적 관심을 당부했다.

원행 스님은 "윤석열 정부가 수립한 12개 세부계획이 잘 진행되길 바란다"며 "특히 사회통합이라는 큰 목표를 위해 종교화합을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었던 '공공기관 종교편향' 근절을 위한 (가칭)종교평화위원회 신설안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송지희 기자

"백만원력 결집으로 선풍 계승"

5월 31일 조계종조 도의국사 다례



조계종 종조(宗祖) 도의국사(道義國師)의 가르침과 정신을 계승하는 법석이 열렸다.〈사진〉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은 5월 31일 조계종 총본산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조계종조 도의국사 다례재'를 봉행했다. 이날 다례재는 도의국사의 가르침을 받들어 수행가풍을 선양하기 위해 종도들의 마음을 모으는 자리로 마련됐다.

다례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원로회의 의장 학산 대원 대종사를 비롯한 원로의원 스님들, 중앙종회 의장 정문 스님, 호계원장 보광 스님, 교육원장 진우 스님, 포교원장 범해 스님, 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덕문 스님 등 100여 명의 스님들이 참석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추모사에서 "종조의 가르침은 오늘날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과 각자가 처한 이해관계의 충돌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지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지희 기자

'총림선원 토지매각 사건' 진상 촉구 연대서명 착수

선학원미래포럼, 5월23일
전국 분원에 서명지 발송

재단법인 선학원이 총림선원 토지를 창건주 · 분원장 의사에 반해 일방매각했다는 本紙 보도와 관련, 선학원미래포럼이 진상규명을 위한 연대서명에 나섰다.

선학원미래포럼은 5월 23일 '진주 총림선원 토지매각 사건의 진상조사를 촉구합니다' 제하의 문건을 서명지와 함께 전국 선학원 분원에 발송했다. 특히 미래포럼은 "'사찰토지 매각'이라는 사건은 총림선원 일개 분원의 문제가 아니라 선학원에 등록된 모든 분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이에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특별 감사를 실시할 것을 (재)선학원 이사회에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진상조사단은 이사회에 예속되지 않고 창건주 · 분원장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인물로 구성돼야 하며 조사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조사결과에 대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선학원미래포럼은 재단이 기관지 〈불교저널〉 기사를 통해 "선학원의 경우 모든 전통사찰의 토지가 재단 소유이기 때문에 처분허가신청권은 재단에 있다"고 주장한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선학원미래포럼에 따르면 선학원 등록 분원들은 재단이 분원장들에게 나누어 준 것이 아니라, 창건주 · 분원장 스님들이 신도들과 함께 일군 사찰을 선학원에 등록한 것으로, 사실상 안정된 환경에서 수행하고 포교하고자 선학원 창립취지에 공감해 재단에 명의신탁한 것이다. 이에 재단법인 선학원의 참 주인은 이사회가 아닌 창건주 · 분원장이라는 설명이다.

때문에 미래포럼은 "선학원의 이런 인식은 향후 전통사찰 뿐 아니라 선학원에 소속된 모든 분원이 제2의, 제3의 총림선원이 될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미래포럼은 "주인이 아닌 자가 주인행세를 하며 분원 토지를 주인 몰래 팔아먹는 것을 묵인한다면 그러한 창건주 · 분원장 스님은 주인이기를 포기한 것"이라며 "뜻을 모으고 단결해서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지키기 위해 창건주 · 분원장과 사부대중이 분연히 일어나서 재단 이사회가 진상조사를 하게끔 촉구하는데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총림선원은 진주시를 상대로 선학원이 진주시에 매각한 부지에 대한 '소유권말소등기소송'을 진행 중이며, 재단법인 선학원도 보조참가자 신청을 통해 해당 소송에 참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지희 기자

천태종, 상월원각대조사 열반 48주기 추모

5월 27일 구인사 광명전서 열반다례법회 봉행



대한불교천태종을 중창한 상월원각대조사의 열반 제48주기를 맞아 그 가르침을 되새기는 다례재가 엄수됐다. 사부대중은 일심으로 대한민국 국운융창과 세계의 평화를 기원했다.〈사진〉

천태종(총무원장 무원)은 5월 27일 오전 10시 30분 단양 구인사 광명전에서 '상월원각대조사 제48주기 열반다례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도용종정예하, 원로원장 정산 스님, 총무원장 무원 스님을 비롯한 종단 대덕스님,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종단 스님, 김대현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 이시종 충북도지사, 엄태영 제천 · 단양 국회의원 등 지자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법회는 유튜브로도 생중계됐다.

총무원장 무원 스님은 추모사에서 "대조사님께서 일깨워주신 시대 보살의 정신과 가르침을 되새긴다"며 추모했다. 김주일 기자



세계 명상과학 석학들 동국대서 모인다

동국대, 6월 17~19일 중강당서 국제명상엑스포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세계 명상과학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국제 행사가 열린다.

동국대(총장 윤성이)는 오는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교내 중강당에서 '2022 명상, 새로운 세계'를 주제로 제3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를 개최한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명상의 가치를 조명하고 명상의 대중화 및 세계화 선도를 목적으로 세계적인 석학들과 국내의 전문 연구자들을 초빙해 진행되는 컨퍼런스다. 특히 올해 엑스포의 컨퍼런스는 동국대와 하버드 의대 IMP(Institute for Meditation and Psychotherapy)와의 공동주최로 강연의 수준과 깊이를 더했다.

또한 외국 석학과 온라인 실시간 명상 강연의 진행으로 쌍방향의 실습과 체험이 가능하다는 점에도 주목할만 하다.

1일차 6월 17일의 강연은 '명상과 치유'라는 주제로 문을 연다. 하버드 의과대학 마음챙김 및 연민센터 소장인 제브 슈만 올리비에 교수가 '웰빙과 주요돌봄을 위한 마음챙김 훈련' 주제 강연을 시작으로, 이어 내면가족체계(IFS) 프로그램을 개발한 리처드 슈워츠 교수가 '트라우마 치료'를 주제로 강연과 실습을 진행한다.

이어서 티모시 해리슨 에모리대학 CBCT 부국장이 명상과학과 신경과학 관점에서의 '인지기반 연민 프로그램'의 강연과 MSC 프로그램 공동개발자인 크리스토퍼 K. 거머의 'MSC의 심리치료적 활용'에 대한 연구 결과에 대한 강연이 진행된다. 세계적인 뇌과학자인 타니아 싱어의 '사회적 인지와 정서 기저의 신경체계에 미치는 명상효과'를 주제로 강연도 예정돼 있다.

동국대는 "IFS(Internal Family Systems)와 MSC(Mindful Self-Compassion), CBCT(Cognitively-Based Compassion Training) 등 세계적인 명상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서 참가자들의 트라우마, 우울, 스트레스 등의 증상을 치유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2일차 18일에는 '명상과 과학'이라는 주제로 이나 카잔 하버드 의과대학 교수의 '심박변이도와 마음챙김' 강연과 사라 W. 라자르 교수의 '명상과 신경과학'에 대한 강연이 진행된다. 김종우 경희대 한방신경정신과 교수, 박문호 뇌과학전문가, 이강욱 강원대 의과대학 교수 등이 신경과학, 한의학, 물리학이라는 관점에서 명상을 연구한 결과를 발표한다.

제3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 개최
하버드 의대 IMP와 공동 주최
심리치료 등 활용도 논의 예정

19일에는 '명상과 미래사회'를 주제로 컨퍼런스가 진행된다. 중독에 대한 마음챙김 훈련의 국제적 전문가인 져드슨 브루어 브라운 의과대학 교수의 '명상과 심리치료' 강연이 진행되며, 은산스님과 이유섭 동국대 영상대학원 외래교수는 '메타버스를 활용한 명상교육 및 체험학습'을 진행한다. 이 체험학습은 서광 스님의 육도윤회를 현대적으로 명상화한 'RHS명상 프로그램'과 첨단 기술의 접목을 통해 새로운 명상 온라인 플랫폼 모델을 선보이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채정호 가톨릭 의과대학 교수는 '명상의 미래: 일상, 가상 및 임상의 측면에서'를 주제로 다양한 방면에서 적용 가능한 명상의 미래를 제시한다.

동국대 불교대학 교수 서광 스님과 최현민 수녀(종교대화 씨튼연구원장), 박용한 대한명상의학회장은 '4차 산업시대 한국 명상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과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컨퍼런스는 영어와 한국어 통역이 지원되며, 유튜브나 줌을 통한 온라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로 오프라인 참석도 가능하다. 동국대 서울 캠퍼스 본관 중강당에서 최대 350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

서울국제명상엑스포 컨퍼런스 홈페이지(mind.dongguk.edu/sub01/conference.php)에서는 컨퍼런스 관련 사전참가와 사전질문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사전참가 등록을 하면 강연자들의 발표 자료집을 받아볼 수 있으며, 사전참가 등록은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또한 관심 있는 강연의 강연자에게 직접 질문을 남기면 답변을 받을 수 있고 사전신청 및 사전질문 참여자를 위한 상품도 준비돼 있다.

울진 보광사 전소…긴급 모연 시작

5월28일 대웅전 · 종각 피해


산불로 전소된 울진 보광사 모습.

5월 28일 경북 울진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당국이 진화작업에 한창인 가운데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보인)이 즉시 현장에 긴급구호 선발조사단을 파견, 산불 화재피해 파악과 주변 사찰 피해 확인에 나섰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5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5월 28일 발생한 산불로 대한불교조계종 제11교구 본사 불국사 말사인 보광사 대웅전과 종각 등 축구장 203개에 해당하는 산림 145ha가 전소됐다는 사실을 현장 선발조사단 파견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선발조사단에 따르면 산불은 5월 28일 낮 12시 6분 경 울진군 근남면 행곡리 산 27의 6 일원에서 낙석방지 철망공사 용접 불티로 시작됐으며 23시간 34분 만에 진화됐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확인 결과, 보광사 대웅전 1개소와 종각 등, 그 외 상가 4개소가 전소됐다. 행곡리와 읍남리, 수산리 주민 44명은 한밤중 울진군민체육회관과 마을회관 등 4곳으로 대피했다. 천연기념물 제96호인 수산리 굴참나무(수령 300년)와 제409호인 행복리 처진소나무(350년)는 화마를 피해갔다.

보인 스님은 "인근 주민들은 지난 3월 대형산불이 난 뒤 2달여 만에 일어난 산불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울진 추가 산불 발생 긴급 모금 후원을 통해 복구 지원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울진군에서는 지난 3월 4일부터 9일간 대형 산불이 이어지면서 축구장 2만 180개에 달하는 산림 1만 4000헥타르가 불타고 320여 가구, 46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한편 조계종긴급구호단은 1996년 경기도 연천 · 문산 집중호우 피해 구호활동을 시작했다. 국내외 재난 · 재해 사태 발생 시 현장을 아우르며 전문적인 구호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울진 산불 사찰피해 관련 해피빈 긴급 모금 등을 통해 복구에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하나은행 271-910006-64104 조계종사회복지재단. 02)723-5101 임은호 기자

"문수 스님 자비심,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중승대 총동문회, 5월 31일 12주기 추모 다례재

못생명위해 자신 내던진 원력
조화로운 세상으로 이어갈 것


중앙승가대 총동문회는 5월 31일 서울 개운사에서 문수 스님 12주기 추모 다례재를 봉행했다.

"자신의 생명을 보시해 만 생명을 구제하고자 한 문수 스님의 행동은 수행자로서 아무나 흉내 낼 수 없는 용맹정진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문수 스님의 간절한 발원인 만 생명의 소중함과 이웃에 대한 자비심을 다시 한 번 가슴 깊이 새기며 더불어 사는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정진할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강행한 4대강 개발사업 중단을 요구하며 소신공양한 문수 스님 입적 12주기 추모 다례재가 5월 31일 오전 서울 개운사에서 봉행됐다.

중앙승가대 총동문회(회장 성행)가 주최하고 조계종 총무원이 후원한 이번 다례재에는 중앙승가대 총동문회장 성행 스님, 사회부장 원경 스님, 서울 도선사 주지 태원 스님, 불교중앙박물관장 탄탄 스님과 중앙승가대 동문 · 도반 스님들, 유가족 등이 참석했다.

다례재는 삼귀의 · 반야심경 봉독과 총동문회 17기 회장 성화 스님의 행장소개, 총동문회장 성행 스님의 추모사, 헌다 및 헌화, 종사영반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성화 스님은 행장소개를 통해 "문수 스님의 소신공양은 죽어가는 강과 강에 깃든 생명을 살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배려가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보살의 원력으로 부처님 전에 바친 것"이라면서 "문수 스님은 손을 부처님 모습처럼 올리고 자세를 가지런하게 했고 마지막 순간까지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고 전해져 더욱 큰 울림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도선사 주지 태원 스님은 인사말을 대신해 오른 자리에서 개운사에서 4년간 문수 스님과 공부했던 시절을 떠올렸다. 태원 스님은 "문수 스님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고 오른 것에 뜻을 굽히지 않은 스님이었다"고 회고했다.

이날 다례재 참석자들은 천도의식인 종사영반이 진행되는 동안 차와 꽃을 올리며 스님의 유지를 되새겼다.

문수 스님은 1986년 합천 해인사에서 시현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해인사 승가대학과 중앙승가대를 졸업하고 통도사, 두방사, 해인사, 묘관음선원 등에서 정진하며 20년이 넘는 세월동안 수좌의 길을 걸었다. 2006~2007년 청도 대산사 주지 소임을 역임한 이후 군위 지보사에서 일종식하며 수행에만 매진했다.

문수 스님은 2010년 5월 31일 군위군 위천 제방에서 '이명박 정권은 4대강 공사를 즉각 중지 · 폐기하라' '이명박 정권은 부정부패를 척결하라' '이명박 정권은 재벌과 부자가 아닌 서민과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유서를 남기고 세납 49세, 법납 25년으로 소신공양을 결행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정관 · 우관스님, '사찰음식 명장' 지정

원행 스님 6월 2일 위촉장 수여
사찰음식 전승, 대중화 인정받아



왼쪽부터 우관 스님, 총무원장 원행 스님, 정관 스님

사찰음식 대중화에 힘써 온 정관 스님과 우관 스님이 조계종 사찰음식 명장으로 지정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6월 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위촉장을 수여했다.

조계종은 사찰음식 전승과 보존 및 대중화에 탁월한 업적을 세운 스님을 대상으로 사찰음식 명장을 지정하고 있다. 명장 지정은 2016년 선재 스님, 2017년 계호 스님, 2019년 적문 스님 · 대안 스님에 이어 네 번째다. 사찰음식은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경, 이하 문화사업단)의 주요 사업이기도 하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문화사업단과 함께 한국의 사찰음식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는 두 스님을 이제서야 사찰음식 명장으로 위촉하게 됐다. 정관 스님과 우관 스님의 사찰음식 명장 위촉을 축하드린다"고 밝혔다.

이번에 명장으로 지정된 두 스님은 공히 사찰음식 대중화에 힘써왔다. 정관 스님은 현재 전남 백양사 천진암 암주이자 금발우 선음식 아카데미 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5년 미국의 유명 TV프로그램인 '아벡에릭'에 출연했으며, 2016년 넷플릭스의 '셰프의 테이블'에 출연해 사찰음식을 세계에 알렸다.

우관 스님은 현재 마하연사찰음식문화원 원장이며 2017~2019년까지 사찰음식 관련 영문 저서인 〈Wookwan's Korean Temple Food〉를 발간했고, 이 책으로 미국 독립출판협회(IBPA) 벤자민 프랭클린 어워드 은상을 받기도 했다. 신성민 기자

아름답고 심오한 통찰이 번득이는 주련의 세계



주련(柱聯)은 영련(楹聯)이라고도 한다. 여기서 주(柱)와 영(楹)은 기둥을 나타낸다. 그리고 연(聯)은 '연이어'라는 표현으로 판자에 글을 써서 새김을 하여 걸어 놓은 것을 말한다. 대부분의 주련은 훈계나 격려 또는 경책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주련의 바탕이 되는 판자의 아래로는 연잎이나 연꽃, 당초(唐草) 문양 등을 새겨 장식하여 주련의 문장이 경직된 문구라면 이를 좀 더 완화하고, 흥부(興賦)하는 문구라면 더욱더 이를 북돋우기도 한다.

주련도 엄연히 삼보에 대비하여 본다면 법보에 해당한다. 주련의 내용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인용하거나 삼보를 찬탄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주련도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의 방편이기에 이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포교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사찰에서 만나는 주련
지홍 법상 | 1,056쪽 | 55,000원

590수의 게송, 나고 죽음이 없는 도리를 노래하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마음을 근간으로 하여 이루어진다. '나고 죽음이 없는 도리'를 일러주는 것이며, 이를 불생불멸(不生不滅)이라 한다. 또한 불교 재(齋)의례의 대부분은 죽은 자를 위한 법회이다. 하여 법문을 들려주어 무명을 타파하기를 바라는 것이 요점이다. 이를 모르면 시식(施食)이 음식을 베풀어 영가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는 것으로 착각하기 십상이다. 시식(施食)의 본질은 법식(法食)이다. 영가에게 법식을 베풀기 위해서는 재(齋)를 주재(主宰)하는 이가 그 내용을 알아야 한다. 아는 만큼만 전해줄 수 있다. 뜻을 모르고 하는 염불은 염불(念佛)이 아닌 구불(口佛)이라 하여 예부터 경책하였던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다.

불교 재齋의례 게송
지홍 법상 | 1,392쪽 | 50,000원

주식회사 문학연대는 사람의 삶에 서정을 입히고, 장르를 넘어서는 문학의 세계를 꿈꾸는 출판 기업입니다.

스리랑카 국민 위한 '필수 의약품' 모연 운동 전개

경제난 속 약품 부족…사상자 발생

마하위하라 사원, 기금 모연 나서
국적기 배송…불교종단 직접 배포
"정치 떠나 인도적 지원" 참여 호소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국가 부도 상황에 처한 스리랑카에 최악의 경제난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의약품 부족으로 수술이나 치료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해 사상자가 발생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재한 스리랑카인들의 안식처 아산 마하위하라 사원이 스리랑카에 의약품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모연에 나섰다.

살가무웨 담마끼띠 테로 스리랑카 지정 한국불교 교류 총괄책임자(아산 마하위하라 사원 주지)는 6월 2일 호소문을 내고 한국불자들에게 간절한 도움을 요청했다. 호소문에 따르면 현재 스리랑카에서는 식료품은 물론 생필품, 가스 · 기름 등 연료, 의약품 등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생필품 가격이 올랐고 특히 식품 분야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보다 45% 넘게 올라 서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무엇보다 의약품 부재가 스리랑카 국민들의 생명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노령 · 기저질환자의 생명을 연장시켜 줄 필수적인 의약품은 물론, 갑작스러운 사고와 병고로 치료가 필요한 환자, 임산부가 아이를 출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일체의 의약품까지도 구할 수 없는


스리랑카 인민사회주의 공화국 대사관
EMBASSY OF THE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31/05/2022
Ven.T Dhammakirti,
Chief Incumbent of Korea-Sri Lanka Mahaviharaya
Republic of Korea
Donation of Medical Supplies/Pharmaceutical Items to Sri Lanka
Sri Lanka and South Korea shares a historical relationship based on the common values of the Buddhism and Buddhist culture, for centuries. It is our firm belief that the friendship and cooperation of Sri Lanka with the Buddhist community in the Republic of Korea, based on the common linkages of the Buddhism will instigate new avenues to bolster the existing amicable relations between our two countries.
At present, the friendly people of Sri Lanka is facing a challenging time due to the shortage of essential medicines and pharmaceutical items. In this connection, at the onset, I wish to extend my profound gratitude, on behalf of the the people of Sri Lanka, and my own behalf, for your response to help and assist Sri Lanka, in fulfilling the requirement of essential medical/ pharmaceutical items, at this critical and challenging moment of my country.
Accordingly, as requested by you, I herewith forward the updated list of medical supplies, received from the State Ministry of Production, Supply and Regulation of Pharmaceuticals of Sri Lanka, for your kind perusal and to raise support and assistance from the Buddhist Society of Korea, as appreciated (Annex 01).
The donations will be directly received by the Ministry of Health, Sri Lanka. The donors are advised to provide this Embassy with a list of medical/pharmaceutical items, as per the Annex, enabling this Embassy to get a prior approval from Colombo.
In addition, most importantly, I herewith append the details of the bank account for those who are interested in making financial donations in foreign currency to purchase of medical supplies.
Bank - Bank of Ceylon, Metropolitan
Account No - 0086777498
Account Name - Ministry of Health Special Foreign Currency Account
SWIFT Code - BCEYLKLX
Bank Code - 7010
Branch Code - 018
Your effort to help the people of Sri Lanka is greatly appreciated.
Sachini Dias (Mrs)
Charge d' Affaires a.i.

상황이다.

이에 마하위하라 사원은 본국 정치상황을 떠나, 인도적 차원에서 고통받는 스리랑카 국민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스리랑카 국민들을 위한 필수의약품 지원을 위한 모연'을 시작했다. 모연금은 전액 스리랑카 국민들을 위한 의약품 구입에 사용될 예정이며 구입은 병원불자연합회(회장 류재환)를 비롯한 한국 불자의료인들의 도움을 받을 계획이다. 마련된 필수의약품은 주한 스리랑카대사관을 통해 국적기를 활용, 스리랑카로 배송될 예정이다. 본국 내에서의 의약품 배포는 스리랑카 불교종단이 직간접적으로 담당한다.

현재 마하위하라 사원은 주한스리랑카대사관을 통해 '의약품 생산 · 공급 및 규제부(from the State Ministry of Production, Supply and Regulation of Pharmaceuticals of Sri Lanka)'로부터 필수의약품 목록을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상태다. 목록은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의약품(vital pharmaceuticals) 11개와 중요 의약품(essntial pharmaceuticals) 405개, 시급한 외과수술 관련 의약품(urgent surgical urgent) 47개 등으로 구성돼 있다.

담마끼띠 스님은 또 "스리랑카 내 정치상황과 무관하게, 오로지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국민들을 위한 필수의약품을 통한 인도적 지원을 이루고자 한다"면서 "고통받고 있는 불교국가 스리랑카 국민들을 위해 한국불자들의 관심과 정성을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1948년 독립 이후 최악의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스리랑카는 국제통화기금과 국제금융지원 협상을 벌이고 있다. 스리랑카의 5월 물가 상승률이 39.1%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자, 전국 곳곳에서는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으며 때때로 격렬한 시위가 발생,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 기업은행 641-042679-04-016 (사)마하위하라. 010-6402-1333

세원사, 상월청년회에 장학금 수여



동국대 건학위원회는 5월 31일 지역 미래불자 육성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여식에는 상월청년회원 중 동국대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10명에게 장학증서가 수여됐다.

동국대 건학위 5월 31일
미래불자육성장학 전달식

상월결사 정신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상월청년회원들에게 장학금이 수여됐다. 동국대 건학위원회(위원장 돈관)는 5월 31일 본관 5층 건학위원회 회의실에서 '지역 미래불자 육성 장학증서 수여식'을 열고 동국대 재학 상월청년회 회원들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장학금은 보령 세원사(주지 정운)가 후원했으며, 상월청년회를 이끌고 있는 서울 수국사(주지 호산)를 통해 전해졌다.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은 "원래는 지역 사찰과 같은 지역의 재학생들을 이어주는 장인데 상월청년회의 학생들에게도 장학금이 지원돼야 한다는 호산 스님의 건의가 있었다"면서 "여러분의 활동에 기대가 크다. 행동 하나하나가 불교를 대표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활동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수국사 주지 호산 스님은 "상월청년회는 상월결사 회주이자 건학위원회 총재이신 자승 스님의 인연으로 만들어졌다"며 "감사편지에 담긴 대로 장학금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신행활동도 활발하게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성이 동국대 총장은 "청년 불교가 활성화돼야 출가자가 많이 생기고, 불교도 발전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게 상월청년회는 타의 모범이 되는 단체"라면서 "상월청년회원 재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 성공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수여식 직후 상월청년회원들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김서윤(광고홍보학과 3학년) 씨는 "주워진 돈을 허투루 쓰지 않고 상월청년회 활동 및 청년 포교에 힘쓰는 데 사용하겠다. 또한 제 꿈이었던 광고 기획자가 되기 위한 공부 관련 교재 구입의 장학금으로 유용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한국불교 이끌 청년불자 120명 수계 받아

청년대학생전법단 5월 29일
합동수계법회 봉행

전계사로 포교원장 범해 스님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 등 격려
3년만의 대면행사, 120명 운집
8월 영부디스트캠프도 예정돼


조계종 포교원 포교부장 선업 스님이 조석주 대불련 회장에게 연비를 하고 있다.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청년대학생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불제자로 거듭났다. 조계종 청년대학생전법단(단장 무각, 서울 공생선원장)은 5월 29일 서울 봉은사에서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와 함께 '2022 청년대학생 불자 합동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수계법회에는 전계사로 포교원장 범해 스님이 나섰으며,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 포교부장 선업 스님과 청년대학생전법단 지도법사 스님 및 대학생 120여 명이 참석했다.

대학생전법단 합동수계법회는 그동안 총 다섯 차례 진행됐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비대면과 대면을 함께 진행해오다 3년 만에 전면 대면으로 진행됐다.

청년대학생전법단장 무각 스님은 "법의 인연을 맺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 수계법회를 하게 된 것은 지중한 인연"이라며 "계를 받아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정진해가자"고 당부했다.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도 "요즘 시대 불교계에 젊은 청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와중에 오늘 모인 여러분에게 감사를 전한다. 여러분이 불교계의 기둥"이라며 "주변의 친구들에게 불교를 알리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자. 여러분이 있기에 아직 불교의 미래가 밝다"고 말했다.

이날 합동수계법회에는 전계사 범해 스님, 인례사 효석 스님(청년대학생전법단 사무국장), 집전 청일 스님(성균관대 지도법사) 하에 수계에 대한 의미 설명 등도 함께 진행됐다.

전계사로 나선 포교원장 범해 스님은 "계라고 하는 것은 착한 일을 하고 악한 일을 하지 않는 기본이 되며, 부처님이 되는 근본"이라며 "부처님의 다섯 가지 계법은 남에게 배우는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자신을 지켜야 하는 가르침이다. 오계는 불자들이 믿고 의지할 생활지침이며, 바른 행동의 덕목"이라고 설했다.

장궤합장한 청년불자들은 참회진언과 함께 연비를 받았다. 지도법사 스님들이 향불로 연비를 하는 동안 합장한 채로 계속해서 진언을 외웠다. 수계 후에는 청년대학생전법단 지도법사 스님들과 학생들이 함께 소통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조석주 대불련 60년차 회장은 "오늘 수계법회를 통해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자랑스러운 청년불자들이 되길 바란다"며 "오는 8월 3년 만에 대면 캠프인 영부디스트 캠프를 통도사에서 진행한다. 전국의 법우들과 만나 소통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라며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한마음과학원 5월 28일 공생실천과정 36기 회향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생활에 많은 변화를 느끼고, 거기에 맞춰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마음을 잘 살피고, 근본인 주인공을 알게 하는 생활수행 실천프로그램이 눈길을 끈다.

2002년 10월 1기 강의를 시작으로 20년 넘게 발전을 거듭하며 마음공부의 길을 안내하고 있는 한마음과학원의 한마음공생실천과정은 5월 28일 한마음과학원에서 36기 교육과정을 회향했다. 한마음공생실천과정은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공부 재료로 삼아, 자신의 근본(主人空)을 탐구하며 자신의 내면을 지켜보고, 믿고 맡기며 내려놓는 연습을 통해 마음의 힘을 키워 나가는 생활 속 참선수행 프로그램이다.

한마음과학원 담당법사 혜찬 스님은 "일상생활에서 다가오는 것들을 마음공부의 재료로 삼아 긍정적으로 재입력하는 연습을 통해 나와 내 주변을 바꾸어 갈수 있다"며 참여를 당부했다. 37기 교육은 5월 29일부터 신청가능하며, 교육과정은 10월 1일부터 시작된다. 선착순 50명 참여가능하다. (031)470-3198 노덕현 기자

불교진흥원, 일묵 스님 초청 6월 열린강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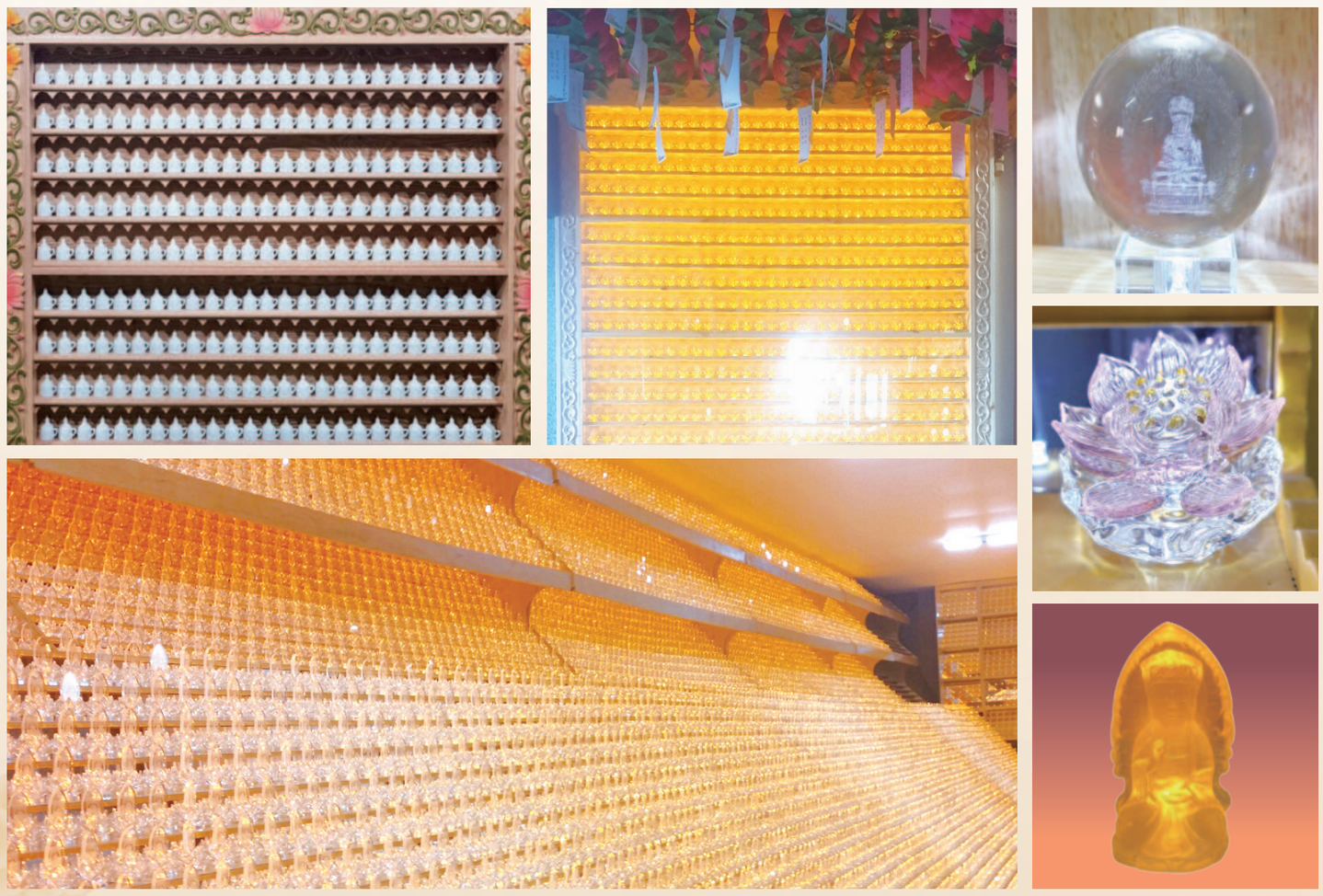
(재)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한구)은 6월 21일 오후 7시 마포 다보빌딩 3층 다보원에서 6월 화요 열린 강좌를 진행한다.

이번 강좌는 '화, 어떻게 버릴 것인가'를 주제로 제따와나선원장 일묵 스님이 강사로 나선다. 강좌 대상 도서는 일묵 스님의 저서 〈화, 이해하면 사라진다〉이다. 이날 강좌에서 일묵 스님은 일상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화'의 속성을 명확히 이해하고 화내는 것에서 벗어나 지혜와 행복의 길로 가는 방법을 전한다. 강좌는 영상촬영후 BBS TV와 유튜브 '헬로붓다 TV'에도 업로드될 예정이다.

해인사 백련암에서 성철 스님의 제자 원택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일묵 스님은 범어사 강원을 졸업했고 봉암사, 미얀마 파욱국제명상센터, 영국 아마라와띠, 프랑스 플럼빌리지 등 국내외 수행처에서 수행했다.

현재 제따와나선원장으로 있다. 저서로 〈이해하고 내려놓기〉, 〈일묵 스님이 들려주는 초기 불교 윤회 이야기〉, 〈사성제〉 등이 있다. 문의 (02)719-2606 신성민 기자

인등생산 전문기업
금륜사
30여년 축적된 원목제품 생산
노하우와 장인정신으로 유수의 사찰과
맞춤제작 인연을 맺어 오고 있습니다.
※ 무상 A/S 2년 보장합니다.
경기도 포천시 송선로 149번길 48
전화 010-3781-2460 / 031-534-0048
팩스 031-532-2468









코로나로 힘드셨죠? 템플스테이로 오세요

활기 띤 템플스테이, 특색 있는 사찰은

무소유길서 사색하는 송광사
용문사, 피자 만들기 '인기'
서울 사찰들 이색 체험 눈길
기차여행 연계 템플스테이도
6월 여행가는날 이벤트 활용을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아직 불안하지만, 그래도 일상 회복은 이뤄졌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지치고 힘들었던 사람들은 산과 들로, 바다로 여행을 떠난다. 해외여행 패키지는 출시 즉시 마감된다고 한다. 이럴수록 정중동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지친 심신을 추스르고 스스로를 반추하는 데 템플스테이만한 것이 있을까. 한번쯤 가볼만한, 그리고 이색 체험이 있는 템플스테이를 정리했다. 특색 있는 템플스테이에 대한 추천은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경)의 도움을 받았다. 〈편집자 주〉

나를 바라보는 기회를 찾는다면

조용한 산사를 거닐면 자연스레 스스로를 돌아보게 된다. 사찰에서의 1박 2일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다.

승보사찰 송광사는 '다녀오겠습니다' 체험형 템플스테이를 주말에 운영한다. 주말 1박 2일형을 기본으로 매월 마지막 주에는 2박 3일로 확대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우리에게 무소유의 가르침을 전한 법정 스님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는 '무소유 길'과 암자를 한 바퀴 걸어보는 것이다. 2박 3일 체험 템플스테이에는 스님들과 대화시간, 차담, 전통책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이 더 추가된다. (061)755-5350

오대산 월정사는 나를 위한 휴식을 위한 다양한 템플스테이, 수련회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2박 3일간 참선을 하며 자신을 오롯이 바라볼 수 있는 참선 템플스테이 '오롯이 바라보기'가 6월 24~26일, 10월 28~30일, 12월 16~18일 진행된다. 치유·이완 통합 명상 템플스테이(2박 3일)도 7월 중 진행되며, 여름수련회 템플스테이도 7월 29~31일, 8월 5~7일 두 차례 열린다. (033)339-6606

양평 용문사는 주말 체험형 템플스테이 '나를 챙기다'를 운영하고 있다. 용문사 템플스테이의 테마는 쉼이다. 스님과 화롯불 앞에서 차담을 하며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쉬어갈 수 있고, 요가로 나쁜 자세도 교정할 수 있다. 조금 출출한가? 용문사에서는 먹는 즐거움도 있다. 경내 있는 화덕을 이용해 피자를 만들고 먹는 체험도 할 수 있다. (010)5342-5797

수도권 사찰 템플스테이도 '다채'

일상이 바빠 1박 2일까지는 시간을 못 내는 수도권 직장인이라면 서울권 사찰들을 추천한다. **서울 북한산 금선사**는 당일형 템플스테이인 '스님과 함께하는 사불체험'을 매월 한 차례 무료로 진행한다. 프로그램은 아침 9시30분 입재하며 사불체험과 불교문화재 전문가(도윤수, 최성은, 조규환 등)들의 강의도 들을 수 있다. 서울 야경을 체험하는 별빛야행(금·토) 템플스테이와 북한산 숲 속에서 아침명상을 할 수 있는 아침햇살 숲속명상(토·일) 템플스테이도 몸과 마음을 힐링하기에 충분하다. (02)395-9955

마포나루 고찰 석불사에서는 번잡한 도심과 조용한 사찰의 경계를 느낄 수 있다. 휴식형 1박 2일 템플스테이에서는 자유롭게 몸과 마음을 쉴 수 있으며, 스님과 함께 한강변을 걸으며 명상을 할 수 있다. (02)712-1765

사찰 숲에서 나를 힐링하다

자연과 함께하고 싶다면 단연 강원권 사찰들을 추천한다. **설악산 백담사**는 당일형부터 1박2일, 2박3일형까지 다양한 템플스테이를 운영한다. '국립공원 스트레스 회복 프로그램'은 당일형 템플스테이로 백담사 숲에서 스트레스 회복을 위한 명상을 체험하는 것이 메인 프로그램이다. 1박 2일형 '행복 숲명상 템플스테이'에서는 스님과 함께 숲 포행을 하며 설악산의 밤하늘 아래서 차담을 할 수 있다. (010)8978-5035

해발 800m에 위치한 **영월 망경산사**에서는 도량 가득한 야생화와 산약초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템플스테이가 진행된다. 망경산사 체험형 템플스테이는 주말(1박 2일)에 운영되며, 사찰투어(야생화 관람), 예불, 108배와 마음챙김 명상, 스님과의 차담 등을 체험할 수 있다. (033)374-8007

수도권 대표 사찰 중 한 곳인 **교종본찰 봉선사**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존지역'인 광릉숲 일원을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곳이다. '비밀의 숲 산책' 템플스테이(주말 운영)는 봉선사 일원의 광릉숲 길에서 걷기명상을 체험하며 휴식과 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010)5262-9969

불교 전통문화 체험을 한다면

합천 해인사에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팔만대장경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템플스테이가 운영된다. 주말에 운영되는 'In.Haein' 템플스테이는 그동안 출입이 엄격히 제한된 장경판전의 내부를 순례하고 참선, 108배, 팔만대장경 인경을 체험할 수 있다. 해인사는 길게 사찰에서 묵을 수 있는 장기휴식형(15일 이상 30일 이하) 템플스테이도 운영하며, △소릿길 체험 △주중 휴식형 등 다양한 형태의 템플스테이가 준비돼 있다. (010)4763-3161

팽수도 체험했던 한국불교 전통무예 선무도를 체험하고 싶다면 **경주 골굴사**로 가자. 골굴사에서는 함월산 트레킹과 감포 바다명상, 선무도, 국궁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형 템플스테이를 1박 2일·2박 3일로 나눠 운영 중이다. 여름에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화랑캠프도 열린다. (054)775-1689

장성 백양사의 템플스테이는 한국 전통 사찰음식이 주요 테마다. 조계종 사찰명장 정관 스님과 직접 사찰음식을 만들며 행복한 한 끼를 체험할 수 있다. 휴식형 템플스테이는 평일에 운영되고 있다. (061)392-0434

기차여행하고 템플스테이도 하고

기차여행만의 낭만을 느끼며 템플스테이를 하고 싶다면 **'템플스테이 기차여행'**을 추천한다. 현재 수덕사, 내소사, 갑사, 봉정사와 연계한 기차여행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특히 사찰에서의 템플스테이 전후로 지역 명소와 문화재들을 둘러볼 수 있는 것은 이 프로그램의 매력이다. 다만, 여행 출발 날짜와 최소 출발인원이 다르니 확인이 필요하다. 1544-7755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6월 한 달 동안 진행하는 **'행복두배 템플스테이'** 이벤트를 활용하는 것도 좋다. '행복두배 템플스테이'는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22 여행가는 달' 행사와 연계해 이뤄지는 템플스테이 할인 이벤트다.

해당 이벤트 참가자는 1박 2일 템플스테이를 3만 원에 체험할 수 있고, 외국인의 경우 당일형 템플스테이를 1만 원에 참가할 수 있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푸짐한 기념품도 제공된다.

1박2일 템플스테이의 경우 내·외국인 6000명을 대상으로 하며 당일형 템플스테이는 외국인 500명을 대상으로 한다. 예약은 템플스테이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가능하다.

문화사업단장 원경 스님은 "코로나 19 방역 완화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여행가는 달'로써 푸르른 숲이 우거진 여름 산사에서 코로나로 지쳤던 몸과 마음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져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인증 승려연수과정

승려연수과정 수강생 모집
현대인을 위한 생활수행과 포교

코로나 이후 법회 운영 어떻게 할 것인가?



일 정 2022년 8월 24일(수) ~ 26일(금), 2박 3일

장 소 경주 황룡원
(경북 경주시 엑스포로 40 (지번) 신평동 150-8)

문 의 031-470-3196, 3200 (월요일 휴무)

정 원 50명(선착순)

교육비 20만원(국민은행, 292-01-0033-316) (재)한마음선원과학원

법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

- 생활 속 참선 수행의 원리와 교육방법
- 변화하는 시대의 사찰 운영 사례
- 온라인법회 운영과 컨텐츠 제작 및 사례
- 마음과 과학

	1일차 (8월 24일, 수)	2일차 (8월 25일, 목)	3일차 (8월 26일, 금)
09:00~12:00		수행과 포교의 연계성 '원리와 사례'	현대인을 위한 포교
14:00~17:00	현대적 생활 수행과 포교 방안	생활 속의 마음공부 '실천중심 방법론'	
18:30~20:30	불교 속의 과학 과학 속의 불교	뉴노멀 시대 온라인 법회 활용 방안	

재단법인 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모바일 신청도 가능합니다.

禪 · 불교문화 체험 콜라보 여행

여래사 '선지식 친견 및 문화답사'
6월26일, 표충사 등 3대사찰 방문

선문화 선법문 통해 禪 이해 도와
무명사찰 찾아 잊힌 불교문화 조명
코로나 힘겨움 극복 힐링의 의미도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선지식을 친견하고 불교문화를 탐방하는 답사가 마련된다. 부산 여래사(주지 종우)는 6월 26일 '선지식 친견 및 문화답사'를 개최한다. 오전 8시 20분에 부산 YMCA를 출발해 밀양 표충사와 무봉사, 밀양 용궁사를 답사한다. 동참금은 5만 원이며, 접수는 선착순 40명이다.

'선지식 친견 및 문화답사'는 일반 시민들과 신도들이 경험하기 어려운 선문화 체험을 제공하며 선지식의 법문을 통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선(禪)'의 좀 더 쉬운 이해를 돕는 데 목적이 있다.

아울러 유명 사찰 뿐 아니라 널리 알려지지 않는 사찰을 안내하고 그 안에 있는 불교문화의 가치를 찾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해 그동안 만나지 못한 인연들과의 만남을 통한 힐링의 장이기도 하다.

△밀양 표충사는 통도사 말사이며 임진왜란 때 승병을 일으킨 사명대사의 충훈을 추모하기 위하여 세운 표충사당이 있는 곳이다. 아울러 현대 한국불교의 선사이자 '새벽 산봉우리', '절구통 수좌'라 불린 효봉 선사가 정진하고 입적한 곳이다. 표충사는 현재 재가불자들이 바른 선수행을 할 수 있는 선회(禪會)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선문화 체험 템플스테이를 운영 중이며, 수좌 스님들을 위한 선방을 운영해 10여 명의 스님들이 참선 수행 정진 중이다.

표충사 주지 진각 스님은 2019년 동안거 때 천막 수행을 했던 '천막법당 상월선원'에서 수행 정진했다. 천막법당에서 수행한 아홉 스님들은 "천막법당 상월선원에 들기 전에 천명한 여기 이 자리에서 내 몸은 말라버려도 좋다. 어느 세상에서도 얻기 어려운 저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이 자리에서 죽어도 결코 일어서지 않으리라"는 간절한 발원을 세우고 수행했다. 이번 답사에서 참가자들은 표충사 선방에서 수행하고 주지 진각 스님의 선법문을 듣는다.

여래사는 이에 앞서 6월 9일 3층 관음전에서 영화 '아홉 스님'을 상영하고 수행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갖는다. 영화는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7시 두 차례 상영한다.

△무봉사는 통도사 말사이며 신라 773년(혜공왕 9년)에 법조 스님이 창건한 천년고찰이다. 법조 스님이 영남루 자리에 있었던 영남사를 순례하던 중 큰 봉황새가 현재의 무봉사 자리에 날아와 앉아, 상서로운 성지라 생각하고 창건했다는 설화가 있다. 무봉사 대웅전에는 보물 제493호로 지정된 무봉사석조여래좌상이 봉안되어 있다. 우리나라 3대 명루로 손꼽히는 밀양시 영남루와 바로 인접해 있고 사찰 뒤에는 사명대사 동상이 있다.

△밀양 용궁사는 일제강점기 당시 밀양 중심부에 세워진 포교당이다. 일제강점기 도심 포교당으로 민족의 수난을 함께 이겨낸 사찰이다. 현재 도심포교를 위해 사명연꽃문화제, 효 잔치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통해 시민들을 초대하고 포교에 앞장서고 있다.

여래사는 "선지식을 찾아 떠나는 순례 여행을 통해 몸과 마음의 힐링을 얻기를 바란다"며 "불교문화와 선에 담긴 불교의 정수를 만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관심을 독려했다. 051)466-4080


부산 여래사가 2010년 진행한 봉화 청량사 답사 모습.

화엄승가회, 창립 7주년 기념법회

대학생 불교동아리 장학금 등 총 1200만 원 전달

부산 화엄승가회(회장 자인)가 5월 28일 부산불교교육대학 대강당에서 창립 7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회장 자인 스님과 부산불교교육대학 학장 범해 스님을 비롯한 회원 스님, 부산불교불교교육대학 총동창회 관계자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동참했다.

법회에서 화엄승가회는 부산불교교육대학 발전 기금, 장애인 포교단체 후원금과 부산지역 8개 대학 불교동아리에 장학금 등 총 1200만 원을 지원했다. 아울러 각 대학 지도 대표에게 모범신행상을 수여했다.

회장 자인 스님은 "모든 회원들의 노력과 봉사에 진심으로 감사한다"며 "7년 동안 승가회의 나눔과 공덕이 더욱 빛나며 가치 있는 그 활동이 모여 불국토의 기초석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화엄승가회는 부산불교교육대학 출신 스님들이 2015년 발족한 승가나눔 공동체이다. 창립 이후 인재불사에 앞장서 왔으며 자살 및 교통사고 방지 캠페인, 연탄나눔 등 자비나눔을 실천해 왔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범어사, 제3차 천일화엄대법회 입재

1000일 동안 53선지식 초청법회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경선)가 5월 30일 경내 보제루에서 '제3차 천일화엄대법회 및 53선지식 초청법회'를 입재했다.

입재법회에는 주지 경선 스님을 비롯해 신도들이 동참했으며 주지 경선 스님의 입재법문으로 법회의 시작을 알렸다.

주지 경선 스님은 "화엄경은 한마디로 마음을 어떻게 사용할지 알려주는 내용이다. 마음을 잘 알아야 한다"며 "1000일 동안 법사 스님들의 법문을 들으면서 화엄의 세계가 전하는 지혜의 세계에서 성장하고 정진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범어사는 지난 4월 27일 '제2차 천일화엄대법회 및 53선지식 초청법회'를 회향했다. 범어사는 신라 문무왕 18년(678)에 의상대사가 창건한 화엄십찰 중 하나이다.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은 범어사가 화엄도량임을 대중에게 강조하고 화엄법회를 이어오고 있다.

한편, 범어사 동산장학회가 지난 5월 19일 동명대에서 장학금 3000만 원을 전달했다. 동산장학회는 동산 대종사의 한국불교 정화 사상을 기리기 위해 2017년에 설립된 장학재단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쿠무다, 6월 이-음 콘서트 개최

우크라이나 평화기원 음악회 등
매주 수요일 쿠무다 콘서트홀서

문화예술사단법인 쿠무다(이사장 주석, 이하 쿠무다)가 6월 수요음악회 이-음 콘서트를 개최한다.

쿠무다는 연주자에게 무대를 제공하고, 관객과 연주자의 연결을 의미하는 이-음 콘서트를 기획하고 매월 새로운 주제로 공연을 진행하고 있다.

6월에 열리는 이-음 콘서트는 △8일 열리는 첼로와 기타의 콜라보 '듀오 뉘아쥬', △15일 열리는 피아노와 베이스의 연주 '피주베주', △6월 22일 열리는 우크라이나 평화를 기원하는 '평화기원음악회', △6월 29일 열리는 전통과 현대의 조화 '쉘로 앤 컴퍼니'이다.

특히, 22일 열리는 평화기원음악회는 체코 브르노에 난민으로 체류 중인 첼리스 톨마쵸바 옥사나를 초청해 진행한다. 톨마쵸파 옥사나는 1974년 러시아에서 태어나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프로코피에프 음악원을 졸업하고 동시에 1988년부터 2018년까지 필하모니 첼로 수석 및 유럽 비발디와 바흐 전문 연주자로 활동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해 체코로 피난한 첼리스트다. 2008년 대한민국 우크라이나 국제교류음악제 솔리스트로 활동했으며, 2022년 평화기원음악회 문경문화회관과 부산문화회관 연주에 솔리스트로 초청받았다. 쿠무다 평화음악회 협연은 황미리 플루티스트, 정아름 피아니스트가 출연한다.

이-음 콘서트는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쿠무다 콘서트홀에서 진행되며, 네이버 티켓으로 사전 예매 가능하다. 공연 티켓은 1만 원이다. 051)702-1300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동련 부산, 제38회 부산연꽃문화제 시상

대상, 추현경(그리기) · 김소윤(글짓기) 수상
"부처님과 가까워지고 지혜롭게 성장하길…"

사단법인 동련 부산지부(회장 효산)가 5월 26일 부산 여래선원에서 '제38회 부산연꽃문화제' 시상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동련 부산지부 회장 효산 스님과 이사 능후 스님, 범어사 어린이법회 지도법사 벽해 스님, 성보영 쿠무다에스브이 대표, 임한규 조계종 포교사단 부산지역단 부단장, 김옥희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장 등 내빈 및 어린이들과 학부모가 참석했다. 행사는 △개회사 △내빈소개 △삼귀의 및 반야심경 △총평 및 축사 △시상식 △수상작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대상은 그리기 부문 추현경(구서초 6)어린이와 글짓기 부문 김소윤(재송초 5) 어린이가 각각 수상했으며, 참가자 457명 가운데 총 71명이 최우수상, 우수상, 특별상과 상품을 받았다. 단체상은 옥련유치원이 수상했다.



동련 부산지부 회장 효산 스님은 "여러분의 손길로 담은 부처님의 세상은 그 어느 작품보다 아름답고 소중했다"며 "불심이 담긴 작품들처럼 밝게 성장하길 바라며 코로나19가 사라지고 안전하게 뛰어놀며 함께하는 시간을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이사 능후 스님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부처님과 가까워지고 불교문화를 통해 바르고 지혜롭게 성장하는 어린이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용문사, 소외이웃돕기 성금 전달

남해 용문사(주지 승원)가 5월 30일 남해군 이동면 면사무소에서 소외이웃돕기 성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성금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용문사 신도들이 십시일반 모은 보시금으로 마련됐으며, 총 100만 원을 전달했다. 성금은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현금 기탁 지정으로 저소득 소외계층 어린이 5명에게 장학금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주지 승원 스님은 "신도분들의 작은 정성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자비나눔 실천행으로 지역사회가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곳이 될 수 있도록 마음 모으겠다"고 말했다.

남해 용문사 신도들은 코로나19 극복 기부금과 적십자 활동지원, 소외 계층 후원금, 희망 나눔 특별성금 등 지역사회에 나눔 활동과 봉사를 실천하고 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보리수 열매도 따고, 정토선 가풍 느껴요”

고성 서방사, 제11회 고성 보리수축제 개최

관정대사 15주기 다례재 봉행
1, 2부 나눠 다양한 문화행사
등정 스님 “마음 치유 수행을”

성낙두 경남지사장

정토 염불수행과 선수행을 동시에 이어가는 대한불교정토선종이 제11회 고성 보리수축제와 함께 관정대사 다례재를 통한 수행 정신을 알렸다.

대한불교정토선종 총무원인 경남 고성 서방사(주지 등정)는 5월 29일 제11회 고성보리수축제 및 관정대사 15주기 다례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방사 주지 등정 스님을 비롯해 제천 통도사 정암 스님, 고성사암연합회회장 약수암 수운 스님, 청수암 진각 스님, 성덕사 도안 스님, 용암사 해공 스님, 관음정사 법경 스님, 지장사 일각 스님, 정월선원 체정 스님, 천비룡사 일선 스님, 성수사 일현 스님 외 정토선종 스님 및 지역 스님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와 함께 보리수축제를 주관한 이정옥 고성보리수농원 대표, 최진석 신도회장, 오은겸 상리면장 등 사부대중 300여 명도 참여했다.

전체 행사는 1부 관정대사 15주기 다례재와 2부 보리수축제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 다례재는 개회, 삼귀의, 정토선 염불, 반야심경, 봉행사(정토선종 총무원장 등정 스님), 법어(종정 정암 스님), 정토선 시식, 축원 및 공지사항,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됐다.

2부 보리수축제는 식전행사로 고성지부 아랑고고장구 공연과 고성연합회 합창단의 음성공양이 진행됐으며, 본행사에서 개회사, 이정옥 대표 대회사, 내빈소개, 최진석 신도회장 인사말, 고성사암연합회장 수운 스님 인사말, 오은경 고성 상리면장 인사말, 공양, 보리수 따기 체험 및 작은 음악회 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서방사 주지 등정 스님은 “코로나 등 전염병으로 인한 현재의 어려움은 과거에도 있었다”며 “부처님은 중생들을 참다운 행복으로 이끌고, 극락에서 세세생생 성불하도록 인연을 지어 주고자 이 땅에 오셨다. 관정 대사 가르침으로 깨우치고, 마음 성찰을 통해 선과 정을 동시에 수행하자. 진심으로 참선하는 것이 정토선이다”고 당부했다.



경남 고성보리수축제에서 장구 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제천 통도사 정암 스님은 법문에서 “극락세계는 사부대중의 마음 속에 이미 있다. 관정 스님은 아미타불 명호를 그대로 하면 누구나 극락세계에 갈 수 있다며 쉽고 짧은 염불행을 전했다”며 “염호하는 마음에 집중하여 일심으로 우주 안의 가장 큰 보물을 갖자”고 서원했다.

이정옥 보리수축제 농장주 대표는 “상리면의 자랑스러운 보리수 축제가 고성군의 으뜸이 되는 축제가 됐다. 새콤달콤한 보리수가 심혈관질환 및 기관지 등 불편한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성사암연합회 회장 약수암 수운 스님은 “고성 유일의 보리수 축제가 많은 사부대중과 함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부처님 도량에서 몸과 마음을 힐링하길 바란다”고 서원했다.

한편, 서방사는 고성보리수농원과 함께 2009년부터 보리수축제를 진행하고 있다. 고성지역은 연간 7~10t가량의 보리수가 생산되는 국내 대표 특산지다.

고운사, “스님 자산 유증시 승려복지 활용”

5월 27일 제72차 교구종회서 결의



의성 고운사는 5월 27일 화엄문화템플관에서 제72차 교구종회를 열고 ‘유언장 작성 시 고운사로 유증하는 결의의 건’을 의결했다.

의성 고운사가 결의한 내용은 고운사 본말사 스님들이 생전 유언장을 작성하면 입적 후 남은 자산을 고운사로 유증하여 사용토록 하는 취지다. 이날 고운사 대중들은 종회의원 선거 및 본사 주지 선거의 자금으로 들어가는 선거비용을 승려복지 기금으로 내놓자는 안건도 의결했다.

이어 교구 종회 후 고운사는 200여 대중이 모인 가운데 하안거 대중결계와 포살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포살법회에는 운람사 주지 등오 스님이 증명법사로 나섰으며 대중들은 청정한 계율로 승풍 진작과 수행정진을 이어갈 것을 다짐했다. 박영애 영주지국장

고창종합복지관, 소방안전교육 실시

생활지원사 어르신 안전지킴 위한 초기대응능력 향상 기대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관장 대원)이 5월 27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50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김제시에서 일가족이 화재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유사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안전과 기초적 생활을 살피는 생활지원사들을 대상으로 고창소방서의 협조를 받아 진행됐다.

교육은 응급상황 발생 시 초기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심폐소생술, 소화기 사용 방법의 이론교육과 실습으로 진행됐으며 교육 후 낙상사고 방지 등 가정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이 추가로 진행됐다.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장 대원 스님은 “이번 교육을 통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중요하다고 느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5.18민중항쟁 상처 치유 북콘서트 눈길

5월 21일 전일빌딩 다목적강당서 개최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는 5월 21일 5.18 치유 북콘서트를 개최했다.

5.18민중항쟁 당시 시민군 가족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행사가 열렸다.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대표 무등)는 지난 5월 21일 전일빌딩 다목적 강당에서 ‘이름없이 죽어간 브로크공, 오월시민군 이정모’ 출판기념 북콘서트를 개최했다. 책은 지역 불교활동가인 이해모(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사무총장) 가족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이해모 사무총장은 이정모 열사의 동생이다.

이정모 열사는 5.18 당시 시민군으로 활동하다 붙잡혀 모진 고문을 당했다. 열사는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다가 4년만인 1984년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행사는 저자 이해모의 사인회를 시작으로 넋모심 퍼포먼스(이당금, 박성순, 송한울), 인사말(무등 스님), 덕담(홍인화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 정영일 광주NGO시민재단 이사장, 황풍년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헌정시 낭송(김희용), 저서 소개영상, 저자와의 대담(정봉남, 이해모, 이상호), 헌정곡 공연(주하주), 해원무(김연우) 등이 진행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한국불교대학, 무일선원 관세음보살 점안

5월 29일 1000여 대중 운집



한국불교대학은 감포도량 무일선원서 관세음보살 점안법회를 열었다.

한국불교대학대관음사(회주 우학)는 5월 29일 감포도량 무일선원 주불 앞에서 대성자모관세음보살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점안법회에는 한국불교대학 대구큰절, 감포, 경산, 칠곡, 구미, 포항, 서울, 팔공산 도량 신도 1000여 대중이 참석했다.

관세음보살 점안법회에서 우학 스님이 직접 사경한 〈금강경〉 사본과 부처님 진신사리 1과, 유튜브 불교대학 원고와 무일생활법문 등을 복장물에 담아 의미를 더했다.

한국불교대학 회주 우학 스님은 “대성자모 관세음보살을 모신 인연이 세세생생 인연이 되어 더 좋은 곳에 태어나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 “세계 어디에서든 불교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이곳 도량이 유튜브불교대학의 원찰이라고 여기시길 바란다. 한 번 정도 오셔서 대성자모관세음보살의 기운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불교대학은 6월 7일 전 교육강좌를 동시 개강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김광호 원장, 동국대 와이즈캠에 기부

5월 30일 5천만 원 전달식
화엄법계광장 조성사업 사용



동국대 WISE(와이즈)캠퍼스 화엄법계광장 조성에 불자 독지가가 기금을 쾌척했다.

김광호 부산불교문화원장은 5월 30일 동국대 WISE(와이즈)캠퍼스에 화엄법계광장 조성사업 기금으로 5000만 원을 기부했다. 김광호 원장은 동국대 WISE캠퍼스가 화엄법계광장 조성 사업을 하고 있다는 안내문을 받자마자 “불교 인재 양성을 위해 좋은 일에 써 달라”며 기금을 기탁했다.

동국대 WISE캠퍼스는 100주년기념관 앞 광장에 화엄일승법계도를 새기고, 학생들의 체험, 휴식, 기부자 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영경 동국대 WISE캠퍼스 총장은 “WISE캠퍼스로 이름을 바꾸고 새 출발을 하는 우리 대학에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뜻을 표했다.

김광호 원장은 WISE캠퍼스 태영장학회 이사장을 역임했으며, 도서관 리모델링기금, 선센터기금 등 총 1억 3000만 원의 기금을 기탁했다.

신성민 기자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대원불교미술원은 수십년 동안 전국 사찰에
불상을 조성해왔습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915-17
전화 031)532-3722, 533-3722 | H·P 010-7171-2636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美에 티베트 불교 전한 1세대 스승 입적

5월 24일, 콩라 라뙤 린포체 입적
5세때 9대린포체 인정…30년 교육
생전 뉴욕 첫 티베트 센터 설립도
최근 달라이라마 접견…곡기 끊어

박영빈 객원기자



생전 달라이라마를 만난 콩라 라뙤 린포체(우측 두번째)와, 제자인 니콜라스 브릴랜드 스님(왼쪽 끝). 사진출처=티베트 센터 공식 페이스북

미국에 티베트 불교를 전한 1세대 스승이자, 뉴욕에 최초 티베트 불교 사원을 건립한 콩라 라뙤 린포체(Khyongla Rato Rinpoche)가 인도에서 원적에 들었다. 린포체의 부고에 미국 불교계가 슬픔에 잠겼다. 5월 27일, 미국의 불교 전문지인 '라이온스 로어'는 린포체의 부고와 함께 생전의 업적을 보도했다.

지난 5월 24일, 뉴욕에서 가장 오래된 티베트 불교 사원이자, 생전 린포체가 주석하던 '티베트 센터'는 공식 웹사이트에 부고를 발표했다. 센터 측은 "린포체께서는 편안하게 원적에 드셨다. 가까운 제자들이 임종을 지켰으며, 출가본사인 라뙤사원의 스님들이 법구 옆에서 기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센터 측은 "라뙤사원 방장인 브릴랜드 스님이 린포체의 중음(中陰)을 위해 기도해 달라는 부탁을 전했다"며 린포체와 인연이 있는 모든 이들에게 기도를 요청했다. 콩라 린포체는 인도 다람살라 처소에서 원적에 들었으며, 입적 며칠 전 마지막으로 달라이라마를 접견하고 차츰 곡기를 끊은 것으로 전했다.

콩라 라뙤 린포체는 1923년 동부 티베트의 닥얍지역에서 태어났다. 5세에 13대 달라이라마로부터 9대 콩라 린포체의 환생으로 인정받아, 이듬해 주석사찰인 라사의 라뙤사원으로 이주하여 30여 년간 전통강원 교육을 받았다.

콩라 린포체는 이 기간 동안 티베트 대장경을 모두 열람하고 연찬했으며, 달라이라마의 스승이었던 링 린포체의 수제자이자 뛰어난 논사로 이름 높았다. 이로 인해 현 달라이라마가 티베트 불교의 최고 법계인 '게쎄 하람빠'를 취득할 당시 시험관으로 발탁됐다. 달라이라마에게 즉석에서 문제를 출제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1959년, 중국의 티베트 침공을 피해 인도로 망명한 후, 우연한 기회에 유럽을 거쳐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서구에 불교를 전하는 1세대 스승으로 활동했다. 린포체는 통역 없이 직접 영어로 미국인들에게 설법하고 다양한 저술과 번역으로 전법활동에 열중했다. 1975년 뉴욕에 불교명상과 교학연구 센터로 '티베트 센터(The Tibet Center)'를 건립했으며 30년 넘게 센터의 원장이자 수석교사로 소임을 다했다.

티베트 센터는 미국에서 티베트 불교를 전파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 특히 1999년 20만 명의 대중이 운집한 달라이라마의 센트럴파크 공개강연과 이후 여러 차례에 걸친 달라이라마의 방미 일정은 모두 티베트 센터에서 주최했다. 이후 티베트 불교의 저명한 스승들과 이외의 다른 불교지도자들의 초대와 강연을 통해 콩라 린포체와 티베트 센터는 미국에 불교를 전하는 데 혁혁한 공로를 세웠다.

콩라 린포체에게 수학한 대표적인 유명인사로는 영화배우인 리처드 기어가 있으며, 또 다른 미국인 출가제자인 니콜라스 브릴랜드는 2012년, 서양인 출가자로는 최초로 총림 사찰인 라뙤사원의 방장으로 임명된 바 있다.

달라이라마는 "린포체는 미국을 비롯하여 서구의 많은 나라들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했다. 같은 은사를 두는 한 제자로서도 크게 애도를 전한다"고 발표하며 빠른 환생을 기원하는 기도문을 발표했다.

몽골 불교대표단, 교황 공식 접견

몽골–바티칸 수교 30주년 맞아
5월 28일, 종교 교류 대화 촉구



프란치스코 교황과 만남을 가지는 몽골 불교대표단. 사진출처=바티칸 뉴스

몽골과 바티칸 시국이 수교 30주년을 맞아 첫 공식회담을 가졌다. 5월 28일, 이탈리아 로마의 '바티칸 뉴스'는 몽골의 불교대표단이 바티칸을 공식방문, 프란치스코 교황과 회담을 가졌다고 보도했다. 이번 회담에서 대표단과 교황은 "인류가 삶의 모든 면에서 비폭력을 수용할 수 있도록 종교 간 대화가 필요하다"며 종교 간의 교류와 대화를 촉구했다.

지난 28일 오전, 바티칸 교황청 종교간의 대화 평의회((Pontifical Council for Interreligious Dialogue) 회장에서 몽골 불교대표단과 프란치스코 교황이 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은 몽골과 바티칸 간의 첫 공식 회담으로 양국간의 공식수교 30년 만의 일이다. 이번 자리를 주선한 지오르지오 마렝고 울란바토르 지목구 주교는 "그동안 몽골불교의 저명인사들이 바티칸을 방문하고 교황과 만남을 가진 적은 있었으나, 국가대 국가로 공식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마렝고 주교는 "가톨릭 교회는 종교 간 대화의 중요한 상대로 몽골불교를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몽골 불교대표단은 이틀간 바티칸을 방문했으며 성 베드로 대성당과 바티칸 박물관 등을 견학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회담에서 몽골의 전통적인 불교교단이 가톨릭 교회와의 상호 이해를 통해 평화로운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노력과 도움에 감사를 표했다. 교황은 또한 "평화는 오늘날 인류의 열망"이라면서 "대화를 통한 평화와 비폭력 문화를 촉진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평화와 비폭력을 위한 대화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황과 대표단은 이 자리에서 종교간 꾸준한 대화와 교류가 필요한 것을 확인하고 평화와 화합을 위한 만남을 지속할 것을 약속했다. 대표단은 두 종교 간의 평화로운 공존과 대화를 촉구하면서 "부처님은 승리와 패배를 넘어서서, 타인을 정복하고 해치려는 욕망을 자제하고 중도를 지킬 것을 가르치셨다"며 "예수와 부처 두 스승은 모두 평화를 가르친 분들"이라고 말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美 혼간지 불교 사원 100주년…"일본 이민자에 희망"

5월 26일, 경내서 100주년 기념
사원 역사 담은 영상 상영 눈길



혼간지 사원 창건 100주년 기념 특별 법요식. 사진출처=더 라푸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퍼낸도에 위치한 일본불교사찰 '혼간지 사원(SFV HBT)'이 창건100주년을 맞이해 화제다. 지난 5월 26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일본 일간지 '더 라푸'는 혼간지 사원의 100주년 기념식 소식을 전했다.

일본불교 최대 종단인 정토진종이 미국에 건립한 혼간지 사원은 지난 4월 16일 창건 100주년을 맞았다. 해당 행사는 16년간 혼간지 사원의 주지를 역임한 패트리샤 우스키 스님의 은퇴 기념식과 함께 지난해 10월 봉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연기돼 해를 넘겨 봉행됐다. 이번 행사를 위해 캘리포니아 남부와 네바다주 전역에서 온 200여 명의 불자와 내빈들이 참석했다.

혼간지 사원은 1920년 미국 샌퍼낸도에 일본인 이민자 1세대가 모여 스님께 설법을 듣고 예불을 올리던 소규모 모임에서 시작됐다. 1940년대 2차 세계대전 발발로 사찰이 강제 퇴거 당하고 스님과 신자들이 수용소로 보내지면서 한때 쇠락하기도 했으나, 종전 후 고난의 시기를 보낸 일본인 불자들을 중심으로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감사와 증장을 발원하며 지금과 같은 규모로 건립했다.

100주년 특별 예불이 있던 날 아침, 혼간지 사원은 100주년 기념 보수 공사를 완료하면서 더욱 빛나는 모습으로 불자들을 맞이했다. 이번 보수공사는 코로나 팬데믹의 어려움 속에서도 3년간 불자들이 모은 보시금을 기금으로 진행됐다.

기념법요식에서 현 주지인 마빈 하라다 스님은 "나는 지난 100년간 이 사회의 변화와 변혁을 돌이켜보며 우리가 여전히 탐욕과 분노, 무지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고통에 직면해 있음을 알았다"면서 "한 사람의 불자로서 깊은 참회 마음을 일으켰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또 행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이자 갈등과 고통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곳이 되길 바란다"고 대중에게 설했다

혼간지 사원의 100주년 기념식에서는 옛 혼간지의 모습을 기억하는 원로 불자들의 회고와 발표가 이어졌다. 니일 히가시다는 "어린 시절의 혼간지는 큰 강당을 커튼으로 나누어 공간을 구별한 공간이었다. 모든 예불과 설법은 탁상에 부처님을 모신 공간에서 봉행됐다. 또 여성 불자들이 작은 부엌에 모여 예불에 참석한 불자를 위해 일본식 식사를 준비한 것이 기억난다"고 말했다.

기념식의 하이라이트는 혼간지 사원 100주년 기념 다큐멘터리 상영이었다. 2년에 걸쳐 촬영한 25분짜리 영상에는 희귀한 역사적 사진과 세상을 떠난 사찰 원로들과의 인터뷰가 담겼다. 제이슨 팬톤과 장 폴 드 구즈만이 제작한 이 영상은 초창기 사원 건립과 불교포교의 개척자들의 정신에 대한 열렬한 감사를 표하고 현재 불자들의 끊임없는 정진, 불교의 길을 함께 걷는 유망한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공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불자 원력이 캐나다에 진신 사리탑 세워

스리랑카식 사리탑 보강 완료
지역에 기도 명상 장소 제공도



보강공사가 끝난 사리탑 앞에 선 사마디 스님. 사진출처=더 프리 프레스

스리랑카 불자들과 캐나다 불자들의 원력과 합심으로 캐나다에 부처님 진신 사리를 모신 사리탑이 준공됐다. 5월 28일 캐나다 매니토바주의 일간지 '더 프리 프레스'는 매니토바에 새로운 불교 상징물이 세워졌다고 보도했다.

이번에 완공된 진신사리 탑은 높이 7.5m, 지름 5m로 스리랑카 전통 불탑 양식으로 조성됐다. 탑신부는 백색 콘크리트로 덮였고 찰주와 장엄구는 놋쇠로 제작됐다. 2017년 매니토바 스리랑카 불교사원이 건립되면서 함께 조성된 사리탑은 캐나다의 혹독한 겨울 날씨에 파손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여름부터 보강공사에 들어갔다.

탑 내부에는 스리랑카에서 이운해온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신사리와 보리수, 불경 등의 복장물들이 모셔져 있었으나, 보강공사를 위해 탑 밖으로 이운됐고 공사기간동안 사찰의 내부에 보관하며 대중에 친견기회를 제공했다. 복장물들은 최근 사리공이 완성되면서 탑 안에 재봉안됐다. 탑의 완공을 알리는 법요는 지역 불자들과 주민들에게 공개됐다.

매니토바 사원의 관계자는 "진신사리탑은 매 주말마다 스님들과 자원봉사자들의 운력을 통해 완공할 수 있었다. 불자들은 일생에 한 번뿐인 진신사리 탑 보강공사 운력에 참여해 매우 뜻깊어 했다"고 밝혔다. 주지 사마디 스님은 "이 진신사리 탑으로 인해 방 3칸짜리의 개인주택이 매니토바 불교사원이라는 종교적인 시설로 변모할 수 있게 됐다. 스리랑카 이주민 불자들과 현지 캐나다 불자들은 물론, 이곳에 살고 있는 모든 수행자들에게 사리탑은 기도와 명상의 장소를 제공한다"며 사리탑이 현지에 전하는 의미에 대해 강조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현대인의 지친 삶을 위한 쉼터

바쁜 일상, 속도에 쫓기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로 인해 지친 삶의 연속이다. 그러다보니 자신이 주인으로 살지 못하고 종속적인 삶 속에서 혼란과 두려움 뿐이다.

어떻게, 무엇에 의지해야 하나?

마음치유 · 심신수련 · 쉼 터

빙의, 신병, 우울증, 불면증, 화병, 중독, 스트레스, 가정 · 사업문제, 심령치유, 금식기도, 장기요양

땅끝 마을 청정지 해남 견성원에서
새로운 삶의 기운을 받아 가세요!

견성원 문의전화 010-8208-7836

사주명리/점술 개인지도 · 신기/신가물/제자 환영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오직 호흡뿐 = 호흡의 물리가 터짐 = 제6차크라 열림 = 전기뱀장어의 몸 = 기공의 대가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붓다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를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를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4. 맛지마니까야 :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무른다.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문 의(예약) : ☎ 010-5282-7292 ■ 등록번호 : 138-50-00260

강남구 논현동 – 기공소리 통증치유명상센터 '현대의학으로 안되는 모든 통증 치유'

기공의 대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과학적인 증거
(ㄱ) 호흡의 물리가 터지다 = 제6차크라 젠에너지체
(ㄴ)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은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 처명선광 검색
(ㄷ) 구글에서 신희섭(기초과학연구원단장, (전)IBS 1호 연구단장, (전)KIST 뇌과학 연구소장) 구글이미지로 제6차크라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 가능

*붓다의 호흡법 : 방법을 알고 최소 1일 10시간씩 3년이상 수련 필요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유튜브에서 '처명선광' 검색
듣기만해도 치료가 되는 실전 명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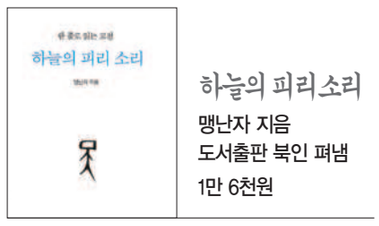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6/1~6/7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중관학특강:색즉시공의논리	김성철	오타쿠
2	요가수트라(아헹가요가시리즈8)아헹가 선생이해설한요가경	B.K.S.아헹가/현천	선요가
3	무비스님의 신심 명강의(개정판)	무비 스님 지음	조계종출판사
4	사랑하는 사람 못만나 괴롭네(고승열전14)만공스님	윤청광	우리출판사
5	반야심경 무슨말을하고있나:산스크리트어본과8종의한역본	관정	알아차림
6	마음닦는법	김재웅 지음	용화
7	운명을바꾸는법(정공법사요범사훈강설)	정공 법사/이기화	불광출판부
8	디가니까야(3)길게설하신경	각묵 옮김	초기불전연구원
9	법구경(작은경전1)	석지현 옮김	민족사
10	마하시사야도의아리야와사법문(큰북여섯)성자의집경해설	마하시 사야도	불방일

책세상

"古典 읽으면 생각과 삶의 양식 달라진다"



하늘의 피리소리
맹난자 지음
도서출판 북인 펴냄
1만 6천원



여든의 老수필가인 저자, 철학수필 장르 지평 열어
문화일보서 2년간 연재한 '한줄로 읽은 고전' 묶어
저자, "고전은 오랜시간 축적된 문화의 한 결정체"
동서양과 철학가와 사상가 넘나들며 명언들 엄선해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한국 수필계의 원로 작가인 맹난자 수필가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 석간 문화일보에 연재한 〈한 줄로 읽는 고전〉 91편과 나머지 66편을 보태 한데 묶은 신간 〈하늘의 피리 소리〉를 출간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현상만을 주시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깊이 생각하고 판단하기보다 즉흥적이면서 쉽고 빠르게 전달되는 것을 더 원한다. 지식면에서도 마찬가지다. 빨리, 간단하게 지식을 얻고자 하는 생각에 책장에 꽂힌 고전(古典)보다는 컴퓨터 앞에 앉아 검색창을 띄운다. 빠른 시간에 자신이 찾는 지식과 정보를 쏙쏙 뽑아 금방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 세상은 바쁜 현대인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온다. 이렇게 쉽게 지식과 정보를 얻다보니 어렵고 두꺼운 고전의 책장을 한 장 한 장 넘기기는 힘이 든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고전의 책장 넘기기를 소설책 넘기듯 가볍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최근에 고전의 지혜와 현대의 아이디어를 접목시켜 기획한 책들이 시중에 많이 출판되고 있다. 무수히 쏟아지는 책들 모두가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것은 아니다. 더 나아가 한 권에 담긴 모든 말들이 가슴속까지 전달되는 것도 아니다. 각 권마다 분명 짧지만 강한 핵심이 존재한다. 그 핵심을 명언이라 하는데 이는 작품 전체를 함축시킨 것으로 창작의 영감이 고스란히 결집된 지혜의 결정체이다.

저자는 중국을 비롯해 동서양의 가장 광범위한 영향을 발휘한 고전 중에서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유익한 명언만을 엄선해 한줄로 읽는 즐거운 고전 책을 탄생시켰다. 맹난자 수필가는 머리말을 통해 "인류는 코로나로 인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는 이 펜데믹 시대를 '과학의 승리, 정치와 리더십의 대재앙' 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인간의 몰락을 일찍이 이와 같이 경고한 선인들의 지혜가 시급히 요청되는 때"이라며 "지금 기계에 의존하는 과학만능이 가져온 코로나의 재앙은 인간의 이기심과 욕망이 초래한 결과"라고 역설한다. 그러면서 왜 우리가 고전을 읽어야 하는지 아래의 글로 피력한다. " '한 시대의 병(病)은 사람의 양식 변화로 치료된다' 고 말한 이가 있다. 오스트리아의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이다. 그는 사람의 '사유' 가 삶의 양식 변화를 일으킨다며 삶을 변화시켜야 진짜 철학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생각이 바뀌어야 삶이 달라진다. "며 "이 책에서는 동서양 철학자, 그리고 경전과 고전문학 속에서 자신의 편견과 오류를 정정하고 바른 사유의 전환을 돕는 내 나름의 안구(眼句)를 뽑아보았다. 그러나 내 시야란 자신의 한계까지임을 밝힌다. 그동안 생의 기준이 되는 유용한 질문과 답으로써 우리의 몽매를 깨우친 삼현(三玄)(〈노자〉 〈장자〉 〈주역〉)의 서(書)를 특히 주목하며 나아가 인류의 스승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선인들의 지혜가 담겨 있는 고전을 음미하고 읽어야 생각과 삶의 양식이 바뀌어 진다는게 저자의 생각이다.

책은 총 10장으로 구성돼 있다. 제 1장 '도(道)' , 제2장 '주역' 과 제3장 '자연' 에서는 "대자연의 본체를 굳이 표현하자면 '도' 라 하나 표현된 '도' 나 이름은 이미 본체가 아니요. 형상도 이름도 없는 본체를 굳이 또 표현하자면 '무(無)' 라고 한다. 도에는 필경 어떤 명칭도 붙지 못하는데 도는 물을 수 없는 것이며 설사 묻더라고 응답할 수 없는 것"이라며 노자와 장자, 주역 등에서 역설한 도(道)를 알아보았으며, 〈주역〉 〈도덕경〉 〈태극도설〉 〈천자문〉 기(氣)철학자 화담 서경덕의 〈서화담문집〉, 미국 우주론학자 로렌스 크라우스의 〈무(無)로부터의 우주〉, 영국 비평가 토마스 칼라일의 〈의복철학〉, 쇼펜하우어의 〈본질불멸론〉, 헨리 데이빗 소로의 〈월든〉, 미국 사상가 에머슨의 〈자연론〉 등의 서문과 해당 책 내용의 핵심을 거론하며, 주역과 자연에 대해 설명했다.

제 4장 '죽음' 과 제5장 '문학' 에서는 로마제국 황제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 러시아 대문호 톨스토이의 일기, 마크 트웨인의 죽음을 앞두고 쓴 글,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포르투갈의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주제 사라마구의 소설 〈죽음의 중지〉 서문, 중국의 석학 임어당의 〈생활의 발견〉, 영국의 낭만파 시인 윌리엄 워즈워스의 〈무지개〉, 알베르 카뮈의 〈이방인〉, 사무엘 베케트의 희곡 〈고도를 기다리며〉 등에서 죽음을 맞이한 자세와 마음에 대해 또 문학을 소중하게 여기는 여러 사상가와 문인의 생각을 담았다.

제 6장 '어떻게 살 것인가' 와 제7장 '생명/ 실존/ 자유' , 제8장 '학문과 수기(修己)' 에서는 덴마크 출신의 신학자 키르케고르, 장 자크 루소, 니체, 괴테, 솔제니친, 오스카 와일드, 노자와 장자, 당나라 시인 유자후, 고려 문장가 이규보, 조선 초기 학자 강희맹, 퇴계 이황, 토정 이지함, 다산 정약용, 법정 스님, 미국의 환경운동가 존 프란시스, 나치헌터로 알려진 시몬 비젠탈 등의 철학자와 작가들이 책에 남긴 글이나 편지, 또는 연설문에서 올바르게 살아가야 할 배움의 자세와 인생을 슬기롭게 살아가는 지혜, 학문을 익히고 올바른 쓰임새의 방법 등을 이야기했다.

제 9장 '마음' 과 제 10장 '불교' 편에서는 〈반야심경〉 〈화엄경〉 〈아함경〉 〈열반경〉 〈벽암록〉 〈육조단경〉 〈직지〉 등의 경전과 원효 스님의 오도송, 인도의 학승 나가르주나의 〈중론〉, 동산 양개 스님, 프랑스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 미국 작가 오헨리와 모파상, 일본의 작가 나츠메 소세키의 〈유리문 안에서〉 등에서 가져온 불교와 마음에 대한 글을 읽을 수 있다.

특히 제 10장 불교편 가운데 '모든 것은 변한다' 에서 저자는 붓다의 말씀을 인용하며 설명해 나갔다. "내가 죽은 뒤에는 법과 계율이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자 이제 마지막이니 무엇이든 물어라. 모든 것은 변한다. 그러니 열심히 정진하거라."라고.

저자는 책 속에서 말한다. "이것만큼 확실한 진리가 또 있을까? 그분 나이에 이르니 어느새 몸으로 법계가 체득된다. 그러면서 죽되 죽지않는 불생불별, 번역 속의 불역, 그 본질을 또한 생각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지혜경 철학박사(연세대 철학연구소 연구원)는 추천사를 통해 "철학 수필이라 불릴 만한 글이 드문 한국 문학계에서 철학 수필의 지평을 제시한 작가가 바로 수필가 맹난자라고 정의하길 주저하지 않는다"고 극찬했다. 마지막으로 저자인 맹 작가도 "영묘한 생명력이 회복되고, 청정한 우리 본래 마음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면 더없이 고맙겠다"며 "여든의 노필(老筆)로 귀한 말씀을 후배들에게 전할 수 있어 행복하다"고 출간 소감을 피력했다. 〈하늘의 피리 소리〉의 책장을 다덮고 나면 맹난자 작가 특유의 철학 수필 진수를 흠뻑 맛볼 수 있을 것 같다.

책 속의 밑줄 긋기

제자인 자유가 말했다. "땅의 피리 소리는 여러 구멍서 나오는 소리이고, 사람의 피리는 대나무로 만든 악기서 나는 소리군요. 그럼 부디 하늘의 피리 소리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스승인 자기가 답했다. "(수없는 것에 바람이 불어 나무 구멍 모양에 따라 서로 다른 소리를 내고 있어도) 각기 스스로가 소리 내는 거야. 모두 제 스스로 초래한 소리라면 그렇게 사나운 소리를 나도록 한 것은 무엇인가?"

〈장자(莊子) 제물론(齊物論)〉의 한 대목이다. 장자는 그들 대화를 통해 무엇을 말하고자 했을까? 스승 남곽자기의 말을 더 들어보자. "말하자면 대지가 내쉬는 숨결을 바람이라고 하지. 그게 일지 않으면 그뿐이지만 일단 일었다 하면 온갖 구멍이 다 요란하게 울린다. 너는 저 윙윙 울리는 멀리서 불어오는 바람소리를 들어봤겠지.

산림(山林) 높은 봉우리의 백 아름이나 되는 큰 나무 구멍은 코 같고 입 같고 귀 같고 옥로 같고 술잔 같고 절구 같고 깊은 웅덩이 같고 얕은 웅덩이 같고 갖가지 모양을 하고 있지. 콸콸 거칠게 물 흐르는 소리, 씽씽 화살 나는 소리, 나직이 나무라는 듯한 소리, 흐흑 들이키는 소리, (…) 새가 울듯 가냘픈 소리 등 갖가지로 울리지. 앞의 바람이 휘휘 울리면 뒤의 바람이 윙윙 따른다. 산들바람에는 가볍게 응하고, 거센 바람에는 크게 응해. 태풍이 멎으면 모든 구멍이 고요해진다. 너는 나무가 바람 때문에 크게 흔들리기도 하고 가볍게 흔들리는 걸 보았겠지."

남곽자기는 대지가 토하는 숨결을 '바람' 이라 하며 바람이 불지 않으면 그만인데 일단 바람이 일면 구멍이란 구멍은 모두 바람에 불려 요란한 소리를 내지른다고 한다. 그렇다면 바람이 없다면 어떨까?

적적요요(寂寂廖廖), 자연은 본디 희언자연(希言自然)이다,

그것은 다름아닌 현상으로서의 자기 부정이 아닌가. 현상이 무너질 때 본질이 드러나는 법. 이는 본질(道)에의 계합이다.

상담환영

■ 빙의에 시달리시는 분 !!
■ 신(神)내림 받기전에 신기운에 시달리시는분!
■ 신을 받았어도 제대로 못하고 신기운 때문에 힘드신분!
■ 신기운을 떼어내고자 하신분!

[상담대상]
◉ 빙의와 신기운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 한 개인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 빙의 기운에는 사람, 동물, 식물, 기타 여러가지 기운이 몸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 특히 초등, 중등, 고등, 대학생이 빙의와 신기운에 노출되면 인생 전체가 망가집니다! 반드시 제거및 벗어나게 해주어야 인생이 달라집니다!
◉ 연예인, 연극인, 영화배우, 탈렌트, 가수등 마음이 여리고 순수하고 감정, 감성 중심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빙의와 신기운에 잘 접속되고 벗어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면 인생 전체가 불행해집니다! (예 : 만성우울증, 가위눌림, 불면증, 공황장애, 공포증, 불안장애등에는 반드시 빙의가 접속되어 있습니다!)
◉ 다 그런건 아니지만 직업상 시신을 자주 접하는 사건 현장 담당 경찰업무 하신분, 119대원, 소방업무 종사자, 장례식장 종사자 등 심약하신 분들은 빙의에 접속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예 : 가위눌림, 악몽자주꿈, 불면증, 망자가 꿈에 자주 나타나는 경우, 외상후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경우, 몸이 무겁고, 만성 피로감등)
◉ 이상행동, 어느 시점 이후 부터 과거와 매우 다른 행동, 습관이 있는 경우, 병원에 오래 다녀도 낫지 않은 경우등
◉ 희귀병(병원에서 낫지 않은), 조현병, 분노조절장애는 100% 빙의로 인한 것입니다!
(감정기복 매우 심함, 묻지마 폭행, 과격한 행동 등)
◉ 빙의전문의로서 정직과 신뢰와 꾸준한 사후 관리로 빙의 환자와 함께 문제 해결로 집중해 갑니다!
◉ 원격치유가능 (환자직접 오지않아도 됨) ⇨ 최고 전문가만 가능
◉ 문제해결, 증상해결 중심으로 상담
◉ 전생빙의치유, 마스터과정수료 ◉ 20여년 빙의, 신기운 천도 경력 노하우 갖춤
◉ 증세가 오래 되었거나 심한 경우는 일정기간 간격을 두고 천도정성과 사후 관리를 꾸준히 받으면서 가야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원격사후관리 가능)

※ 전화 · 대면상담은 무료입니다!

전국 최고. 빙의치유. 천도. 신기운 제거. 차단. 벗어나기 전문상담원 제주불교금강선원

제주불교금강선원 ☎ 064-746-0789 오시는길 : 제주도 제주시 삼무로 47 3층



그림으로 그린 금강경, '다이아몬드경'

김보민 초대 개인전 '금강' 展
5월 31일~6월 13일 수덕사 선미술관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금강경〉의 '금강' 이미지화한 그림
다이아몬드 세공하듯 조각으로 완성
"〈금강경〉은 너무나 아름다운 이름"
시대가 요구한 동시대적 융합이미지

〈금강경〉의 '금강(金剛)'을 그림으로 그린다면 어떤 모습일까. 화가의 마음으로 바라본 〈금강경〉의 '금강'은 어떤 모습일까. 한 화가의 화두가 된 '금강'을 그림으로 만난다.

김보민 작가가 5월 31일부터 6월 13일까지 수덕사 선미술관에서 초대 개인전 '금강'을 개최한다. 김 작가는 첫 개인전인 이번 전시에서 '금강'을 바라본 현대미술 작품 30여 점을 선보인다.

김 작가는 '금강'의 또 다른 말인 '다이아몬드'를 화가의 시선으로 해석해 추상적 이미지를 만들고, 그 이미지에서 다이아몬드를 세공하듯이 빛나는 부분들을 잘라냈다. 그리고 그 조각들을 또 다른 배경에 붙여 하나의 그림, '금강'을 완성했다.

이미지로 치환된 또 다른 〈금강경〉의 형상으로, 화가의 마음으로만 읽을 수 있는 〈금강경〉이라고 할 수 있겠다. 배경의 재료는 캔버스에서 종이까지 다양하다. 김보민이 세공한 김보민표 '금강'은 또 다른 모습과 빛깔로 단단하게 반짝인다. 다이아몬드는 곧 반짝이는 눈이 되고, 그 눈으로 보고 그려지는 것은 영혼이 담긴 심미적 표현이다.

김 작가는 어리석은 자신을 바로 세우기 위해 정진했다. 그리고 그 정진의 과정을 그림으로 그렸다. 그 그림은 다이아몬드(금강)를 그린 것이다. 작품의 소재인 다이아몬드는 바로 〈금강경〉의 '금강'이다. 김 작가는 마음이 어지러울 때, 〈반야심경〉 독송으로 마음 한구석의 시름을 덜곤 했다. 그렇게 불교와 가까워졌다. 단단해진 불심은 어느새 삶의 큰길이 되었다. 어려움이 올 때면 제일 먼저 집어 들게 되는 것이 부처님 말씀이었다. 김 작가는 크고 작은 번뇌가 찾아올 때면 〈금강경〉을 집어 들었다. 경전의 제목이 '다이아몬드경'이라니, 화가 김보민에게 〈금강경〉은 너무나 예쁜(아름다운) 것이었다. 그렇게 가까워진 〈금강경〉이었다. 〈금강경〉의 금강(金剛)은 금강석, 곧 다이아몬드를 말한다.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반짝이기에 부처님의 가르침, 반야의 지혜에 비유한 것이다.

김 작가는 풍부한 감성, 생생한 상상력과 선명한 창작능력으로 자신만이 갖는 고유성을 쌓으며 자신만의 내면을 갖춘 주체적인 작품세계를 구축하고 있다. 끊임없이 새로운 모습으로 자신의 심성을 마주한 작품세계를 열어가고 있는 것이다. 또한 끊임없이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자신의 조각들을 마주하는 여행을 하며 인생의 다양한 층위를 들여다보는 작품을 선보인다. 특히 사회적으로 기능을 갖춘 데에서 비롯한 시대정신에 의거해 작품으로 승화시킨다. 그러므로 김 작가는 사실적인 묘사력으로 사진을 연상시키기도 하고 추상의 나래를 맘껏 펼치는, 이 시대가 요구한 동시대적 융합의 이미지와 감성을 담아내고 있다. 김 작가의 작품세계에서의 아름다움은 아직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은 것과 세상에 한 번도 나오지 않은 것을 빚어내고 창작하는 것에 몰입하고 있다는 화단의 평가를 받고 있다.


영원히 유랑하는 금강 58x46cm, 2022, 혼합

화가의 가장 중요한 일은 아름다움을 찾는 일일 것이다. 김 작가는 "나에게 그림은 끊임없이 내 마음 안에 반짝이는 보석을 빚어내는 일이다. 알아차리고 캐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선근, 아직은 실 가닥처럼 얇지만 옳은 방향으로 이 선근을 뿌리내리는 일이 인생의 과제가 되었다. 무수한 별들의 수만큼이나 우리들은 천만가지 고민과 실수, 반성과 기도, 행복과 불행을 반복하며 나를 찾아가는데, 예술은 나에게 조금 더 섬세하고 아름답게 찾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말한다.

김 작가는 다음 전시는 또 다른 다이아몬드의 모양인 정통동양화를 선보일 계획이다. 김 작가에 의하면 동양화는 재료의 문제가 아닌 마음자세에 따라 특별하게 분류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 마음자세를 더 효과적이고 예리하게 수양하기 위해 부드러운 선지와 유연한 붓을 택한다면 더욱 적절할 것이라는 것이다. 재료나 화법, 이론적 지식과는 무관하게 동양화의 목적은 몸과 마음을 위하는 일이라는 점에서 본 작업은 '현대미술'의 정의를 포함하고 동양예술의 깊은 정신성으로 결국 맞닿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김보민작가는 홍익대학교 동양화과 조기졸업하고 중국미술학원 화조, 산수화과 석박사를 전액국비장학생으로 마쳤으며, 제41회 대한민국미술대전 문인화부문 서울시의회의장상을 수상, 제40회 대한민국미술대전 구상부문 평론가상. 제40회 대한민국미술대전 문인화부문 특선, 제12회 후소회 청년작가전 특선, 2016 항주 서령인사기획 중국미원우수졸업작품 선정, 2016 후라이왕 중국 전국미술대학 졸업전시 우수작 선정, 2013, 2015 사해예동 중국미술학원 유학생 비엔날레 우수상, 2011 홍익대학교 동양화과 졸업전시 최우수작품상, 2005 5.18기념 휘호대회 사군자부문 청소년부 대상을 수상했다.

양주 회암사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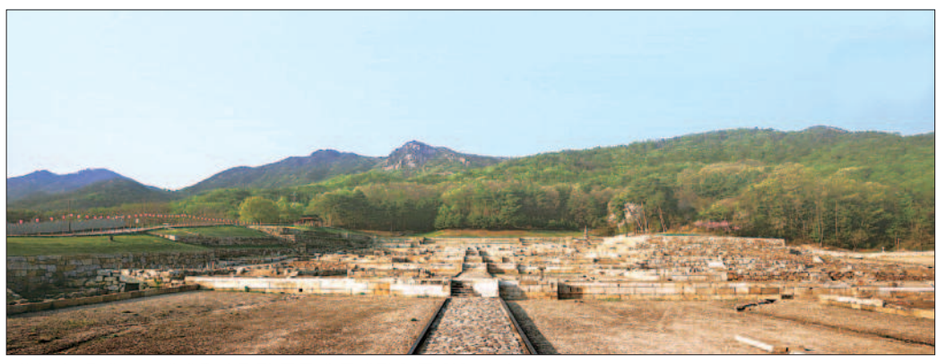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 특별전
'양주 회암사지, 세계유산을 꿈꾸다'
5월 20일 ~ 9월 12일, 기획전시실

선정까지 과정 · 회암사지 가치 소개
〈청규〉 등 회암사지 관련 유물 전시

양주 회암사지의 세계유산 잠정목록 선정을 기념하는 특별전이 열린다.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은 5월 20일부터 9월 12일까지 기획전시실에서 '양주 회암사지, 세계유산을 꿈꾸다'를 개최한다.

양주 회암사지는 지난 1월 세계유산 등재에 도전할 수 있는 잠정목록에 선정됐다. 이를 기념하여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의미와 양주 회암사지의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 그리고 약 7년에 달하는 도전 과정을 안내하는 전시를 마련했다. 전시에서는 먼저 회암사지의 하루를 타임랩스(Time lapse)로 연출한 영상을 소개한 후, 유네스코 기구의 활동 및 세계유산의 분포와 등재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시청각 자료들과 역사기록, 동아시아 선종의 규범서인 〈청규〉 및 도면자료 등을 통해 회암사지가 지닌 가치를 소개한다. 또한 지금까지 7년에 걸친 연구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던 연구진의 인터뷰를 통해 세계유산을 준비하는 회암사지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조망하며, 전시 마지막 공간에서는 회암사지의 세계유산 등재를 관람객과 함께 희망하는 메시지 쓰기 미디어체험도 진행한다.

전시는 총 3부로 구성했다. 1부에서는 유네스코 유산의 의미에 대해 소개한다. 유네스코는 인류가 보존해야 할 각종 문화, 자연, 기록을 유산으로 지정하여 보호한다. 양주 회암사지는 고고유적 단독 유산으로서 대한민국에서 최초의 세계유산(문화유산 분야) 잠정목록으로 선정됐고, 특히 폐사지로는 처음으로 세계유산에 도전할 수 있는 자격을 지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지난 1월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양주 회암사지.

2부에서는 양주 회암사지의 세계유산적 가치에 대해 소개한다. 양주 회암사지는 14세기 동아시아 불교 선종의 수행 전통 및 공간 구성 체계를 증명하는 대표적인 고고유적이다. 동시에 건물터와 고승 관련 기념물의 잔존은 고려의 선종이 조선으로 이어진 약 200여 년간 불교 선종 문화의 전승과 발전을 확연히 보여주고 있다.

3부에서는 세계를 향한 첫걸음이라는 주제로 양주 회암사지가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되기까지의 과정을 소개한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목표로 하는 양주 회암사지는 지난 7년의 노력으로 잠정목록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앞으로 남은 본 등재까지 양주시와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은 문화재위원회의 권고사항 등을 이행하며 회암사지의 보존 및 가치 활용과 세계유산을 향한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15건의 세계유산 등재를 통해 국내문화와 자연의 유산적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 그리고 이러한 세계유산 본 등재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자국의 유산을 잠정목록으로 선정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우리나라의 세계유산 잠정목록은 지난해까지 총 12건이 올라 있었으며, 그 중 양주 회암사지가 잠정목록에 선정됐다.

12세기경에 창건되었을 것으로 보는 양주 회암사는 고려말 전국 사찰의 총본산이었으며, 조선 초에 불교계를 선교 양종으로 통폐합할 당시에도 선종 본찰로서 크게 번영했다. 또한 당시 불교계를 사상적으로 이끌었던 지공, 나옹, 무학 등의 고승들이 주석했던 최고의 가람이다. 현재의 회암사지를 볼 때 대규모의 사찰이었음을 알 수 있는데, 회암사가 대규모 가람으로 중창된 것은 고려말에 인도 고승인 지공의 예견과 그 제자인 나옹이 그 뜻에 따라 대대적인 불사를 통해 이뤄졌다. 1964년에 사적 128호로 지정된 회암사지는 1998년부터 2012년까지 10차에 걸쳐 사찰의 중심권역을 발굴, 조사했다. 발굴조사 결과 회암사는 일반적인 사찰과는 달리 궁궐과 유사한 건축양식을 갖추고 있음이 확인됐고, 왕실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되었던 도자기류와 기와류 등 귀중한 유물이 다량으로 출토되어 고려 말, 조선 초 최대 사찰로서의 위상과 면모를 확인할 수 있었다.

박재완 기자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제 1편 치병편
제 2편 치료술
제 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 4편 수행편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民衆醫術 민중의술

• 당뇨, 고혈압에 간단하게 벗어 나는 법
• 척추,디스크,협착증 및각종질병에서 벗어나 죽을때까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자세히 수록해 놓았다.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 민중의술의 특징 |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 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KBS 과학카페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페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체내 노페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페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김영숙 010-7384-1708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

약사불 앞 발굴하니 고려 사찰터 나왔다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용화사서 현장 설명회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장흥 용화사 경내에서 고려 시대로 추정되는 건물지 기초부가 확인됐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소장 이은석)는 5월 31일 장흥 용화사에서 발굴조사 현장설명을 열고 그간의 발굴 성과에 대해 발표했다.

장흥 용화사는 통일신라 말기에 조성된 석조약사여래좌상(전남유형문화재)이 봉안돼 있고, 18세기부터 불자사터(拂子寺址)라고 알려져 있던 곳이다. 사찰과 약 500m 거리의 석교마을에는 사찰에서 사용된 대형의 석조유구가 남아 있다. 2021년 석조약사여래좌상이 자리하고 있는 건물 앞마당에서 통일신라 소형금동불상과 납, 수정으로 만든 구슬이 발견돼 올해 4월부터 사찰 경내에 대한 발굴조사가 진행됐다.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에 따르면 용화사 경내 발굴조사 결과, 석조약사여래좌상 앞쪽 서남편에서 고려 시대에 조성된 건물터 기초부가 일부 확인됐다.

이 건물터는 주춧돌 하부의 적심석(돌을 쌓을 때 안쪽에 쌓는 돌)이 4개소, 전면 석축기단 9m, 후면 석축기단이 약 3m가 남아 있었고, 기단 앞쪽으로는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모이는 작은 연못 시설을 만들어 놓았다. 건물지 내부에서는 통일신라 말~고려 시대 기와 조각과 11세기 고급 청자 편이 다수 출토되었다.

이밖에도 아궁이시설과 돌로 만든 경계(石烈) 등이 부분적으로 남아 있어

석조약사여래좌상 앞 서남편서
10~12세기 건물지 다량 발견돼
건물지서 고려청자, 기와편 출토
장흥지역 불교 연구 필요성 높여

최소 3차례 이상 건물의 개축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시기적으로는 10~12세기 중심의 유물로 건물지의 연대를 유추할 수 있다. 현재 3×1칸 건물은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으나 약사여래좌상을 모신 건물은 확인되지 않는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현재의 용화사 주변에서 상감청자와 조선 시대 분청사기, 백자 편 등도 수습돼 꽤 오랜 기간 법통이 유지됐던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風寺(○풍사)'라고 추정되는 기와 조각이 출토돼 사찰 명칭에 대한 추가 연구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장흥 용화사 약사전 앞 발굴 모습. 이곳에서 10~12세기 사찰 건물지가 발굴됐다.
사진제공=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현재 석조약사여래좌상은 오른팔과 허리 아래 부분이 결실됐지만, 부드럽고 통통한 얼굴에 미소를 살짝 머금고 있다. 약함(藥函)이 있었다고 전하는 왼손은 주름과 손톱까지 묘사하는 등 사실적으로 조각됐다. 이 불상은 남아 있는 높이가 2.5m에 이르는 대형으로, 광배를 포함하면 5m 정도의 상당한 규모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주변에서 찾은 광배 파편 2개의 원 위치도 이번에 새롭게 확인됐다.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는 "1954년에 넘어져 방치된 불상을 바로 세우기 위해 불신의 아래쪽과 뒤쪽을 철근과 시멘트를 발라 지지해 놓았는데 현재 철근이 노출돼 있어 불상의 보호와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면서 "장흥 용화사 석조약사여래좌상과 비슷한 규모는 경주 남산 상선암 마애여래좌상(5.2m, 9세기)이 있다. 이 시기 경주지역 불상 등 관련 자료를 토대로 연구를 진행하면 원형 복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주 황룡사지 남쪽광장 일대 정비된다

중문 기단복구 등 정비 사업, 문화재수리기술위 조건부 승인

경주 황룡사지 건물지 기단복구와 남쪽광장(가칭) 일원이 정비된다.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5월 24일 열린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심의에서 황룡사지 입구의 남문과 중문 등 6개 건물지의 기단 복구와 황룡사지 남쪽광장(가칭) 정비계획 등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황룡사지와 주변정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6월 2일 밝혔다.

황룡사지 중문은 탱주와 면석이 있는 가구식 기단이며, 회랑지 2동은 외벌대 장대석 기단으로 이뤄졌다. 기단석 유구가 확인되지 않은 남문지와 동·서편 건물지 3동은 기단 위치를 목재로 표시하는 방식으로 정비한다.

국립문화재연구원은 그간의 발굴조사 결과와 발굴과정에서 수습된 석재 유물을 바탕으로 기단 복구에 대한 고증·연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를 이번 설계에 모두 반영했다.

문화재청은 "기단복구 사업은 황룡사지 내에서 시행되는 첫 번째 문화재 복구사업으로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 탑지, 금당, 강당 등의 중심건물 기단복구까지 추진되면 황룡사의 규모와 배치, 각 건물의 형태와 특징 등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황룡사지 남쪽광장은 너비 50m, 길이 500m의 대규모 공간이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한 발굴조사 결과와 관련 학술대회 내용을 바탕으로 유적지 상부를 복토(약1.0m)하고 그 상부를 당시 모습에 최대한 가깝게 재현·정비한 후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광장 상부면은 마사토로 다지고, 광장 남쪽 끝 지하 담장유구 상부에 담장을 일정구간 재현하고 담장 주변에는 관람객 편의를 위한 탐방로와 수목을 심는다는 게 문화재청의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남쪽 광장이 정비되면 황룡사 진입을 현재의 측면진입 방식에서 광장-남문-중문-탑-금당-강당 순의 정면진입 방식으로 회복할 수 있다"면서 "'동궁과 월지'(옛 안압지)와 광장으로 직접 연결돼 황룡사지 동쪽과 남쪽 도시유적과의 관계성도 한층 더 부각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업은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맡아 올해 내로 착수하게 되며, 문화재청 수리기술위원회의 승인조건에 따라 기술지도단을 구성해 사업진행 단계별로 지도·자문을 거쳐 진행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경주 황룡사지 남쪽광장 복원 조감도.

국립중앙博 불교문화재, 전문가에게 듣다

국박, 6월 큐레이터 대화 개최
반가사유 등 불교문화재 주제
6월 매주 수요일 저녁中 진행

초여름에 접어든 6월 매주 수요일 저녁, 국립중앙박물관 큐레이터에게 문화재에 대한 설명을 직접 듣는 체험프로그램이 열린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민병찬)은 "매주 수요일 야간개장 시간(18:00~21:00)에 큐레이터의 상세한 전시품 해설과 관람객의 질의응답으로 구성된 참여형 프로그램 '큐레이터와의 대화'를 운영한다"고 5월 31일 밝혔다.

특히, 6월의 '큐레이터와의 대화'는 고대 불교미술을 주제로 한 전시 설명이 많아 불교미술에 관심이 많은 불자와 시민이라면 관심을 가져볼만 하다.



국보 반가사유상 2점의 전용 전시관인 국립중앙박물관 사유의 방 전경.

주요한 불교 관련 프로그램으로는 6월 8일 오후 6시 세계문화관 일본실에서 열리는 '일본 불교조각의 세계', 오후 7시 서화관 불교회화실의 '과학으로 살펴보는 조선 불교회화와 채색안료', 6월 15일 오후 7시 조각공예관 불교조각실의 '고대 불교 조각의 아름다움' 등이다.

6월 29일 오후 6시 서화관 불교회화실에서 '빛의 향연-예산 수덕사 괘불', 오후 7시 사유의 방에서 '국보 반가사유상'을 주제로 큐레이터와의 대화가 이어진다.

또한 문화재 보존과 관리에 관심이 많은 관람객이라면 '과학으로 살펴보는 조선 불교회화의 채색 안료', '도자기의 보존과 제작기법', '서화 소장품의 안전한 보관 관리'에 대한 설명도 흥미롭게 다가갈 것으로 보인다.

관람객과 박물관의 소통 공간인 '큐레이터와의 대화'는 별도의 예약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단체(20명 이상)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전에 예약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큐레이터와의 대화' 관련 리플릿은 국립중앙박물관 누리집 '관람정보-전시해설-큐레이터와의 대화' 자료실에서 e-book, PDF 형태로 제공한다.

신성민 기자

'불교평론' 여름호 발간… 대만불교 특집

불교계 대표 학술계간지인 〈불교평론〉이 여름호(통권 90호)를 발간했다.

이번 여름호는 특집으로 '대만불교의 어제, 오늘, 내일'을 다뤘다. 특집 논문으로는 △대만불교의 역사와 현황(김응철) △대만의 종교지형과 불교의 위치(서대원) △대만불교의 중심 4대종문의 성립과 전개(이병욱) △코로나 상황과 대만불교 의례(김성순) △대만불교의 계율주의와 재식(齋食)(김현진) △대만불교의 국제활동 성과(양정연)가 수록됐다.

〈불교평론〉 관계자는 "전 국민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불교신도를 기반으로 포교와 봉사, 불학 교육, 지계 등에



서 현대화를 이룩한 대만불교의 역사와 현황, 그리고 미래를 각 분야의 학자들이 심도 있게 조명했다"면서 "대만불교의 성공사례에서 한국불교가 나아갈 길은 무엇인지 모색해보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논단에서는 오강남 종교학자가 '표층종교에서 심층종교를 향하여'를 기고했다. 세계의 불교학자는 인도 현대불교의 부흥을 이끈 암베드까르를 조명했다.

신성민 기자

제12회
반야학술상 공모

(사)반야불교문화연구원에서는 제12회 반야학술상을 공모합니다.
반야학술상은 시상년도를 기준으로 최근 5년간 불교학 및 불교문화 관련
연구업적이 뛰어나고 교육 및 학술활동이 활발한 중견급 이상의 연구자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이 지난 연구자,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경력을 가진 자) 1명을
선정하여 시상합니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1,0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됩니다.
불교학 및 불교문화 연구자들의 많은 추천 바랍니다.

■ 추천(타천) 마감 : 2022년 7월 15일
■ 추천(타천) 방법은 (사)반야불교문화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banyaresearch.org)를 참조바람.
■ 시상일 및 장소 : 추후 공지
■ 문의처 : (사)반야불교문화연구원 구자상 (010-4731-3471)
우명주 (010-9027-5193)

(사)반야불교문화연구원장

www.holytec.com
오리지널 유골 보석
영옥(靈玉)

· 납골의 변질과 혐오감이 없습니다.
· 깨끗한 모습으로 영구적입니다.

20년을 유골성형 한 길로 고인 고유의 색상을 발현시켰습니다.
▣ 1기 생성 소요시간 60~90분 소요 ▣

SINCE 2002
오리지널 유골보석 전문업체
주식회사 본 향
NAVER 영옥 검색
상담 : 010-5235-2677

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68

▶ 69회 예고
아쇼까왕은 왕궁 베란다에서 니그로다를 보고 불러들인다. 니그로다는 아쇼까왕에게 설법한다. 아쇼까왕은 니그로다가 수시마 형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놀란다. 아쇼까왕은 니그로다를 곁에 두고 싶어 하지만 그는 거절한다.



왕비 띠쉬아락시따, 악행 저지르다

수시마 부왕비가 몰래 숨어 사는 짠달라 천민촌에 경사가 났다. 도비왈라 집에 안개가 짙은 이른 아침부터 달리뜨들이 모여들었다. 수시마 부왕비 아들 니그로다가 마하바루나에게 머리를 깎고 출가하는 날이었다. 짠달라 천민촌이 생긴 이래 처음 있는 경사였다.

일곱 살이 된 니그로다는 어머니 수시마 부왕비와 도비왈라 집 뒤쪽 띳집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니그로다가 어머니 수시마 부왕비를 위로했다.

"어머니, 출가하더라도 목갈라나 존자님처럼 어머니를 잊지 않을 거예요."

"니그로다, 고맙기는 하지만 출가하면 이곳은 잊어버리고 수행을 잘하여 마하바루나 사문님 같은 아라한이 되어야 해."

수시마 부왕비는 진정으로 니그로다가 아라한이 되기를 바랐다. 니그로다가 네 살이 될 때까지는 왕세자로서 마우리아국 왕이 될지도 모른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으나 아쇼까가 대관식을 치르자, 포기해 버렸던 것이다. 또 하나의 이유가 더 있다면 니그로다가 마하바루나를 유난히 따랐다는 점이었다. 니그로다는 마하바루나가 띳집으로 와서 설법하는 날은 마을의 또래들을 만나지 않고 꼼짝을 안 했다. 마하바루나의 설법을 듣고서는 다 외워버리기까지 했다.

마침내 마하바루나는 수시마 부왕비에게 니그로다의 진로를 조언하기에 이르렀다.

"부왕비님, 니그로다를 출가시키십시오. 니그로다는 전생에 수행자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사문님, 어째서 그렇습니까?"

"불경을 한 번 보면 다 외워버립니다. 이는 전생에 닦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살벌한 왕궁에 들어가자니 위험하고, 차라리 출가하는 것이 니그로다에게는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니그로다는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아쇼까왕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잔인한 아쇼까왕을 어떻게 움직인다는 말입니까?"

"니그로다에게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니그로다로 인해 아쇼까왕이 자비로워진다면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왕궁에는 지옥 궁전이 만들어져 모든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저는 아쇼까왕에게 품은 원한을 버리겠습니다."

"훌륭하십니다. 붓다께서는 원한은 원한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원한을 버릴 때만 원한이 사라집니다. 따라서 니그로다가 출가하려면 지금이 적기입니다."

마하바루나는 니그로다가 일곱 살이 되자 출가의 적기로 보았다. 붓다의 가르침에 대한 이해가 더 없이 깊어졌고, 특히 아쇼까왕이 날마다 6만 명의 수행자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등 어느 때보다도 수행자에 대해서만큼은 호의를 베풀고 있기 때문이었다.

도비왈라 집 마당에 달리뜨들이 북적거렸다. 마당 한켠에 마하바루나 법석용으로 조그만 단이 마련되었다. 이윽고 마하바루나가 단 위에 올라섰다. 니그로다는 단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마하바루나가 달리뜨들이 보는 앞에서 니그로다의 머리를 다 깎고 난 뒤 함께 단 위로 올라갔다. 이윽고 마하바루나가 말했다.

"여러분, 자비로운 아침입니다. 마우리아왕국에 자비가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에게 축복처럼 자비의 햇살이 비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마을에 살던 니그로다가 출가를 하기 때문입니다. 니그로다의 출가는 단순한 출가가 아닙니다. 니그로다는 이미 수행을 마친 사문이기 때문입니다. 니그로다는 여러분의 고통을 없애주고 삶을 편안하게 해줄 것입니다."



달리뜨들이 니그로다를 주시했다. 그러고 보니 니그로다는 어제의 니그로다가 아니었다. 얼굴에는 맑은 기운이 감돌았고, 가사를 걸친 몸에서는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위의가 풍겨 나왔다. 수시마 부왕비조차도 니그로다 사문을 바로 응시하지 못했다.

니그로다의 삭발의식과 마하바루나의 법문이 끝나고 나서도 도비왈라 집 마당에는 달리뜨들이 축제를 벌이듯 짜이를 몇 잔씩 마시면서 떠들고 춤을 추었다.

한편, 띠쉬아락시따 왕비 별궁에서는 사악한 음모가 꾸며지고 있었다. 띠쉬아락시따는 꾸날라를 탁실라로 보냈지만 만족하지 못했다. 꾸날라가 자신을 모욕했다고 여겼기 때문이었다. 띠쉬아락시따는 꾸날라의 아름다운 눈이 화근이었다고 생각했다. 꾸날라의 눈이 아니었더라면 자신이 반했을 리 없었을 것이라고 믿었다. 띠쉬아락시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꾸날라의 눈을 없애버린다면 그를 잊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띠쉬아락시따는 궁리 끝에 우두머리 시녀를 불렀다.

"탁실라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들었느냐?"

"꾸날라 부왕님께서 잘 통치하시어 대왕님께서 칭찬하셨다고 합니다."

"나도 그 얘기는 직접 들었어. 대왕님께서는 격려차원에서 특사를 보내신다고 했어."

"왕비님께서 보내신 것인데 다들 모르고 있더군요."

"누구한테도 그 얘기를 하면 안 돼."

"왕비님, 걱정 마셔요. 제가 빠딸리뿌뜨라 왕궁에서 사는 것도 다 왕비님 덕분인데요. 저는 은혜를 꼭 갚을 거예요."

"그래?"

띠쉬아락시따가 은혜를 갚는다는 말에 입을 다물었다. 당장 하고 싶은 말이 있었지만 참았다. 그러자 우두머리 시녀는 띠쉬아락시따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했다. 그녀는 띠쉬아락시따에게 은혜를 갚을 만한 이유는 많았다. 그녀는 띠쉬아락시따 본가에서 허드렛일을 하는 수십 명의 시녀들 가운데 유일하게 뽑혀서 왕비별궁까지 따라왔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왕비별궁의 우두머리 시녀가 됐기 때문에 크게 성공한 셈이었고, 일반 시녀들에게 부러움을 크게 샀다.

"대왕님 침전으로 보내주고 싶은데 어때? 대왕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 언제든 가능해."

"왕비님, 그곳으로 가면 일반 궁녀가 되는 것이죠?"

"거기서도 우두머리 궁녀가 돼야지. 그렇지 않다면 내가 어떻게 보내겠어."

"어머나! 왕비님, 고맙습니다."

띠쉬아락시따는 아쇼까왕에게 미리 우두머리 시녀를 부탁해 놓은 바 있었다. 아쇼까왕이 침전의 우두머리 궁녀가 게으르다고 불평했을 때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부탁했던 것이다.

"침전 침실은 정말로 아주 중요한 곳이야. 침실에 있는 상자에 국새가 들어 있거든. 그러니 침실 청소를 담당하는 우두머리 궁녀란 왕궁의 모든 궁녀들 가운데 으뜸인 것이야."

"정말로 제가 우두머리 궁녀가 되는 거예요?"

"너를 그곳으로 보내는 이유가 있어."

우두머리 시녀는 꿈을 꾸듯 황홀해했다.

"왕비님, 이유를 알고 싶어요."

"그렇지. 너는 내 분신이나 다름없거든."

"왕비님, 은혜를 갚는다면 무슨 일이라도 하겠어요."

"쉬운 일은 아니야."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저는 해내겠어요. 쉬운 일이라면 누군들 못하겠어요."

"내가 너를 처음부터 잘 보았어. 본가에서 너를 본 순간 마음에 들었거든."

"저도 왕비님을 따라가고 싶어 기도했어요. 날마다 강가강으로 나가 시바신께 기도를 했더니 들어주셨어요."

띠쉬아락시따가 우두머리 시녀에게 조언을 구했다.

"꾸날라가 나를 무시한 일이 있어."

"저도 알고 있죠. 그때 제가 왕비님을 위로해 드렸으니까요."

"나를 무시했으니 무슨 방법으로 혼을 내줄까?"

"가장 좋은 방법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수모를 당할 때 잊어버리려고 노력해요. 그러다 보면 정말로 잊어버리게 되죠."

"난 절대로 잊을 수가 없어. 내 진심과 호의를 걷어찼으니까. 그런 모욕은 난생 처음이었어."

그제야 우두머리 시녀가 눈치를 채고 말했다.

"왕비님, 혹시 꾸날라 부왕님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대왕님이 계신데 어찌 꾸날라를 사랑하겠어. 가끔 꾸날라를 불러 함께 있고 싶었을 뿐이지."

"꾸날라 부왕님의 어디가 마음에 드시는지요?"

"꾸날라의 큰 눈, 그 눈을 보고 나는 반했어. 아니 그 눈이 나를 유혹했어."

"그래도 왕비님은 꾸날라 부왕님의 눈을 결코 차지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모욕당했다고 분해하시는 거예요."

"무슨 방법이 없을까?"

"꾸날라 부왕님의 눈을 없애버리면 되죠. 꾸날라 부왕님에게 눈이 없다면 다시는 생각나지 않을 것이고 모욕 받았다는 생각도 차츰 사라질 거예요."

"오, 너는 어찌 그렇게 내 마음을 꿰뚫어보는지 놀랍기만 하구나."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화근은 빨리 없애버리는 것이 좋다고 하셨어요. 그것이 행복해지는 길이래요. 화근은 시간이 지날수록 불행을 키운다고도 했어요."

"훌륭한 아버지군. 절대로 그 말을 잊지 않겠어."

"왕비님, 그러셔야 해요. 제가 도와드릴 게요."

"침실 우두머리 궁녀로 가서 내가 거짓왕명을 만들어 줄 테니 국새만 찍어 주면 돼."

"대왕님 몰래 찍는 거군요. 저는 왕비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 그렇게 하겠어요."

"고마워."

띠쉬아락시따는 우두머리 시녀를 즉시 아쇼까왕 침전 침실 우두머리 궁녀로 보냈다. 이미 만들어놓은 아쇼까왕의 명령서를 그녀에게 쥐어주는 것도 잊지 않았다. 아쇼까왕의 명령서에는 다음과 쓰여 있었다.

〈꾸날라는 띠쉬아락시따 왕비를 유혹한 죄를 저질렀다. 나는 너를 한때 사랑했으므로 죽이지는 아니하되 두 눈동자를 뽑아 다시는 왕비를 유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너를 즉시 탁실라에서 추방하노라.〉

아쇼까왕이 드나드는 침전 침실의 우두머리 궁녀가 된 그녀는 사흘 만에 띠쉬아락시따가 조작한 왕의 명령서에 국새를 찍어 가져왔다. 그녀의 민첩한 행동에 띠쉬아락시따는 감탄했다.

"화근은 빨리 없애버리는 것이 좋다는 네 말이 위로가 되었어."

"잘 하셨어요. 왕비님."

띠쉬아락시따는 그녀의 두 손을 잡고 고마움을 표했다. 그녀가 나가자 이번에는 탁실라 특사 일원으로 가는 친위대 조장을 불렀다. 친위대 조장은 왕궁 중에서 특히 띠쉬아락시따 왕비 별궁의 경비를 감독하는 책임자였다. 아쇼까의 명에 의한 일이지만 친위대 조장이 왕비 별궁의 경비를 감독하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었다. 띠쉬아락시따는 친위대 조장을 자주 불러 선물을 주었다. 그런 이유로 친위대 조장은 어느 새 그녀의 사람이 되어 있었다.

"조장님, 이 밀봉한 봉투에는 왕명이 들어 있습니다. 대왕님께서 무슨 까닭인지 특사 일행이 탁실라를 떠날 때 꾸날라 부왕에게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부왕을 격려하는 취지로 가는 특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왕비님."

띠쉬아락시따가 친위대 조장에게 금으로 만든 코끼리상을 또 선물했다. 그러자 친위대 조장은 황공해 하면서도 스스럼없이 선물을 받았다. 친위대 조장의 표정을 살펴본 띠쉬아락시따는 밀봉한 봉투가 꾸날라 부왕에게 잘 전달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안도했다.〈계속〉



김진무의 중국불교의 고승들 ⑪ 천태(天台) 지자대사(智者大師) 지의(智顗)



▶ 한줄 요약
천태 지자대사가 제창한 천태학은 인도나 서역의 불교와는 본질적인 차별을 이루는 중국불교의 본격적인 출발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천태학으로 중국불교 본격 출발 이뤄

중국역사에서 가장 복잡했던 남북조의 분열된 시기는 수(隋)의 문제(文帝)에 의하여 다시 통일되면서 종식되었다. 이는 서진(西晋)의 멸망(317) 이후 약 260년이 지난 이후이지만, 수대(隋代, 581~619)는 양제(煬帝)의 대운하 건설과 고구려 침공 등의 원인으로 40년이 안 되어 멸망하였다. 그러나 짧은 수대에 중국불교는 사상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 이는 수조(隋朝)를 세운 고조(高祖) 문제(文帝, 楊堅)의 불교부흥정책 덕분이고, 또한 남조와 북조에서 서로 다른 발전을 이룬 불교학을 통합시켰던 것에 기인한다고 하겠다.

수를 세운 문제는 정치적인 상황으로 동주(同州: 현재 陝西省 大禮 일대) 반야니사(般若尼寺)에서 태어나 13세까지 비구니 지선(智仙)이 양육하였다. 이러한 인연으로 문제는 자신이 황제의 지위에 오른 것은 부처님의 은혜라고 자주 말하였다고 한다. 그에 따라 문제는 즉위 초년인 개황(開皇) 원년(581)에 북주 무제(武帝)의 폐불(573~577)로 초토화된 북방의 불교회복을 위해 "출가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수를 헤아려 비용을 제공하고, 경전과 불상 등을 마련하라."라는 조서를 반포하였고, 또한 개황 10년(590)에는 "모든 사도(私度) 승니(僧尼)들의 출가를 허용"한다는 조서를 내려 〈속고승전(續高僧傳)〉에 따르면 사도의 승니 50여 만 명이 동시에 수계하였다고 한다. 또한 도선의 〈석가방지(釋迦方志)〉 권 하에 따르면, 문제의 재위 20년 동안 이 승려들을 수용하기 위하여 3792개소의 사찰을 건립하였다고 한다.

문제는 승려의 출가와 사찰의 건립에만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불교학의 진흥에도 커다란 관심을 갖고 개황 12년(592) 제도(帝都)에 각 분야의 학승을 초빙하여 열반중(涅槃衆)·지론중(地論衆)·대론중(大論衆)·강율중(講律衆)·선문중(禪門衆)의 '오중(五衆)'을 세웠고, 다시 전국의 교화조직으로 '이십오중(二十五衆)'을 건립하여 고승 25인을 모셔 '중주(衆主)'로 삼았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은 북조의 전통인 '승관제'의 일환이었고, 이를 통하여 불교를 관리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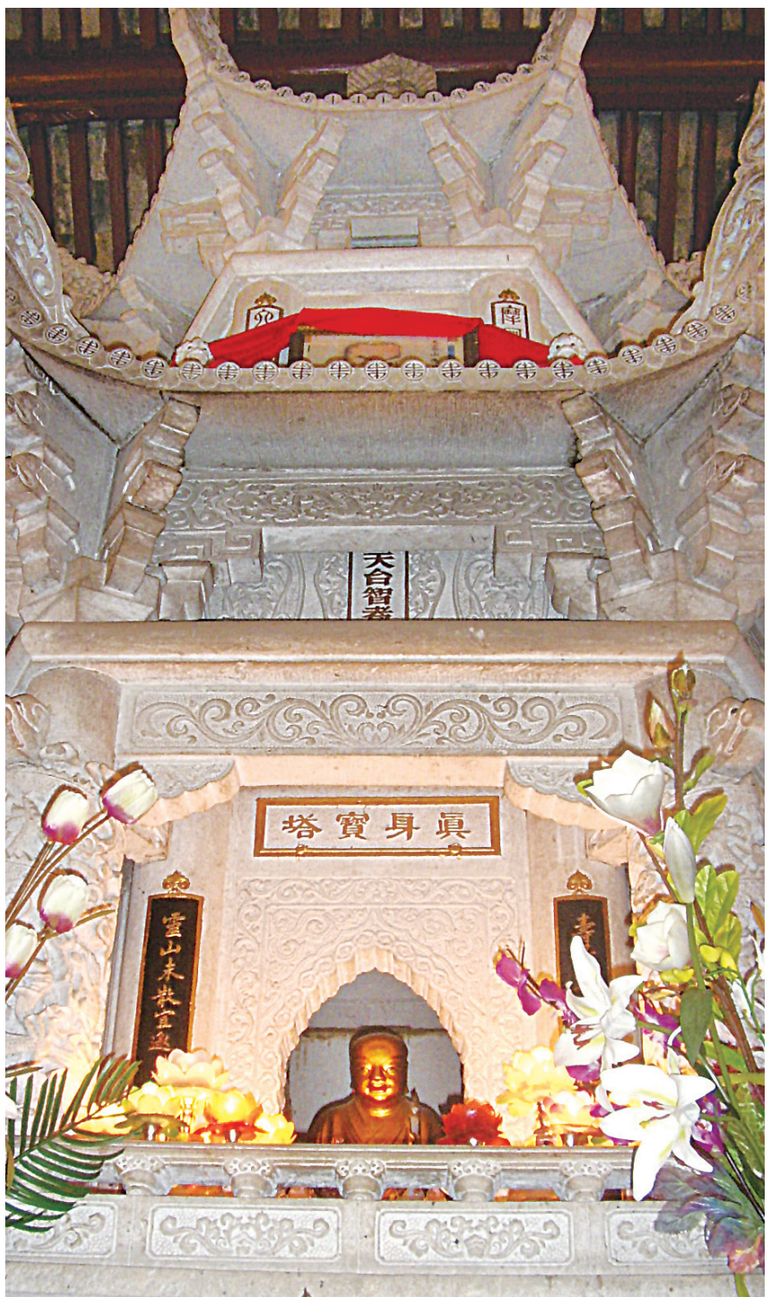
한편 사상사의 입장에서 보자면, 문제가 중국을 다시 통일한 이후 남·북으로 크게 양분된 불교의 교학을 통합할 필요성이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시대상황에서 가장 두드러진 역할을 수행한 인물이 바로 천태 지의(智顗, 智者大師, 538~597)라고 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지의대사는 천태종(天台宗)을 개종(開宗)한 인물로 잘 알려져 있으며, 그의 사상으로부터 중국불교학은 커다란 전환을 이룬다고 평가된다. 따라서 간략하게 지의대사의 생애와 사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천태종의 종조로서 지의대사는 다양한 문헌에 그의 전기가 실려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자료는 〈수천태지자대사별전(隋天台智者大師別傳)〉과 〈속고승전〉, 〈경덕전등록〉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지의는 남조의 양(梁) 대동(大同) 4년(538) 7월에 형주(荊州) 화용(華容: 현 湖南 華容縣)에서 출생하였으며, 자(字)는 덕안(德安), 속성은 진(陳)씨이다. 부친은 양의 관료였지만, 당시 반란이 일어나 집안이 몰락하고 양친을 잃게 되자 18세에 상주(湘州: 현 湖南 長沙市)의 과원사(果願寺)에서 출가하였으며, 혜광(慧曠)율사로부터 계율을 수

18세 과원사서 출가 20세구족계
천태종 開宗해 중국불교 대전환

학하여 20세에 구족계를 받았다. 그 후 천가(天嘉) 원년(560) 혜사(慧思)대사가 북방으로부터 남하하여 광주(光州: 현 河南 光山縣) 대소산(大蘇山)에 머문다는 소문을 듣고 그의 문하를 찾아 '사안락행(四安樂行)'을 수학하였다. 광대(光大) 원년(567) 혜사대사가 남악(南嶽)으로 가면서 그에게 금릉(金陵: 현 南京)에서 법을 펼치라고 부촉하자 금릉의 와관사(瓦官寺)에 머물면서 선법(禪法)을 펼치기 시작하였다. 2년 후에 〈법화경제(法華經題)〉를 강의하기 시작하여 새로운 종의(宗義)를 수립하였다고 한다.

와관사에서 8년간 머무는 시기에 또한 〈대지도론(大智度論)〉과 〈차제선문(次第禪門)〉 등도 강설하였으며, 〈육묘법문(六妙法門)〉 등을 찬술하였다고 한다. 이후 태건(太建) 7년(575) 금릉을 떠나 천태산(天台山)에 처음으로 입산하여 북쪽 산봉우리에 가람을 창건하였고, 또한 북쪽 화정봉(華頂峯)에서 홀로 두타행을 닦으며 주야로 선관(禪觀)을 하였다. 지덕(至德) 3년(585) 3월에 다시 금릉으로 와서 영요사(榮曜寺)에 주석하였다. 이 당시에 진(陳)의 황태자의 청으로 태극전에서 〈대지도론〉, 〈인왕반야경〉 등을 강의했으며, 혜항(慧恒), 혜광(慧曠), 혜변(慧辨) 등의 명승들이 참여하여 토론을 하였다고 한다. 후에 광택사(光宅寺)로 옮겨 〈법화경〉을 강의하자 제자 관정(灌頂)이 기록하여 〈법화문구(法華文句)〉를 완성했다. 이후에 지자대사가 강의하면 관정이 필록하여 책으로 편찬하게 된다. 그러나 진이 망하자 여산(廬山)으로 은거하였다.



중국 절강성 천태현 천태산에 조성되어 있는 천태 지의 진신보탑. 사진=정운 스님 제공

개황 9년(589) 진이 멸망하자 고조 문제는 다음해 정월 지의에게 불법을 부흥시키고, 불법에 의하여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조서를 보냈으며, 개황 10년(591) 진왕(陳王)으로 부임한 양광(楊廣: 煬帝)이 양주총관(揚州總管)이 되어 여산으로 사신을 보내 간청하자 지의는 양주로 와서 보살계를 수여하였고, 양광이 문제에게 청하여 '지자대사(智者大師)'라는 호를 받게 되었다. 다음해 지자대사는 고향 형주로 돌아갔으며, 당양(當陽) 옥천산(玉泉山)에 옥천사(玉泉寺)를 창립하였고, 이후 2년 동안 〈법화경현의(法華經玄義)〉와 〈마하지관(摩訶止觀)〉을 강의하였다.

개황 15년(595) 봄에 양광의 청에 의하여 다시 양주로 와서 〈정명경소(淨名經疏)〉를 찬술하였는데, 병을 얻어 천태산으로 돌아갔다. 이후 2년 후(597)에 병환 중에도 제자들에게 〈관심론(觀心論)〉을 구수(口授)하였으며, 10월 양광의 청으로 양주로 향하다가 석성사(石城寺)에서 세수 60세, 법랍 40세로 입적하였다.

지자대사의 저술은 상당히 방대하다. 그 가운데 지자대사가 직접 찬술한 것은 일부분이며, 대다수는 제자인 관정이 집록한 것이다. 그 가운데 〈법화경현의〉, 〈법화경문구〉, 〈마하지관〉을 '천태삼대부(天台三大部)'라고 칭하며, 또한 〈관음현의(觀音玄義)〉, 〈관자의소(觀者義疏)〉, 〈금광명경현의(金光明經玄義)〉, 〈금광명경문구(金光明經文句)〉, 〈관무량수불경소(觀無量壽佛經疏)〉를 '천태오소부(天台五小部)'라고 칭한다.

이상의 지자대사 생애로부터 보자면, 지자는 본래 남조 출신이지만, 수조(隋朝)가 건립되고 문제와 양제가 적극적으로 법을 청하자 그에 응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앞에서 언급한 새로운 왕조를 위해서 남북으로 양분된 교학을 통합

'五時八教'로 통합 교상판석 통섭
석성사에서 60세법랍 40세 입적

하려고 하는 정치적 의도도 삼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남북조시기에 불교학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불성(佛性)에 대한 논의였고, 이 논의는 점차 교상판석(教相判釋)으로 전개되었다. 당시 불교인들은 서역으로부터 전래하는 불법에 서로 다른 사상들이 혼재하고 있음을 발견해 내고, 그를 부처님의 일대기에 배대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이를 '교상판석'이라고 칭한다. 이 교상판석은 '불성'에 대한 자파의 주장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논증방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하겠다.

이러한 교상판석은 수대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남방에서는 세 부류, 북방에서는 일곱 부류, 뜻으로 세분하면 수많은 종류가 있었다[南三北七, 義成百家]"라고 칭하듯이 상당히 복잡한 상황이었고, 통치자, 특히 불교를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리려는 수대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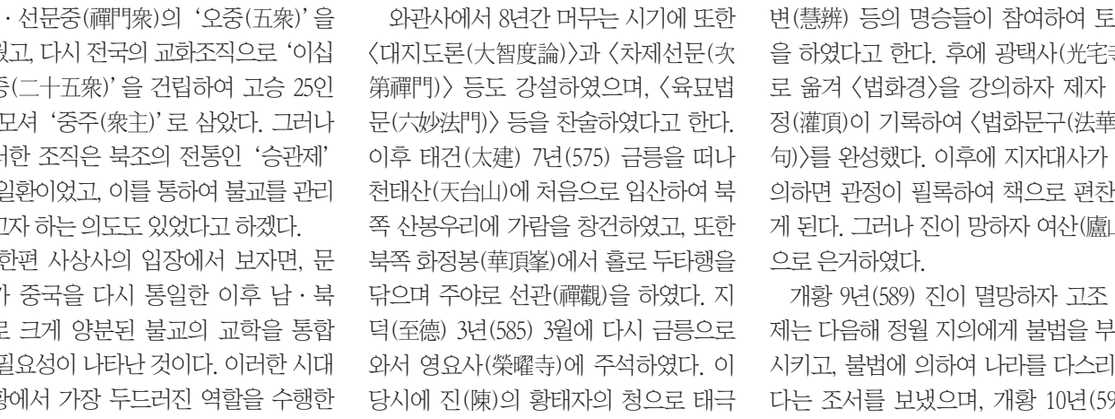
천태 지자는 바로 당시에 유행하였던 제반 불교학설을 법화(法華)와 반야(般若)사상을 중심으로 '오시팔교(五時八教)'로 통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경덕전등록〉의 전기에서는 '오시'를 "첫째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위없는 도를 이루시자 바로 상근기인 보살들을 위하여 설한 화엄시(華嚴時), 둘째 소승의 근기를 위하여 설한 아함시(阿含時), 셋째 치우침을 꾸짖고 작은 것을 무찔러 큰 것을 찬탄하고 원만함을 칭찬하기 위해 설한 방등시(方等時), 넷째 상(相)을 소탕하고 집(執)을 쓸어버리기 위해 설한 반야시(般若時), 다섯째 방편을 회통하여 실제로 돌아감으로써 삼승의 사람들과 모든 중생까지 성불한다는 수기를 주기 위해 설한 법화열반시(法華涅槃時)이다."라고 한다. 또한 '팔교'에 대해서는 "화의사교(化儀四教)의 돈(頓)·점(漸)·비밀(秘密)·부정(不定), 화법사교(化法四教)의 장(藏)[생멸(生滅), 사제(四諦)]·통(通)[무생(無生)]·별(別)[무량(無量)]·원(圓)[무작사제(無作四諦)는 오직 법화(法花)의 원리(圓理)이고, 내지 생산업(生產業)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색(色), 하나의 향(香)이 실상(實相) 아님이 없음]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오시'와 '팔교'는 결국 당시에 논해지고 있었던 모든 교상판석을 통섭하고자 하는 의도를 지닌다고 하겠다. 그러나 지자대사는 이를 단순하게 통섭한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자신의 논리로 새로운 사상을 창출하고 있는 점이 두드러진다. 사실상 천태학은 상당히 방대하고 폭이 넓기 때문에 한정된 지면에 그를 설명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지만, 가장 독특하고 핵심적인 개념은 바로 '성구선악(性具善惡)'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정인(正因)·연인(緣因)·요인(了因)의 삼인이 모두 호구(互具)한다는 논리로부터 도출된 것이고, 또한 공(空)·가(假)·중(中)의 삼제가 상즉호구(相卽互具)하고 원융무애하다는 '삼제원융(三諦圓融)' 설로부터 도출된 것이다. 또한 수행론에 있어서는 '지관병중(止觀幷重)', '정혜쌍수(定慧雙修)'를 강조하고 있다. 그에 따라 천태종의 불성론을 흔히 '성구론(性具論)'이라고 칭하게 된다.

천태 지자대사가 제창한 천태학은 인도나 서역의 불교와는 본질적인 차별을 이루는 중국불교의 본격적인 출발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사실상 천태학이 출현함으로 화엄학도 나타났고, 나아가 천태학을 바탕으로 중국선종이 배태되었다고까지 평가할 수 있다. 이로부터 천태 지자대사의 중대한 사상적 의의를 논할 수 있다고 하겠다.

〈前 동국대 불교문화원 부교수〉

국내최초·벤처기업
한국스틸 고건축
공장에서 직접 제작 | 지상에서 단청 작업 | 현장 조립 설치



원적산 법명사 스틸 일주문 완공 사진과 작업 현장

스틸 고건축의 장점

1) 용접을 하지 않는다. (용접의 단점 : 장마철에 습기로 인한 녹 발생)
2) 스틸은 결로가 생기지 않는다. (방음과 결로에 대한 단열)
3) 스틸은 지진과 화재에 강하다.
4) 11포, 9포까지 표현 할 수 있다. (국내 최초 벤처기업 인증)
5) 타 자재에 비해 공사비가 40% 저렴, 공기단축 (23년 축적된 기술력)
6) 좀 더 세련되고 화려하며 웅장하게 표현할 수 있다.

◉ 국내 최초 대철장 ◉ ◉ 산신각 2m×4m, 3m×4m 주문제작 ◉
목재대비 유사도 90%이상 * 바늘 끝같은 정교함 * 상담문의 010-5023-5050

종도모집

입종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사본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내 외 (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 입종 종도에게는 승려증 (법사증·포교사), 사찰 등록증, 주지 임명장과 간부스님에 한하여 추대장 및 위촉장 수여합니다.
※ 본 종단은 개인 사암의 재산권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사)대한불교한마음조계종 총무원장 법천당 청운

■ 총 본 산 : 경남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1122번길 74-35
전화 055)867-0024.0025 / 팩스 055)867-8009
■ 서울 총무원 : 전화 02)739-4780

김선희 교수의 변상도 바로 읽기 ⑪ 유마힐변상도

▶ 한줄 요약
유마 거사는 불교에서 가장 유명한 재가불자다. 그는 부유한 상인이자 중생구제의 보살로 그려진다. 그런 그의 도상은 둔황 막고굴 등에 벽화로 조성됐다. 유마 거사는 도상에서 학창의를 입고 주미를 들고 있는데 이는 유교 문인의 모습으로, 불교가 지역 문화와 습합되는 것을 보여준다.



佛·儒·道 결합 유마힐상…중국문화 전형

유마힐(維摩詰) 거사는 불교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재가불자이다. 그 이름은 고대 인도어를 음역한 것으로 '정결(淨潔)'의 의미가 내포돼 있다. 즉, 그는 몸과 마음이 연꽃처럼 깨끗한 재가불자로 이는 불교도들이 추구하는 영역 중 하나이다. 경전에 의거하면 유마힐 거사는 원래 묘희불국(妙喜佛國) 세계의 보살로 중생구제를 위해 거사이자 부유한 상인의 두 가지 신분으로 인간 세상에 왔다. 거사는 지식이 풍부했을 뿐만 아니라 신통이 무변해 마치 마술사처럼 다양한 방편과 환상을 통해 중생들에게 삶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시키고 가르쳤다. 그래서 사회 각계로부터 사랑을 받았는데, 당대(唐代) 시불(詩佛)로 일컬어지는 왕유(王維)는 그를 흠모하여 자기 이름을 '유(維)'라 하고 자호(字號)를 '마힐(摩詰)'이라 하였다. 뿐만 아니라 많은 황제들도 스스로를 '유마거사'라고 자칭하였다. 이런 관계로 오늘날까지도 유마 거사의 조상(造像)이나 벽화가 많이 남아 있는데, 둔황 막고굴에 67개 굴과 용문석굴에 129개 굴이 있다.

제220굴 출입구인 동벽 입구 양쪽의 〈유마힐변상도〉에는 조우관을 쓴 한국인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고구려의 복식과 탄두가 나타나고 있고, 고구려의 7세기 당시 국력과 세력으로 보아 신라 승들이 인도까지 구법여행을 했을 것이라는 중국과 한국의 학자들의 주장이 있었다. 다만, 둔황 막고굴 〈유마힐변상도〉의 67개 사례에서 실제 오지 않은 남방계 여러 민족이 그려진 점 등은 좀 더 논의해 볼 문제이다. 그러나 돈황석굴에 그려진 고대 한국인의 모습은 회화나 인물화가 많지 않은 한국미술사에서 당시 실크로드와 우리나라와의 교류가 활발했음을 반증해주는 주요한 자료임에 틀림없다.

둔황 벽화 중에는 여러 화사(畫師)들이 그린 〈유마힐변상도〉가 많이 그려져 있는데, 그중에 성당시대 그려진 제103굴 주실 동벽 문 남측에 그려진 〈유마힐변상도〉가 가장 유명하다. 화면에서 유마힐 거사는 장막 안에 위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앉아 있는데, 머리에는 흰색 윤건(綸巾)을 쓰고, 몸에는 학창의(鶴氅衣)를 입었으며 오른손에는 주미(麈尾, 총채)를 들고, 왼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다. 그의 표정은 견고하고 자신감이 있어 보이며, 그의 넓은 이마, 깊은 눈, 약간 열린 입술, 흐르는 듯한 수염은 지혜로운 사람의 이미지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이 유마힐상은 명확히 중국 전통회화의 선묘(線描) 기법을 따르고 있다. 다만 학창의만 홍갈색으로 칠해져 있으며 나머지 옷은 묵선(墨線) 구륵(鉤勒, 윤곽선)으로 그려졌는데, 선이 유창하면서 유력(有力)하다. 특히 침상에 가볍게 떨어뜨려진 옷은 마치 산들 바람에 일렁이는 듯하다. 이러한 특징은 당시 화성(畫聖)으로 추앙받던 오도자(吳道子)의 양식과 아주 흡사함으로 일부 학자들은 이 유마힐상과 오도자와 어떤 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한다.(그림①)



그림①. 당(唐) 오도자가 그린 송자천왕도(送子天王圖), 현재 일본 오사카시립미술관에 소장돼 있다. 여기서 표현된 선묘 기법은 중국회화의 기본이 됐다.

'유마' 불교 재가자 중 가장 유명
둔황막고굴 등에 그의 도상 조성
성당代 그려진 변상도 벽화 '눈길'
학창의 · 주미 등 유교 문인 모습
'지역문화와 습합' 보여주는 사례

따라서 이 유마힐상은 중국 미술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다. 왜냐하면 오도자의 양식은 중국 화화 표현의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었는데, 바로 이 유마힐상에 그 특징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 특징을 살펴보면 바로 이러하다. 이전의 작품 예를 들자면 육조시대 고개지의 작품에서는 선묘의 변화가 없이 똑같은 굵기의 가는 선으로 사물의 외곽을 처리하였다. 이를 마치 누에가 실을 토해내는 듯하다고 '춘잠토사선(春蠶吐絲線)'이라고 한다. 그런데 오도자에 이르러 선묘의 굵기나 농담(濃淡), 장단(長短), 경중(輕重)의 변화를 통해 사물을 표현하였는데, 이처럼 필묵(筆墨) 기교(技巧)를 통하여 2차원의 평면 공간에서 3차원의 입체효과를 얻고자 한 것이다. 이와 같은 오도자 양식은 이후 동양회화 표현의 근간으로 형성돼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그림②. 둔황 막고굴 제103굴 동벽 남측에 그려진 〈유마힐변상도〉의 모습. 둔황의 유마힐 도상 중 가장 유명하다. 성당 시기에 조성됐다.

유마힐 거사가 쓰고 있는 윤건은 청색 띠로 만든 두건이며 학창의는 선학(仙鶴)처럼 길게 보이는 일종의 물새의 깃털로 만든 방한용 긴 외투다. 일반적으로 은사(隱士), 선인(仙人), 도사(道士) 등이 다른 사람들에게 탈속했음을 보여주기 위해 입는 옷이다. 주미는 부채 혹은 불자(拂子)인데, 일종의 도구로 장식적 역할을 하고 있다. 원래 먼지를 털어 내는데 사용하는 것이었으나 사람들은 여기에 정신적 층면의 의미를 부여하여 고귀한 신분과 지위를 상징하고 있다.

일설에 의하면 '주(麈)'는 큰 사슴의 한 종류로 항상 무리 앞에서 걸으며 꼬리를 움직여 무리의 향방을 지휘한다고 한다. '주미'의 상징적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으며 아마도 지도자의 다중통솔의 의미를 여기서 찾고 있다고 보여진다. 위진(魏晉) 육조(六朝)시기에는 '청담사상(淸淡思想)'이 크게 유행했는데, 소위 '청담'은 당시 사족(士族) 명사들이 세속을 멀리하고 노장, 주역 등에 대해 논하였다. 이것이 사회에서 고아(高雅)한 시대적 흐름으로 인식되면서 청담을 즐기는 명사들에게 그 자격처럼 '주미'를 들게 하였다.

오늘날 고승 대덕 스님들이 법상에서 드는 불자(拂子)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연유된 것이라 보여진다. 유마힐 거사는 고대의 문인사대부와 같은 지식인들이 숭배하는 지적 지도자였을 뿐만 아니라, 불교의 지혜를 대신하는 사람이기도 하다. 그는 집에서 병든 척하고 지혜 제일의 문수사리보살을 초청하여 성대한 토론을 벌였는데, 그 때 제왕과 외국의 왕은 물론 대신들도 모두 참여하였으나 결국 유마 거사가 대승을 거두었다. 유마 거사와 관련된 불교 경전의 주요 내용은 바로 이 성대한 토론에 관한 것이며, 이를 그림으로 그려낸 것을 〈유마힐변상도〉라고 한다.(그림②)

대천세계(大千世界)는 불교의 우주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일반적으로 수미산을 중심으로 광대하고 무한한 세계를 말한다. 돈황 벽화에서 일반적으로 〈유마힐변상도〉는 좌측 또는 우측 손으로 '수접대천(手接大千)' 즉, 대천도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는 〈유마힐경(維摩詰經)〉 '견아측불품(見阿閦佛品)'의 내용이다. 석가모니불이 사리불에게 유마힐은 원래 무동여래(無動如來) 치하의 묘희국 보살이라고 말한 것을 표현한 것이다. 대중이 토론을 듣고 묘희국 세계를 보고 싶어 하므로 유마힐은 신통력을 발휘하여 마치 마술사처럼 오른손을 들어 "묘희세계를 끌어내어 여기 있노라"라고 대중에게 보여줬다.

예를 들어 막고굴에 있는 당말 제9굴의 묘희세계 묘사를 보면 유마힐은 왼손에 주미를 잡고 오른손을 들어 올리고 손바닥에서 거대한 상운(祥雲)을 일으킨다. 구름 속에는 육비(六臂, 여섯 팔뚝) 아수라(阿修羅)가 그려져 있다. 맨 위쪽 왼손은 태양을 받치고 있는데, 태양 안에는 삼족오(三足烏)가 그려져 있으며 오른손은 달을 들고 있는데, 달에는 월계수를 그렸다. 중간의 두 손 중 왼손은 규구(規矩, 콤파스)를 잡고, 오른손은 묵두(墨斗, 먹통)를 들고 있다. 아래쪽 두 손 중 왼손은 금강저(金剛杵)를 잡고 오른손에는 법륜을 들었다. 아수라 머리 위는 수미산으로 산허리를 두 용녀가 감싸고 있는데, 호법 수호신이다. 산상에는 호화로운 보전(寶殿)이 그려져 있으며, 그 안에는 1불 2보살 및 여러 신장이 앉아 있는데, 이는 묘희세계를 묘사한 것이다. 화면의 오른쪽에는 하늘과 땅이 소통하기 위한 인간계와 하늘을 연결하는 거대한 사다리가 그려져 있으며, 사다리에는 하늘로 올라가고 있는 여섯 명의 인간계 사람들이 있는데, 천계 입구에서는 천신이 두 손을 모아 합장하고 인간계에서 묘희세계로 오는 이를 영접할 준비를 하고 있다.(그림③)

이는 경전 중의 "염부제인(閻浮提人), 역등기계(亦登其階), 상승인리(上乘忉利, 견피제천(見被諸天); 염부의 사람이 계단을 오르는데, 위에서 다다르면 여러 하늘을 보게된다"라는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낸 것이다.

유마힐 거사는 불교문화에서 초인적 지혜의 전형적인 대표 중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손에 '주미'를 들고 있음은 전형적인 유교 문인 신분을 상징하는 것으로 지역 문화 요소를 흡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살펴보자면 '학창의'는 일반적으로 은자, 선인, 도사 등이 세속을 초월하여 고상하고 초일(超逸)함을 내세우기 위해 입는 옷이다. 따라서 '유마힐상'은 유(儒), 불(佛), 도(道)의 정수를 결합한 중국 전통문화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유마힐상'은 대부분 '아픈 모습'으로 표현되지만 돈황 막고굴 제103굴의 유마힐의 형상은 정신이 명량하고 지혜가 충만한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대당 문화의 자신감과 활력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다.

〈동국대 연구교수(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

신성불상
부처님 조성 | 도금(진공)
개금 | 기계개금(순금증착)
천불전 | 삼천불전 | 만불전





평생 위패 한 두분도 조성가능합니다.

온 누리에 부처님의 자비가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랫동안 축적된 장인의 손을 거쳐 지금은 다양하게 조성되고 있습니다. 항상 최선의 노력으로 최고의 불사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 대표 한광식



순금증착기



동불 | 특수불 | 바베트

신성불상 ☎ 031-533-7724. 010-5223-5174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금현리 362-6

전국 사찰 성수통 특별설치

우주 진동파 에너지 목화석에 주입… 연구적 사용

우주의 에너지는 소리로부터 시작되어 진동과 울림에 따라 생성됩니다. 이미 세계의 과학자들이 양자물리학 이론을 밝힌 바 있고, 이는 전자제품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들어낸 성수의 이론도 양자물리학 에너지를 적용시켜 만든 물질입니다. 더불어 이와 같은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인간에게 더욱 접근하여 사용할 수 없을까 하는 연구 끝에 불가에서 그 해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하여 본 성수가 각 사찰에 좋은 에너지를 주는 데 도움이 될까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진동파 에너지(성수, 악세사리) 사용후 얼굴, 눈주변, 목주름 변화



한달 후 변화 | 1주 후 변화 | 2주 후 변화

▣ 사용방법
- 사찰 규모에 따라 진동파 에너지 자료석(성수) 용기의 크기는 다릅니다.
- 진동파 에너지로 우러난 성수를 마시거나 얼굴에 뿌리면 주름이 펴지거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또한 이 물을 마시면 속이 편하고 몸이 가벼워지며 정신이 맑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 성수를 얻기 위하여 많은 대중에게 관심을 받을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 주문신청 : 스님이 직접 체험 후 결정



진동파 에너지 자료석

● 연락처 : 010-3367-9684 ● 주소 :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영경로 595-131 태광사

Monthly Bultube

뉴미디어 시대, 수많은 불교단체와 스님들이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뛰어들고 있다. 하지만 유튜브 콘텐츠의 범람 속에 묻혀있는 콘텐츠들이 많다. 무엇을 보아야 할지 모르는 이들을 위한 유튜브 콘텐츠를 두 번째로 소개한다. 코로나 이후 다닐곳도 많지만 틈틈이 불교 콘텐츠를 보는 것은 어떨까?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애니메이션

BBS불교방송의 '정주행, 부처님의 일생'

youtu.be/vYhlcOPuS1A

SCAN ME

우리는 흔히 유튜브 영상이라고 하면 10분 내외 분량을 생각하기 마련이다. 2배속, 1.5배속 등 그 10분 마저도 길게 느껴지는 이들이 점점 늘고 있다. 이러한 세태를 뒤로, 흔치 않게 이른바 '어마무시한' 분량을 자랑하는 영상이 있다.

바로 BBS불교방송이 5월 8일 업로드한 '정주행, 부처님의 일생'이다.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빠알리 대장경 자타카 '부처님의 탄생'과 디가니까야 '완전한 열반의 큰 경'의 내용을 한 편의 영상으로 모아서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담았다.

태어나서 열반에 이르기까지의 부처님의 이야기를 한 편으로 모두 모은 것이다. 앞서 언급한 영상 분량은 무려 2시간 10분에 달한다. 애니메이션 영상과 함께 지만 라디오 방송 답게 성우를 맡은 정준영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감미롭다. 영화도 아닌 삽화 애니메이션을 2시간이 넘게 볼 사람이 많을까? 라디오처럼 틀어놓고 부처님 생애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에 딱이다. 라디오 방송은 골라 듣기 힘들지만 유튜브 등에 업로드 된 라디오 콘텐츠는 이렇게 영상을 곁들여 골라 들을 수 있다. 차에서 운전하거나 집에서 요리를 하는 등의 상황에서 영상을 켜놓고 다른 일도 함께하기에 적합하다.

그래서일까. 통념을 깨버린 분량에도 조회수는 생각보다 높다. 9만 5539회에 달하며 좋아요 수도 2400회에 달한다. 댓글에서도 약 100여 명의 불자들의 반응도 좋다.

한 번쯤은 '불멍' 하듯이 '라멍' 하기에 좋은 영상, 아니 스토리다.

애니메이션

노가리사랑방의 '주먹을 펴지 않는 울보 공주'

youtu.be/2wcCAlEnpeQ

SCAN ME

누구나 가장 편하게 접할 수 있으면서도 콘텐츠에 대한 집중을 시킬 수 있는 방식에 애니메이션이 있지 않을까?

유튜브 채널 '노가리 사랑방'은 역사와 전설, 민담 등 옛날 이야기를 나누는 사랑방이라는 콘셉트로 콘텐츠를 구성하고 있다.



노가리사랑방의 '주먹을 펴지 않는 울보 공주'



BBS불교방송의 '정주행, 부처님의 일생'

구독자 8만 3000명인 이 채널에서는 5월 6일 화엄사 각황전 재건과 관련된 전설을 애니메이션으로 다뤘다.

신라 진흥왕 5년에 연기조사가 〈화엄경〉의 두 자를 따서 창건한 화엄사는 임진왜란 때 불타서 폐허가 되었는데 살아남은 승려들이 재건을 시작하여 조선 숙종 27년 마지막으로 가장 크고 웅장한 건물인 각황전이 완성되었다. 각황전의 원래 이름은 장육전이라고 했는데 이에 얽힌 설화가 전해진다.

애니메이션에서는 환생을 통해 청나라 황제인 강희제의 울보공주가 된 할머니와 공양주 스님의 인연을 다룬다.

전쟁으로 인해 폐허가 된 화엄사 재건을 위해 스님들이 노력하던 중 문수보살이 나타나 공양주 스님을 지목하고 그 스님의 간절한 바람을 들은 한 할머니가 강희제의 공주로 환생하여 화엄사 중창을 돕게 된다는 내용이다. 이런 내용을 들은 조선 숙종도 감복하여 화엄사 재건을 돕고 현재의 화엄사가 있게 됐다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애니메이션으로 구성된 만큼 남녀노소가 함께 보는 콘텐츠로 조회수 27만 5482회(6월 2일 현재)를 기록했다. 좋아요는 6400회를 받았다.

댓글에는 "할머니가 청나라 공주로 증표를 갖고 다시 환생한 장면에서 감동의 눈물이 난다. 각황전 꼭 한 번은 가보고 싶다", "각황전에 그런 사연이 있었네요.", "각황전이 화엄사에서 대웅전보다 큰 건물이어서 궁금했는데 이런 이야기가 숨어 있었군요. 밖에서 볼 때는 2층 건물처럼 보이지만 내부를 바라보면 1층으로 지어져 있지요." 등이 달렸다.



법담 스님의 만담

연 예

안호두 빠빠 채널의 '불교신자 연예인 모음'

youtu.be/aAJlUXgMFpI

SCAN ME

언제 어디서나 연예인 관련 소식은 소위 말하는 조회수를 담보하는 콘텐츠다. 가톨릭 성지순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유튜브 채널 '안호두 빠빠'에서는 5월 6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연예계, 정치계, 스포츠계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불자들이 누가 있는지 알아 보았다. 구독자 약 2만 명인 안호두 빠빠 채널명의 뜻은 강아지 호두의 천진난만하고 소소한 일상 모습을 영상으로 남기고자 붙여진 이름이다.

네이버와 나무위키 등을 활용하여 취합한 영상 내용에는 이경규 강호동 유재석 이수근 문세윤 현숙 이은하 김혜연 장윤정 조용필 박상민 김종국 성시경 마마무 솔라 강부자 김용림 한혜숙 김영란 이미숙 김혜정 금보라 박준금 송지효 전지현 한지민 수애 임혁 윤주상 이덕화 김광규 윤상현 지현우 안재홍 이병헌 장동건 김민종 윤용현 등을 소개했다.

이번 채널에서는 콘텐츠의 내용보다는 이 채널 주요 구독자인 가톨릭 신자들의 훈훈한 댓글이 눈길을 끈다. 조회수는 24만 9791회(6월 2일 현재)로 좋아요는 1100여 회를 기록했다. 싫어요는 전무했다.



안호두 빠빠 채널의 '불교신자 연예인 모음'



우학 스님의 '사후49일 영혼은 어떻게 헤매는가'

채널 댓글에는 "불교신자 연예인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응원할게요." "반갑습니다. 부처님 가피력으로 늘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다양한 종교가 있는 우리나라 이웃종교도 서로 존중하는 배려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미덕을 간직하길 청합니다." "안그래도 대부분 좋아하는 연예인들이었는데 불교신자라서 더 좋아졌다." "불자연예인들이 좋다. 아주 모범적이다." 등이 달렸다. 유튜브 콘텐츠가 또 다른 종교화합의 장이 될 수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생활법문

우학 스님의 '사후49일 영혼은 어떻게 헤매는가'

youtu.be/kVO1RtDS8AA

SCAN ME

우학 스님이 회주로 있는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에서 운영하는 유튜브불교대학은 국내 최대 규모의 생활법문과 경전 해석 콘텐츠가 담겨있다. 유튜브불교대학의 구독자는 11만 6000명 수준으로 많다고 볼 순 없지만 콘텐츠의 조회수는 보통 20~30만 회를 넘는다.

이 채널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것은 바로 우학 스님이 직접 나서서 즉문즉답하는 생활법문이다. 5월 11일 업로드된 '우학 스님의 생활법문 · 사후 49일, 영혼은 어떻게 헤메는가?'는 사후세계와 임사체험 등에 대한 스님의 지론을 일목요연하게 담았다. 스님은 49재 동안 영가가 어떻게 천도를 하는지에 대한 과정을 통해 사후세계를 설명한다.

유튜브불교대학 채널에는 댓글들도 많이 달리는 것이 특징이다. "終時最重(종시최중). 마지막이 제일 중요하다는 스님의 말을 염두에 두겠습니다. 부처님의 품안에서 자비와 지혜의 광명이 함께 하시길 발원합니다." "사후 49일 영혼은 어떻게 헤매는가? 큰스님 덕에 많은 것을 공부하게 되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일체중생의 평안을 발원하옵니다. 관세음보살." 등의 댓글이 달렸다.

스님일화

법담 스님의 만담

youtube.com/shorts/9hDVm64yOtE?feature=share

SCAN ME

최근 유튜브 쇼츠(Shorts)는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영상을 볼 수 있기에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불교계 영상콘텐츠에서도 쇼츠 영상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스님은 영상에서 "초등학교 5학년 때 실제 있었던 일이다. 백설기를 어머니께서 싸주시면서 배고플 때 먹으라고 하셨다. 몰래몰래 먹는 군것질이 너무 맛있었다. 국어시간에 베어먹는 순간 스님과 눈이 마주쳤다. 선생님이 '왜 군것질을 하니' 라고 묻자 '아니 선생님 이거 떡 아닙니다. 지우개입니다"라고 했다. 짧은 영상이지만 21만 명이 이 영상을 지켜봤다.

스님이 운영하는 보각사 불교TV는 구독자 3.6만명에 동영상 1800개로 이뤄져 있다. 스님은 이 밖에도 다양한 만담을 올려 인기를 끌고 있다.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법당 전선시공 전문
승하강 장치시공(신형)



도량(만월등)조립식 프레임(간편한 설치 및 높낮이 조절)





공단연등(고리용)



전선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LED태양광 솔라
(국산정품)



LED전구 국산인증
(서울반도체정품)



정직과 신뢰의 불자기업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986-0277~8, 02)2266-2634
032)582-6235~6, 02)2263-2638
문의핸드폰 010-3630-7092
본사 · 공장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사성제의 본뜻 여래장에 있어



지안 스님의 승만경 강화

㉑ 여래장

"거룩한 진리(聖諦)란 것은 매우 심오한 뜻을 말한 것이므로 미세하여 알기 어렵습니다.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는 경계가 아니어서 지혜로운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일반 세간에서는 잘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깊고도 깊은 여래장(如來藏)을 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래장은 바로 여래의 경계이므로 성문·연각들로서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여래장 그 자리에서 거룩한 진리의 뜻을 말한 것입니다. 여래장이 깊고 깊은 것이므로 거룩한 진리(聖諦)도 깊고 깊다고 하는 것이며, 미세하여 알기 어렵고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는 경계가 아니므로, 이것은 지혜로운 사람이라야 알 것이요, 일반 세간에서는 믿지 못하는 것이라 합니다."

〈승만경〉에서는 성제(聖諦)의 의미를 여래장에 두고 설한다. 여래장(如來藏)이란 여래의 씨앗이 갈무리되어 있다는 뜻에서 하는 말로 일체중생이 갖추어 있는 불성(佛性)을 두고 하는 말이다. 중생이 불성을 갖추어 있는 그 자체가 여래장이다. 어머니 몸에 태아가 들어 있는 것과 같다는 뜻이다. 〈승만경〉이 여래장 사상을 담고 있는 대표적인 경전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은 이 장과 다음의 법신장(法身章) 등에서 여래장을 계속해 설하면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승만경〉의 주제가 이승(一乘)과 여래장(如來藏)이라 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앞의 장(章)에서 설한 사성제가 알기 어려운 것은 깊고 깊은 여래장을 설한 것이기 때문이라 하면서 사성제의 본뜻이 여래장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논서에 따라 여래장을 법신(法身) 또는 진여(眞如)로 보기도 한다. 〈보성론(寶性論)〉에서는 여래장을 법신이나 진여와 동일한 구조로 보고 있다. 다만 〈화엄경소초〉에서는 여래장을 여래장성이라 말하여 생멸문 가운데의 진여라고 풀이하기도 했다. 화엄학을 완성했다고 알려진 현수 법장(賢首法藏, 643~712)은 교판론(敎判論)을 통해 여래장연기종을 주장하면서 새로운 이론체계를 내세웠다. 그는 여래장에 의지하여 중생의 생사와 열반이 일어난다는 여래장설과 아뢰야식설을 통합하여 여래장연기를 내세웠다. 그는 〈승만경〉, 〈능가경〉, 〈밀엄경〉과 〈대승기신론〉, 〈보성론〉 등의 경론을 의지하여 여래장연기설을 내세우는 연래장연기종이란 말을 썼다. 이 종은 여래장과 아뢰야식을 하나로 묶어 연기의 주체를 삼는 이론을 제시한 것이다. 종래의 중관사상이나 유식사상은 여래장과 아뢰야식을 별도로 세워 중관은 여래장 쪽에서 유식은 아뢰야식 쪽에서 이론을 전개해 오던 것과 달리한 것이다. 여래장이 조건에 따라 아뢰야식으로 전환하여 이(理)와 사(事)가 나눠진다고 했다. 그러나 이(理)와 사(事)가 융통하여 현상계와 여래장이 상호 연기적 관계를 맺어 서로 교철(交徹)하고 융통무애(融通無碍)하게 된다고 했다. 진여문은 이법계(理法界)가 되고 생멸문(生滅門)은 사법계(事法界)가 되며 서로 융통하는 것이 이사무애법계가 되는데 이것이 일진법계(一眞法界) 안에서 이루어지므로 일심이 곧 근본법계라는 것이다. 또 여래장연기는 종교(終敎)이며 진여문은 돈교(頓敎)이고, 일진법계가 원교(圓敎)라는 판석을 하기도 했다.

여래장에서 사성제를 설한다는 것은 여래장이 없으면 사성제를 설할 수 없다는 뜻이다. 달리 말하면 여래장은 불성(佛性)이다. 불성에서 사성제를 설하여 불성에 돌아가게 한다는 것이다. 중생이 불성이므로 법신과 같고 불성인 법신이 중생과 같으므로 불성에서 성제를 설하여 불성을 알게 하는 것이 부처님 설법의 본래 뜻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제의 본래 뜻이 번뇌를 끊는다는 이승의 경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부처의 경지에 나아가야 여래장 공덕을 성취한다는 것이다. 여래장 안에는 갠지스강의 모래알 수보다 더 많은 공덕이 있다고도 말한다. 또한 중생계 모두가 여래장이므로 이 여래장을 번뇌의 티끌에 파묻어 두지 말라는 것이다. 보물을 자기 집 마당 속에 파묻어 두고 그걸 잊어버려 가난한 신세를 면하지 못한다는 비유와 같다. 불교 전반이 다 그러하지만, 특히 〈승만경〉의 여래장 이야기는 인간을 자각시키는 큰 울림의 메시지가 있다.

〈반야불교연구원장〉

한때의 악행도 염불하면 구제된다



대풍 스님의 진심법문

㊹ 관세음보살 염불수행 올바른 수행법 2

불자 여러분! 염불(念佛)이란 의미 속에는 모든 우주 만법의 진리를 스스로 깨닫고서, 또한 깨달은 진리를 미혹한 중생들에게 전하여서 중생 모두가 생사윤회의 고통을 뛰어넘어 상락아정(常樂我淨)의 깨달음의 세계로 이끌어 주시는 불(佛)을 항상 잊지 않고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이 염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불은 '자각각타 각행원만하신 부처님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세음보살의 염불수행은 고통 속의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대자대비를 실천하시는 관세음보살님의 구세력과 본원력을 믿으며, 보살이 갖추신 지혜와 대자대비심에 바탕을 둔 보리심과 공덕을 기억하여 잊지 않기 위해 끝없이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칭념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불자 여러분! 염불의 의미와 염불 수행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증일아함경〉 제11집 '억념품' 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하남이여! 이곳에서 너는 여래를 억념(憶念)해야 한다. 이와 같이 저 세존은 응공, 정등각, 명행족, 선서, 세간해,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이시다. 마하남이여! 성인의 제자는 여래를 억념할 때 마음속으로 탐욕에 얽매이지 말라. 이때는 여래에 의해 마음이 바르게 된다. 마하남이여! 성인의 제자가 마음이 정직하면 의명(義名)을 얻고 법명(法明)을 얻으며, 마음에 이끌리는 곳에 즐거움(歡悅)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면서 기쁨(喜)이 생기며,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몸이 편안하고, 몸이 편안하면 낙(樂)을 받게 되며, 낙을 받으면 마음속에 정(定)을 얻는다. 마하남이여! 이 염불은 거닐 때도 닦아야 하고, 머무를 때도 닦아야 하며, 앉아 있을 때도 닦아야 하고, 누워있을 때도 닦아야 한다. 사업을 할 때도 닦아야 하며, 자식들에 의해 산란한 집에 있을 때도 닦아야 한다."

경에서는 여래를 억념(憶念)하는 것을 '염불' 이라 하고, 열 가지 여래의 이름인 십호를 억념하는 것을 염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부처님의 공덕을 염불함에 있어서는 행주좌와를 가리지 말고, 어느 곳 어느 때나 시기와 장소에 구애받지 말고 염불 수행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부처님 본원력에 의지한 타력수행

불자 여러분! 관세음보살의 염불수행은 관세음보살님의 본원력에 의지하는 타력적인 수행입니다. 염불수행은 관세음보살님의 본원력과 대자대비한 구세력에 입각한 수행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원(本願)이란 말은 부처님이 되기 전에 보살로서 인행(因行)을 닦을 당시, 성불을 이루게 되면 '모든 중생을 남김없이 건지고야 말겠다' 는 대비의 서원(誓願)입니다. 이러한 중생구제의 대비서원과 보리심이 관세음보살님께 있기 때문에 수행자는 관세음보살님을 믿고 의지하며 칭명하는 염불수행을 통해 성불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염불수행의 수승한 공덕에 대해서 〈나선비구경〉에서 나선비구와 왕의 문답으로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람이 작은 돌을 가지고 물에 던지면 돌은 뜨겠습니까, 가라앉겠습니까?"라는 질문과 "100척이나 되는 큰 돌을 배 위에 두면 그 배는 뜨겠습니까, 가라앉겠습니까?"라는 질문에 답하기를, "배에 있는 100척이나 되는 큰 돌이 배에 의해 가라앉지 않듯이 비록 본래 악한 행동만 하는 사람이라도 한때 염불하면 부처님의 본원력이 배가되어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천상에 태어난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부처님의 본원력과 중생구제의 원력을 굳게 믿기 때문에 염불하여 천상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밀양 사천왕사 주지〉



지흠스님의 禪으로 읽는 '맛지마니까야'

㉑ 뱀에 대한 비유의 경 ②

오온으로는 보고 들을 수 없다

"그는 보고 듣고 추측하고 분별하고 획득하고 추구하고 정신적으로 성찰한 것도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이야말로 내가 아니고, 이것이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여긴다. 또한 그는 이러한 견해의 관점, 즉 '이것이 세계이며, 이것이 자아이다. 나는 죽은 뒤에도 상주하고, 견고하고, 영주하고, 변하지 않은 것으로 영원히 이처럼 존재할 것이다.'라는 것도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이야말로 내가 아니고, 이것이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여긴다. 그는 이와 같이 여기므로 존재하지 않는 것에 관해 혼란되지 않는다."

사람들은 진리를 알고 있는 자는 '좋은 일을 할 것' 이고 '옳은 일을 할 것' 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관점에서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을 '진리를 실천하는 사람' , '착한 사람' 이라고 안다. 그러나 진리를 이렇게 구분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착한 일과 옳은 일은 인연에 따라 언제든 전도될 수 있지만, 진리는 그 자체로 불변이어서 착한 일도 아니고 옳은 일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진리는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사용되는 것도 아니다.

그럼, 무엇이 착한 일이고 무엇이 옳은 일인가? 보고, 듣고, 추측하고, 분별하고, 획득하고, 추구한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성찰한 것도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이야말로 내가 아니고, 이것이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여긴다. 이것만이 착한 일이고, 옳은 일이라는 마음을 가진다면 퇴전을 모르는 수행자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듣는 것이 어려움이지, '무엇을 모를까' 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보고 듣는다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보고 있고, 듣고 있으니 이 말을 어색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글자도 아니고, 안도 아니고, 밖도 아닌 곳을 향하는 수행자에게는 보고 듣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가 절실하게 공감될 것이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이 있을 수 있는가?' 라는 핵심에 주목해 보자. 물질, 느낌, 인식, 욕구, 의식은 고정성 없이 변화한다. 변화하는 것은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다. 그것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사물을 보고 들으려고 하니 '옳음' 을 가질 수 없는 것이다. 변화하는 것을 변화한다고 보지 못하고 변하지 않는다고 볼 때 세상의 시공간이 흐른다.

이렇게 빠져서 보고 있을 때 변화하는 것으로 얼마나 신속히, 바르게 눈뜰 수 있는가는 앎의 깊이와 직결된다. 그래서 부처님은 선정을 강조하신 것이다. 스스로가 완전히 멈추었다는 것을 알 때, 그 움직이는 것은 실체 하지 않음을 알기 때문이다. '움직이는 것은 실체 하지 않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바로 지혜로서 꿰뚫어 버린다.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것에 관해 혼란되지 않는다.

이처럼 수행은 몸과 마음의 결과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님을 아는 것일 뿐이다. 어떤 결과를 바라지 않는 것이 옳은 수행이고, 착한 수행이 되는 것이다. 아무 결과가 없다는 것은 모양도 만들지 않고 소리도 만들지 않아, 세우는 일도 없고 무너지는 일도 없고, 획득하는 일도 없고 잃을 일도 없고, 보여주는 것도 없고 보여주지 않는 것도 없고, 들려주는 것도 없고 들려주지 않는 것도 없고, 나라고 하는 것도 없고 내가 아니라고 하는 것도 없어진다. 그는 보이는 그대로 보이고 있고, 그 보이는 것에 오직 침묵으로 그것을 표현하고 있다.

침묵하는 것은 말을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 아님을 알리려고 침묵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오온으로 보고 들을 수 없음을 알듯이, 추측하고 분별하고 획득하고 추구하고 정신적으로 성찰할 수 없음을 아는 것이 수행임을 성찰한다. 이러한 수행은 지식도 필요 없고 방식도 필요 없이 지금 내가 '나' 라고 하는 오온을 잘 살펴보기만 하면 되는 일인 줄 알면 된다.

〈(사)여시아문 선원장〉



THE WORLD BUDDISM HEADQUSTERS OF SERVEEING MONKS

봉 社團法人 世界佛教僧皇城 設立 축

설립취지

세계불교가 불조의 혜명을 잃고 일불 제자의 僧伽정신을 구현하지 못하고 있는 이때, AD728년 신라 구법승으로 중국에 건너가 달마, 혜가, 승찬, 도신, 홍인, 처적, 무상으로 이어지는 해동 선맥을 전수, 달마조사(達摩祖師)의 전의가사(傳衣袈裟)를 이어받아 정중종(淨衆宗)을 개창 정중선계(淨衆禪系)의 선법을 촉지(蜀地)뿐만아니라 중국의 서남국인 돈황(敦煌), 티베트(吐番)와 남조(南詔)까지 전파되어 실질적으로 중국을 대표하는 초기의 종조인 정중 무상공 존자의 법맥을 재조명하고, 현창(顯彰)하여 한국불교의 위상을 드높이고자 함이다. 더불어 세계불교국가간 유대를 돈독히 하여 부처님 법을 세계에 홍포하고자 한다.

권선문

무상선사(無想禪師)의 연구와 무상선사가 최초로 확립한 정중선파(淨衆禪派)의 선법이 촉지(蜀地)뿐만 아니라 중국의 서남국(西南國)인 돈황(敦煌), 티베트(吐番)와 남조(南詔)까지 전파되는 등 실질적 중국 선종을 대표하는 초기 종파로 달마 대사의 전의가사(傳衣袈裟)가 무상대사에게 이어진 법맥이 마조도일(馬祖道一)에게 이어진 사자관계(師資關係) 등을 밝히고 정중 무상공 존자(淨衆 無相空 尊者)를 현창(顯彰)하여 법맥을 재정립 하고자 합니다. 세계일화(世界一花)의 불의(佛意)로 불교중흥(佛教中興)에 함께 할 제방의 종단(宗團)과 사찰의 동참을 바랍니다.

世界佛教僧皇城 理事長 弘山 玄佛 稽首

THE WORLD BUDDISM HEADQUATERS OF SOVEREIGN MONKS
34. Sedobuk-ro 149beon-gil, Sedo-myeon, Buyeo-gun,
Chungcheongnam-do, Republic of Korea
TEL : +82-041-832-4153 FAX : +82-041-833-4154 Mobile : +82-10-6478-1569

社團法人 世界佛教僧皇城
충남 부여군 세도면 세도북로 149번길 34
가입신청 문의 : 010-6478-1569 TEL 041-832-4153

수희동참 단체 : 선농교단 우리불교조계종, 세계불교종단연합회, 화쟁교단 분황종 외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390호 | 17 | 전면광고

세간의 악들이 치성한 후에 악한 행이 없어지고 다시는 생기지 않게 하며 여러 악한 행이 다하여 진실되게 하며 가령 이렇게만 된다면 누가 세간을 즐기지 않으리까.



부처님 말씀 읽기 -《수행본기경 출가품》에서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제9호 영산재 천수바라 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게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회심곡

• 특별반 과정 모집 •
• 개인 3개월 과정 모집 •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

사 찰 행 사 전 문

(사)대한문화전통불교조계종 총무 010-5511-70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우주광명 「누진통」「천안통」 시공을 초월한 수행법

단 한시간이면 업장소멸, 번뇌가 사라져 무상무념이 되고 해탈이 되어 매일 선정과 삼매에 들어 깨달음을 이루고 병고액난의 고통과 삼악도에서 벗어날수 있음.

일광합장 010-3586-6091

양도공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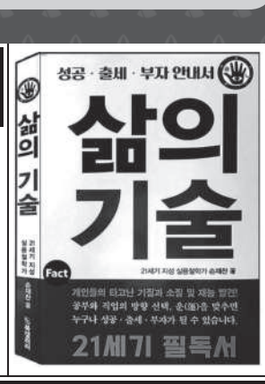
입종 동참 안내

불교정신문화원, 불교수련문화원
불교선문화원, 불교명상문화원
불교문화정원, 불교문화원
(설립 운영하실 분)
한국불교문화원연합회
(교육부 산하 상학 인가)
만대 불교학 대학원
010-5412-8040 법광

효보당 108사주 비법 완전전수

<상표등록 1424679호>
포인트 위주로 가장 쉽게 아수해 드립니다.
- 현재 궁금한 점과 그 대안책(타고난 인생·병·영가 일년 신수 등 '왜?' 그러는지 그 원인과 해결책을 알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과거·현재·미래의 사주와 미래에 대한 대안책 제시
- 대상 : 스님, 철학인, 법사님 등(속성반 7강 진행)
- 출장 및 개인지도도 가능합니다.(단, 경상북도 이남 지역은 포항에서 직접 지도 및 안내해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89 가야선원
문의처 010-2901-8923



추천-책이름검색 해보세요 !!

입멸후 2,566년만에 처음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놀라운 유훈을 완전히 공개한다!!
※ 신간 ※
『대반열반경의 비밀한 뜻을 밝힌다』
010-3514-7084

부전스님 모십니다.
010-4766-3200

비구니 기도스님 모십니다.
010-8426-9963

신심있는 공양주 모십니다.
울산 남구
010-4773-0849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산소, 묘터 물찬곳, 유산낙태,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조상기도법, 귀신붙은 얼굴, 배우자가 일찍 죽는 관상
- 스님, 무속인, 공무원, 일반인 특별책임지도
- **출장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명리, 점성학

상담문의 010-4014-8822
365일 무료숙식제공 교육장 · 비법, 상술 전문지도

현대인의 지친 삶을 위한 쉼터

빙의, 신병, 우울증, 불면증, 화병, 중독, 스트레스, 가정 · 사업문제, 심령치유, 금식기도, 장기요양

✻ 마음치유 · 심신수련 · 쉼 터 ✻

땅끝마을 청정지 해남 견성원에서 새로운 삶의 기운을 받아 가세요!
견성원 문의전화 010-8208-7836

되거라 기도법

스님께만 전수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 합장
☎ 02)963-1148 / 010-3741-0867

성명학·타로·절간사주·비법

절간사주 · 타로 · 인상학 · 수상
특별비법 **비구니 스님**께만 전수 **수강료 100만원**
★간절하게 꼭 배우고 싶은 비구니 스님만 문의 주세요★
아로마테라피 1급강사 ◈ 아로마테라피와 싱잉볼명상 전수해드림 ◈
문의전화 010-6284-6172

영남 범음 · 범패 교육도량

– 49재 · 천도의식 · 바라작법등 –
※교육일시 : 매주 목요일 오후 2~5시 (3시간)
팔공산 구화사 아카데미 교육원
문의 010-9421-9364

현대불교신문
구독 나눔 캠페인

현대불교신문에는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의 말씀이 있습니다.
도반과 함께 구독하여 나눔의 기쁨을 누려보세요.

02-2004-8212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상품명** :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 1kg :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 **1kg :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 전화 : 02-732-1520 , 팩스 : 02-737-0696
▣ **계 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주)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 ㈜바이넥스 / 원산지 :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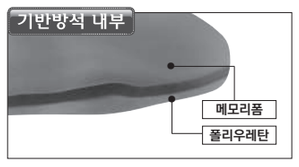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세계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세로 32cm, 높이(뒷면) 8cm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마하몰 TEL 02)732-1520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이창우 역주 | 19,000원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구입 문의 | 02-732-1520
입금 계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선의 참마음(眞心)으로 금강경을 풀이하다!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 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19,000~~ → 16,150원
이창우 역주 |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구입문의 : 02)732-1520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향(香) 특판 안내

● 능인계향 ● 능인라벤더 ● 능인로즈마리



능인계향
판매가 : 20,000원
능인계향은 히말라야와 베트남, 라오스 국경지대에서 구해온 향나무와 꽃 등다섯 가지 재료를 배합하여 만든 향으로 심신 안정과 기혈 순환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능인라벤터
판매가 : 15,000원
라벤더는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능인로즈마리
판매가 : 15,000원
로즈마리는 항균, 살균 작용이 뛰어나고 향기가 풍부해서 목욕할 때나 거실에서 로즈마리 향을 사용하면 신경을 이완시켜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마하몰 TEL 02)732-1520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390호 | 18 | 전면광고

다른 사람이 행했는지 행하지 않았는지
알아보려고 애쓰지 말고 항상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 올바른지 그른지를 알라.



부처님 말씀 읽기 - 《법구경》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서울
◎ 대지 : 250평
◎ 건평 : 50평 외
◎ 시내산 및 주차가
◎ 매가 : 40억5천
◎ 위치 : 부산시포교원
◎ 입지좋은근린상가
◎ 건평 : 약100평
◎ 주차,공원,아파트
◎ 매가 : 12억5천

*40년세월,신용과,믿음으로일합니다. 출장상담받습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상담(창건주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찰안내 가람

- 경남 의령 사찰 매매입니다.
- 부지 총면적 : 1,361㎡(411평)
- 건물 총면적 : 91.88㎡(27평)
- 가액 : 2억3천만원

사진은 인터넷 검색창 "사찰매매안내가람"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010-8980-4789
다래공인중개사사무소 : 서울중랑구 봉우재로203-1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청송군 현동면
- 공기 맑고 아늑한 절
- 잡종지내의 대지 143평
- 가액 : 1억5천(조정 조금 가능)
- 가전제품 보시합니다.
- 당일법회 가능합니다.
- 현재 운영중입니다.
- 법사님, 보살님도 환영합니다.

010-4180-1788

체인점 상가주택

- 충남 아산 핵심요지 대도로 코너 체인점 임대, 상가포함공실無
- 대지 263㎡(80평), 건평 472㎡(143평)
- 융자 3억8천 승계, 인수금 2억8천
- 년 순수익 3천3백만원 태종공인중개사 유승열

010-8348-2858

사 찰 안 내

- 위치 : 밀양시 산외면 금곡4길 68-81(603번지) ● 대지 : 700평 (실사용 천평) ● 건물 : 법당, 산신각, 칠성각, 용왕당 ● 요사체 : 황토방 2동, 슬라브 2동, 해우소 1동(문 5개)
- 모든 건물은 무건물입니다. ● 유실수 다량 감, 자두, 호두, 매실, 두릅, 오디, 머위, 산에는 약초, 송이버섯 ● 도로 포장, 차량진입, 주차장(10대), 주변에 개발지역 ● 가액 5억

010-9203-116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전원주택&토굴 안내

- 위치 : 충북 보은군 내북면 성암가고로 36-32
- 총1,024평 (계획관리지구)
- 대지 285평, 건평 30평, 20평 강의실 10평
- 지하수150m 약수물, CCTV, 화목,기름보일러 (전기판넬), 탁트인 들판, 뒤에는 산, 청정지역 명당터임
- 기운 좋은 토굴, 접근성좋은 도로, 주차시설 넓음
- 가액 : 답사 후 결정

010-5458-225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 금곡면
- 대지 : 402평, 법당 : 30평 산신당 : 5평, 요사 : 방 5개 화장실 : 2개(외부1/내부1) 주차공간 많음
- 가액 : 2억 7천 (땅값만 받습니다)

010-7661-406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삼산면 바닷가 근교
- 부지 : 510평(대지 220평, 전 290평) 법당, 산신각, 요사채 3동
- 토지 : (전)신축 가능
- 가액 : 2억 5천

010-3871-221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어시장 위치 좋음
- 상가 : 4층 55평, 법당, 방2, 주방, 주차장
- 보증금 2천만원, 월 45만원
- 시설필요시 답방후 합의가능

010-7109-4661

사찰안내 가람

- 마산 창원 사찰 매매입니다.
- 부지 총면적 : 대지 2,231㎡(674평)
- 건물 총면적 : 279.12㎡(84평)
- 가액 : 40억원

사진은 인터넷 검색창 "사찰매매안내가람"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010-8980-4789
다래공인중개사사무소 : 서울중랑구 봉우재로203-1

포 교 당 안 내

- 위치: 김해시 내외동 (외동시장, 김해시외버스터미널 근접)
- 3층 복층 70평 (방3, 화장실, 공양간, 창고)
- 보증금 1천만원, 월세 50만원 시설비 1천이백만원(절충 가능)
-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

010-9465-191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 부지 : 1648평(대지 927평)
- 대웅전(25평). 지장전(15평). 독성각(5평). 목조건물
- 요사채 : 조립식 건물 25평. 황토방 7평. 5평
- 납골당 가능
- 가액 : 12억 5천(가격절충)

010-5421-1536

포 교 원 안 내

- 경북 포항시 남구 청림동
- 상가2층 단독 60평
- 삼존불, 탱화, 인등, 사무실, 공양간, 스님방, 화장실3개
- 주차공간 좋음
- 가액 1억2천만원

010-2857-2811
010-7457-281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 총 2천평(대지, 전, 임야, 하천부지), 법당25평, 산신각, 천불전, 사무실, 공양간, 화장실, 요사채, 경관수려, 앞 하천, 뒤 산
- 가액 : 13억

010-4538-2699

도심속 예쁜 사찰

- 위치 : 인천광역시 신석로 111번길 3-1
- 건물 : 2층 법당 30평, 1층 요사채 30평, 지하 20평
- 가액 5억(절충)

010-9286-1008

예쁜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영천시내권
- 대지 : 약 173평
- 건물 : 법당 1동 25평(단청) 산신각 1동 약 4평
- 요사채1동 약20평, 2층 약5평 1동 약25평
- 가액 : 3억 3천(절충가능) 5천만원 빼드림

010-4999-5622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 5권 묶음판매에 동참해주신 독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묶음판매를 종료합니다.
본 광고 이후 **〈불서총판 운주사〉**에서 전국서점에 공급합니다.



깨달음의 시작에서 완성까지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석호 지음
218쪽
값 12,000원

깨닫기 위한 3일의 실천과 그 뒤의 삶을 빛나게 하는 지침



금강경이 소설로 - 금강경 장편소설
하늘다이아몬드
석호 지음
292쪽
값 13,000원

물질만능시대-물질을 버리지 않으면서 동시에, 황폐해지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이루는 메시지

○ 매순간이 기적이다. 이 사실을 사무쳐 느끼는 자. 나는 그를 깨달은 이 - 붓다라고 부른다. <석호>

보급처 : 불서총판 **운주사** ☎ 02) 3672-7181



생활 속의 불법수행

대행 스님과의 신행문답

주인공이란 '참나'라 해도 좋고 '한 물건'이라 해도 좋고, '본래 면목'이라 해도 좋습니다. 일체를 다 싸잡아서 붙인 이름입니다.

현대불교신문(여시아문 刊) | 신국판 | 무선 | 흑백 | 480쪽 | 15,500원



삶은 고가 아니다

대행 스님 법어

세상 모든 생명에게 바치는 저자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를 담아냈다. 흔히 어렵다고 여겨지는 불교를 친숙하게 받아들이도록 인도한다.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 148×210mm | 314쪽 | 12,600원

구입문의 — 02)732-1520 • 3만원 미만 택배비 별도 • 농협 053-01-269062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입 종 안 내 ◐

입종 및 사찰 등록(제출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② 승적원부(본종 소정양식 : 총무부 비치)
③ 승적증빙서류(타 종단 승려는 승려증 사본)
④ 사찰 전경, 내 • 외부 사진 각 1부
⑤ 반 명함 사진 5매(대가사를 수한 사진)

참고사항

① 각종 구비서류는 최근 3개월 내 발행된 것으로 제출
②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음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면 세도북로 149번길 34 마강사
전화 041)832-4153 **팩스** 041)833-4154

우리불교조계종 총무원 Tel 010-6478-1569

현대불교신문
후원 나눔 캠페인

법보시 후원은 최상의 공덕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세요.

02-2004-8212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부산지사	이도경	T 051-405-9402	H 010-5640-8883
경남지사	성낙두	T 051-512-1761	H 010-3860-7008
대구지사	손문철	T 053-768-8008	H 010-2813-8008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T 062-512-5003	H 010-2629-1508
전북지사	조동제	T 063-910-8977	H 010-8642-7733
영주지국	박영애	T 054-634-3429	H 010-9373-3778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

놀라운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석 염주 · 합장주 · 지키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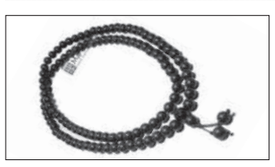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현지 주민들은 이 돌을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 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 한 것이 바로 【희담석】입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타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따라서 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담석 합장주(12mm) 판매가 : 12,000원 ➡ 10,000원
- 남자와 여성분들의 손목에 맞추어져 있음.
- 재질 : ABS, 희담석 50%
  ▪ 팔목이 늘 뻐근한 분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운동이 부족한 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담석 지키미 판매가 : 20,000원
희담석 지키미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 원석을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평상시 주머니에 넣어 다니거나, 틈나는 대로 특정한 통증 부위에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희담석108염주(8mm) 판매가 : 39,600원 ➡ 35,000원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수행증진을!!
구성 : 희담석 108염주
크기 : 직경 8mm "희담석 8mm염주는 차걸이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구매전화 1688-9099 / (02)732-1520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엽 스님의
자연힐링차
⑩ 디톡스를 위해 따뜻한 물과 차를 마시는 방법

'갈증' 아니어도 물 많이 섭취해야

물을 마시는 것과 차를 마시는 것은 갈증에 헉헉거리며 마시는 일이 아니다. 매일 2~3리터의 물을 꼭 마셔야 한다. 수시로 따뜻하게 여러 번 나누어 마셔야 하며, 갈증이 나서 물과 차를 마셔야 하는 게 아니라 그전에 미리 마셔야 한다. 또 100℃로 끓인 물을 여러 번 잔에 따라 마셔야 한다. 과당의 음료와 탄산음료 커피를 마시라는 것이 아니다. 차, 커피, 와인과 각종 음료는 체내에서 필수되는 천연수를 대체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런 음료나 술은 수분보다는 카페인의 이뇨작용과 알콜의 열기로 인한 탈수 성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체내 수분을 지키지 못하고 밖으로 수분과 체온을 앗아가기 때문이다.

현대인들은 물이 인체에서의 중요한 역할에 한다는 것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약물은 인체에 든 병을 개선할 수 있지만 인체의 건강한 면역력을 복원하지 못한다. 많은 질병의 원인은 체내의 수분 부족이다. 이건 사실이다. 체내에 수분이 부족하면 水(신장 방광)대사기능이 약해지며 여성에게는 생리불순이 생겨 최종적으로 불임과 신장질환과 결석 투석을 하게 되는 신장 사구체 질병을 초래하게 된다.

바트만 게리지 박사는 많은 임상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을 포착했다. 많은 경우에 환자는 수분 부족으로 앓고 있는데, 이들 다수가 물을 많이 마셔서 인체 대사 기능을 원활하게 하여야 하며 몸속의 활성산소인 독소를 배출하는 대신에 화학약품으로 대체하려 한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잘못된 발상이 계속되고 있고 천연음식과 자연의 천연음료를 외면하고 비타민제에 의지하여 더 많은 질환들이 더 속출하고 있다. 우리 몸의 수분과 물은 인체의 생명이다. 물은 우리의 목숨의 길이이다. 이 간단한 원리를 들으려 하지 않고 무조건 제약회사와 의사들의 이야기만을 듣는다.


약차 · 한방차의 재료들.

다수 질병 원인, 체내 수분 부족

물 · 약차 · 한방차로 혈관 디톡스

그래서 좀 더 새로운 언어로 제약회사의 화학약품과 비타민제들이 더 많이 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만약 한 환자가 사망했다면 누구도 그 환자가 병으로 사망했는지 아니면 수분 부족으로 관상동맥이 막히고 심장이 정지 되어서 사망했는지를 의사들도 바로 분간 못하고 있다.

이제는 자신의 건강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새로운 자연 과학적 자연요법과 대체요법의 이념은 현대의학에 대한 도전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식되기까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자기의 생명이며 자기의 유일한 목숨을 그저 병원에 맡기기에는 다소 우리가 너무 어리석다는 생각이 든다.

물과 다양한 약차와 한방차로 병든 혈관을 디톡스할 수 있으며 하루에 필요한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 그리고 물의 정확한 음용 방법을 터득해야 한다.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차와 물을 통한 디톡스 방법은 첫 번째, 500ml 내지 1000ml의 물을 보온병에 끓인 물을 준비한다.

1차 = 저녁에 자기 전에 따뜻한 물이나 한방차 200ml 내지 300ml의 물이나 약차를 마신다. 편안히 누워있는 시간에 마시는 물과 약차는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며 몸속의 활성산소와 독소를 배출시켜 준다. 카페인이 들어 있는 커피와 녹차류는 절대 사양한다.

2차 = 밤중에 소변 후 약 100ml 정도의 물을 마신다. 새벽에 보는 소변에는 몸속에 쌓여있던 노폐물이 잘 배출된다. 그런데 일반대중은 밤에 소변을 보지 않기 위해 절대로 물과 약차를 마시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3차 = 아침에 일어나서 200~300ml의 약차 한방차 물을 마신다. 빈속에 마시는 약차는 몸속의 염증을 치유하고 면역세포와 텔레미어인 줄기세포를 재생시켜준다.

4차 = 출근해서 사무실에서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물을 마신다. 신체리듬을 편안하게 해주며 신경안정과 진정효과가 있다.

5차 = 오전 11시쯤에 물을 마신다. 긴장감을 풀어주고 수분을 보충하는 것이다.

6차 = 식사 후 1시 50분쯤 물을 마신다. 소화 촉진과 혈관청소 작용을 한다.

7차 = 오후 4시에 약차나 한방차의 따뜻한 물을 마신다. 피로를 풀어주는 효과가 있다.

8차 = 6시에 마신다. 퇴근 전에 물을 마시면 포만감이 생겨 식사량을 조절할 수 있다. 그리고 저녁식사 후 7시 30분쯤 마신다. 소화 흡수를 돕는다.

현대의학의 발전사에서 인체기능의 퇴행성 질환을 치료하는 첫 중대한 발견이 바로 신선하고 따뜻한 물과 약차를 섭취하는 일이다. 이는 간단하면서도 가장 자연적인 디톡스와 해독 그리고 세포를 재생시키는 자연요법 치료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인간은 성인이 된 후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퇴화된다. 그래서 체내 수분이 적어지고 있다. 그래서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아이스아메리카노를 마신다. 그건 위험을 초래한다. 몸의 갈증 때문에 끊임없이 아이스아메리카로를 마시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의 치수가 높아지고 심장과 혈관은 서서히 굳어간다. 그리고 카페인 과잉은 몸의 수분탈취를 심하게 일으킨다.

세포 내의 수분함량과 세포 외의 수분함량의 비율이 1:1로 부터 0.81로 감소된다. 그래서 신장질환이 저절로 생기는데 거기에 수분을 많이 배출하는 커피와 아이스아메리카노가 과연 우리의 수명을 잘 지켜줄까 심히 의심스럽다. 인간은 노년에 들어서서 10년마다 3리터의 수분을 잃게 된다. 이는 거대한 우리의 몸의 변화다. 우리가 물을 마시는 것은 세포기능의 수요다. 물을 적게 마시면 세포의 재생기능과 생명력과 활력이 급하게 떨어지게 된다.

〈체질별약차 전문점 마음정원 대표〉



박주용의
소금&건강
⑩ 생명의 핵심 미네랄

"모든 생명체 미네랄 없으면 생장 위험"

요즈음 수경재배(水耕栽培)가 인기를 끌고 있다. 수경재배는 말 그대로 물을 가지고 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의 식물은 흙에서 자란다. 흙에 뿌리를 박고 흙에서 영양분을 섭취해서 자라는 형태를 취한다. 그런데 수경재배는 거기서 흙을 버리고 물을 가지고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흙 없이 식물을 재배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사람들이 수경재배를 모르던 시절부터 사실 수경재배는 있었다. "무슨 소리!" 하면서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엄연한 사실이다. 그것은 바로 바다다. 세계 곳곳의 바다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수경재배가 이루어지고 있다. 바닷물 속에서 자라는 식물들은 뿌리가 흙속에 고정되어 있지 않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다시마나 미역, 김의 경우를 보면 바위는 그저 붙어 있는 장소의 의미뿐이다. 뿌리가 붙어 있는 바위에는 흙이 없고 바위에서 어떤 영양분도 그들은 공급받지 않는다. 이들 모두는 물속에 있는 잎이나 줄기를 통해 영양분을 공급받아 살아간다. 즉 흙이 필요가 없다. 바로 명실상부한 수경재배라고 할 수 있다.

식물성 플랑크톤 역시 마찬가지다. 흙이 없어도 바닷물 속을 이리저리 떠다니며 잘 번성하고 있다. 흙의 역할은 영양분을 공급하는 곳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식물을 지탱하는 의미도 있다. 그 지지하는 역할을 다른 것이 할 수 있다면, 혹은 식물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흙의 역할은 그만큼 줄어들게 되고 흙 없이 식물 재배가 가능하다.


바다 속 미네랄을 토대로 살아가는 대표 해조류 미역.

수경재배에서 미네랄 중요성 확인

식물성장, 미네랄 공급시스템 의존

앞에서 설명했지만, 식물이 흙에서 흡수하고자 하는 것은 식물이 만들어 내는 단백질, 탄수화물 비타민, 지방이 아니다. 이것들은 식물이 탄소동화작용이라는 것을 통해 스스로 만들어 내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이산화탄소와 물 그리고 질소를 포함한 미네랄만 공급해 준다면 식물들은 흙 없이도 다양한 영양분을 만들어 낼 수가 있고 성장할 수 있다.

바닷물은 물이니까 물은 충분하고, 이산화탄소는 물속에 녹아 있고, 햇볕은 물을 통과해 비치고 있고, 그러면 남는 것은 질소를 포함한 미네랄이다. 그 질소를 포함한 미네랄은 바닷물 속에 다량으로 녹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해조류들이 이들을 흡수하여 탄소동화작용을 하고 성장한다. 따라서 수경재배처럼 물속에서 흙 없이도 자랄 수 있다. 해조류는 누가 비료를 주지 않아도 가꾸지 않아도 수경재배와 같은 방식으로 매년 풍성한 수확을 사람들에게 가져다주고 물고기 등 바다생물의 먹이 및 휴식처가 되어주고 있다.

미역, 다시마, 김 양식장이 남서해 연안에 널리 분포하고 있다. 하지만 그 어느 양식장을 가도 비료를 주거나 거름을 주는 곳은 없다. 그들은 바다 속에서 바다가 가진 다양한 미네랄을 토대로 스스로 성장하고 있다. 어쩌면 수경재배는 이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배운 것인지도 모른다. 수경재배는 식물을 고정하는 틀과 물 그리고 미네랄만 있으면 어디서든 재배가 가능하다. 물론 공기와 햇볕도 있어야 한다. 정리하면 수경재배는 흙에서 공급되던 미네랄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물에 타서 식물에 공급 식물을 재배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즉 다시 말하면 미네랄 공급시스템을 흙에서 물로 바꾼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 시스템의 성공은 바로 미네랄 공급시스템이 잘 작동이 되는가에 의해 판가름 난다. 식물은 햇볕과 물, 이산화탄소에 의해 살아간다. 이들이 공급되지 않으면 식물은 생존할 수 없다. 그러나 이들은 매우 흔한 것이고 인간의 도움 없이도 식물이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이다. 다만 미네랄은 그렇지 않다. 결국, 식물의 성장은 미네랄의 공급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수경재배 또한 강조한 것처럼 미네랄의 공급시스템이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고서는 성공할 수가 없다.

식물의 필수 영양성분을 원소별로 보면 탄소(C), 수소(H), 산소(O), 질소(N), 인(P), 칼륨(K), 칼슘(Ca), 마그네슘(Mg), 황(S), 염소(Cl), 철(Fe), 붕소(B), 망간(Mn), 아연(Zn), 구리(Cu), 몰리브덴(Mo) 등 16가지로 알려져 있다. 이 외에 니켈(Ni)이 제17원소로 등장하고 있다. 이 중에 C, H, O는 공기와 물에서 얻을 수 있지만, 나머지는 어떤 형태로든 물에 녹아서 이온 형태로 흡수되어야 한다. 이것을 통해 식물에 필요한 것은 미네랄임을 알 수 있다. 식물은 미네랄만 공급해 주면 토양 없이도 잘 자란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먹으면 영양분이 풍부하고 미네랄이 고르게 들어있는 음식물이 된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미네랄의 중요성이다. 미네랄은 식물이든 동물이든 그 성장과 생명의 유지에 꼭 필요한 핵심 물질이라고 할 수 있다. 식물은 공기와 물을 기초로 영양분을 만들어내지만 미네랄은 만들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수경재배에서 이를 별도로 공급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인간은 식물보다 더 미네랄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인간은 식물처럼 스스로 영양분을 만들지 못한다. 그리고 섭취하는 음식마다 미네랄 함유량은 제각각이고 그나마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일반 영양분은 넘치는데 미네랄 섭취가 문제인 것이다. 수경재배를 할 때 미네랄은 공급하지 않고 물만 공급한다면 식물은 자랄 수가 없다. 인간 역시 마찬가지이다. 일반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아무리 먹어도 미네랄 공급이 없다면 건강하게 살 수가 없다. 우리가 미네랄 소금을 선택해서 먹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주)오씨아드 이사〉

일일시호일

심장구멍·고혈압·호흡곤란까지…
기로에 선 어린생명

스리랑카에서 온 말리트씨 딸 미실캬라 태어나자마자 치료실 행
3000만원 병원비로 지불…매일 100만원씩 갚아야 할 1500만원



농협 301-0189-0372-0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070.4707.1080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마음책 다시 읽기

분노를 다스리는 붓다의 가르침

❶ 첫번째 승리, 외부의 적

▶ 한줄 요약
분노가 일기전 효과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평정심', 나를 지키는 원동력

우리는 해를 입었을 때 외부의 적과 마주친다. 일상생활에서 모든 종류의 해악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다. 누군가가 우리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모욕하거나 학대하고, 사취하거나 폭행하고, 따돌리거나 협박한다. 고문을 가하거나 살해하기까지 한다. 우리의 재산을 강탈하거나 훼손하거나 파괴한다. 이러한 행위를 저지르는 사람은 적의 일반적 정의, 즉 '서로 증오하고 상대방을 해치거나 해치고자 하는 사람'에 딱 들어맞는다. 우리는 그 가해자에게 적이라는 이름표를 붙이고 그에 걸맞게 취급하는 것이 충분히 합당하다고 느낀다.

다른 사람들 역시 학대를 당하고 해악을 입는다. 그들과 동일시할 경우, 우리는 그들을 해친 자도 적으로 간주한다. 책과 영화, 텔레비전 드라마에는 수많은 적이 등장한다. 거기에서 나쁜 사람이 착한 사람에게 나쁜 짓을 저지른다. 당연히 우리는 자신을 착한 사람과 동일시하고 그가 나쁜 사람을 잡아내서 곤경을 면할 날을 애타게 기다린다.

외부의 적은 그들만이 아니다. 이 세상에 산재하는 수많은 문제와 우리가 그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사람들 역시 우리에게 큰 고통을 가하는 외부의 적이다. 최고 부유층의 주머니만 불려주는 경제 불균형, 산업폐수로 환경을 오염시키는 기업, 우리의 사회적 권리와 헌법적 권리를 우습게 아는 정치가, 각자의 편협한 목표를 최우선시하는 이익단체들이 그것이다. 어디로 눈을 돌리든지 우리는 서로 적대적인 두 집단을 찾아낼 수 있다.

굳이 멀리 갈 것도 없다. 이웃이나 근처 학교만 보아도 외부의 적이 한둘이 아니다. 총을 난사한 십 대나 테러리스트에 관한 기사가 오늘의 헤드라인을 차지한다. 하지만 훨씬 더 은밀하고 만연한 문제는 집단 따돌림(bullying)이다. 이것은 급속히 확산되어 전염병 수준에 이르렀다. 인종, 종교, 국적, 사회 계층, 성적 취향, 심지어 말더듬이나 잘못된 옷차림까지도 학대와 공격을 부를 수 있으며, 때로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단지 신문을 펼치거나 텔레비전을 켜기만 해도 세계 도처의 적들과 대면한다. 어느 나라의 지배층이 자국민을 학살하거나 다른 나라를 공격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그 잔학 행위에 크게 분노하며 가해자의 파멸을 간절히 원한다. 내 조국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나는 이라크의 수도인 바그다드를 폭격한 미국의 '충격과 공포(shock-and-awe)' 작전을 떠올린다. 내 조국이 폭력을 행사해 같은 인간들에게 괴로움을 줄 때, 우리는 슬픔과 죄책감을 느낀다. 이때 우리는 나쁜 자들을 궤멸시키려는 열망과 그 죄책감 사이에서 괴로워한다.

우리는 해를 입지 않으려고 애쓴다. 하지만 단순히 자기를 방어하나 해악에서 도망치는 것은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이다. 그 해악은 머잖아 우리를 찾아낸다. 쉽게 해를 입지 않는 확실하고 유일한 방법은 적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고 해를 입는 모든 순간을 기회로 바꾸는 법을 배우는 데 있다. 그 순간을 이용해서 자신과 타인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법을 배워야 한다. 어떻게 하면 힘을 키우고 인내의 방패를 빛나게 닦으면서 동시에 누군가가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막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흥분과 공격, 두려움, 분노라는 충동적 대응을 자제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 우리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이 필요하다. 달라이 라마는 우리가 적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적은 우리에게 인내와 용기와 결의를 가르치고 우리가 평온한 마음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우리를 지금 해치고 있고 해치려고 하는 자들, 이전에 해쳤거나 앞으로 해칠지도 모를 자들에 대한 증오와 두려움을 없애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것은 버거운 요구다. 적어도 처음에는 그러하다. 적과의 싸움을 끝내는 것은 점진적 단계에 따라 천천히 행하는 것이 가장 좋다.

분명히 말하지만 그냥 가만히 앉아서 누구든 원하는 대로 자신을 해치게 놔두라고 권하고 있는 게 아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 그것은 자기 학대이며,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적을 상대할 때는 먼저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자를 피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그가 그 나쁜 계획을 실행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

상황 직시 비판적 지혜서
두려움 · 충동자제 힘나와
냉철함, '문수보살 검' 같아

하지만 그를 피할 수 없을 경우에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방어해야 한다. 그러나 회피와 방어 사이에 중도가 있다. 최선의 전략은 분노가 일기 전에 미리 효과적으로 행동하고 적에게 우리를 해칠 기회를 아예 주지 않는 것이다.

이 모든 전략에서 우리는 그 자를 잠재적 위험으로 간주하고 줄곧 지켜본다. 고속도로에서 우리를 향해 달려오는 트럭을 지켜보는 것과 다르지 않다. 우리는 그 트럭의 경로를 예상하고 충돌을 막기 위해 트럭을 피한다. 하지만 그 트럭을 증오하지는 않는다. 트럭을 적으로 삼지 않는다. 단지 길가로 물러나 안전하게 머무는 것에만 신경 쓸 뿐이다.

적을 증오하지 않기란 어렵다. 인정한다. 상처를 입으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희생을 당했다고 느끼고 분노나 증오, 두려움으로 반응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의문이 생긴다. 적어도 외부의 적에 관한 한, 어떻게하면 그 적에게 똑같이 되갚아 주지 않고도 그를 물리칠 수 있을까? 공격을 받고 있다고 느낄 때 어떻게 하면 충동적 대응을 피할 수 있을까?충동적 대응을 피하고 신체적, 언어적 공격을 자제하기 위해서는 그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그러므로 적을 대할 때는 비판적 지혜가 필요하다. 이 강력한 지성이 적과 맞선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 상황의 본질을 꿰뚫는 이 비판적 지혜의 날카로운 분석은 우리가 어설픈 충동적 대응에 갇히지 않게 해 주기 때문이다.



집단 따돌림

집단 따돌림 현상은 증가 추세에 있으며 험담에서부터 외면, 물리적 폭력에 이르는 다양한 행동으로 표출된다. 집단 따돌림 수법에는 경멸하는 웃음, 악의적인 조롱, 빤히 노려보기, 침묵으로 대응하기 등 많은 것이 있다.

이 현상에 관한 통계치는 다양하지만 대다수의 학생이 일생 동안 한두 번의 집단 따돌림을 경험한다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학생의 77퍼센트가 따돌림을 겪는다.

학교 운동장과 사무실, 인터넷상은 물론이고 심지어 정부 기관과 종교 조직 내에서도 집단 따돌림이 하나의 생활 방식으로 되어 가고 있다. 인종이나 종교, 성별, 능력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을 따돌리기도 한다. 단독적인 잔학 행위와 적대 행위가 순식간에 집단 따돌림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집단 따돌림은 우리 사고의 심층에 존재한다. 그곳에서 지극히 평범한 불친절한 행동이 피해자의 신체나 성격에 대한 악의적 공격으로 만개한다. 가해자의 깊은 불안에서 주로 비롯되는 집단 따돌림은 배척과 공격을 통해 작동한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대신에 가해자는 손쉬운 표적을 잔인하게 공격함으로써 불안을 통제한다. 피해자를 자처하는 개인과 집단이 집단 따돌림의 가장 적합한 표적이 되는 경향이 있다. 집단 따돌림 사건에서는 가해자의 친구나 구경꾼이 합세해서 피해자를 놀리거나 가해자를 부추기는 경우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사회적 고립도 일종의 집단 따돌림이다. 일반적인 따돌림보다는 포착하기 어렵지만 고통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나는 그것을 백인 친구가 입양한 중국인 딸을 통해 가까이에서 목격했다. 그 아이가 진보적인 도시 학교에 등교한 첫날, 공교롭게도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그들이 엄마나 아빠와 신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닮았는지를 말해 보라고 했다. 울면서 집에 돌아온 아이는 "나 혼자만 아무 말도 못했어요."하고 말했다.

나도 어릴 때 그 아이와 같은 경험을 했다. 그때 아빠가 정신병원에 입원해 계셨다. 수업에 들어온 선생님마다 나와 반 아이들에게 아빠의 직업이 무엇이냐고 물었지만 나는 아무 할 말이 없었다.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소외감과 수치심이 깊어만 갔다.

체제(system)는 개인 못지않게 괴롭힘을 가할 수 있다. 사회체제는 고정관념을 통해, 계층 구분을 통해, 가장 은밀하게는 다양한 형태의 사상 통제를 통해 집단 따돌림을 조장한다. 안타깝게도 그것은 구성원들에게 일부러 잘못된 정보를 주입하고 그들의 자연스러운 사고를 억압하는 광신적 종교 집단이나 전체주의 체제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학자 그레고리 베이트슨(Gregory Bateson)은 1950년대에 발표한 선구적 저서에서 그러한 복합적 메시지들의 파괴력을 입증해 보였다.

우리가 겉모습 뒤에 숨은 속마음을 알아차릴 때, 이러한 인지 부조화가 정서적 학대일 수도 있다. 이것은 감히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가족들이 종종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술책이다. 아이를 때리면서 너를 위해 때리는 거라고 말하는 부모를 생각해 보라. 또는 엄마는 만사 평안하다는 듯이 행동하지만 아이들은 엄마의 그 화사한 미소 뒤에 엄청난 괴로움이 감춰져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다. 중독 재활 프로그램은 이 은밀한 수치심을 '거실에 있는 코끼리'라고 부른다. 모든 사람들이 보고도 못 본 척 외면하는 크고 분명한 문제라는 뜻이다.

가해자와의 심리적 분리는 그를 이해시키려고 시도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하다. 가해자가 짓밟은 자존감을 되찾는 것은 내면의 작업이다. 여기에는 그의 이해나 허락이 필요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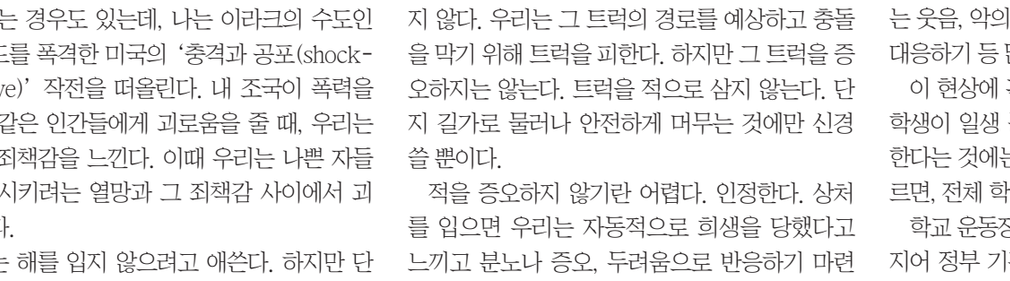
자신을 지키고 자기주장을 하는 것은 큰 용기를 요구한다. 수많은 목소리가 정반대로 하라고, 즉 벌어지고 있는 일을 회피하고 감추고 부인하라고 우리에게 종알거리기 때문이다. 따돌림의 대표적인 특징은 모욕이다. 누군가가 우리의 주관적 현실을 의심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모욕적이다. 무엇을 믿어야 할지 확신하지 못하므로 우리는 수치심과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끼고, 자기 부정의 악순환에 갇힌다. 진실은 우리가 빼앗겼던 힘을 되찾아 준다.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 다시 효율적으로 살아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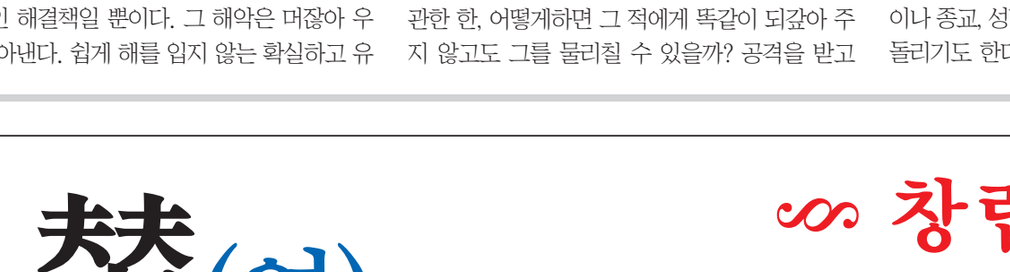
분명히 말해두자. 비판적 지혜는 맹렬하다. 가차없고 결연하고 광포하기까지 하다. 하지만 동시에 섬세하고 다정하다. 이러한 비판적 지혜는 문수보살의 검으로 그려진다. 그렇다면 우리가 처한 상황의 실상은 무엇인가? 적은 우리를 모욕하고 상처주고 심지어 죽일 수도 있다. 그렇다. 우리는 그 것을 직시해야 한다. 그 것은 건강한 두려움이며, 우리가 얼른 움직여서 위험한 적을 피하도록 해준다. 우리는 적을 피할 수 있다. 두려움과 분노를 통제하고 냉정을 유지한다면 우리는 그 적으로부터 자신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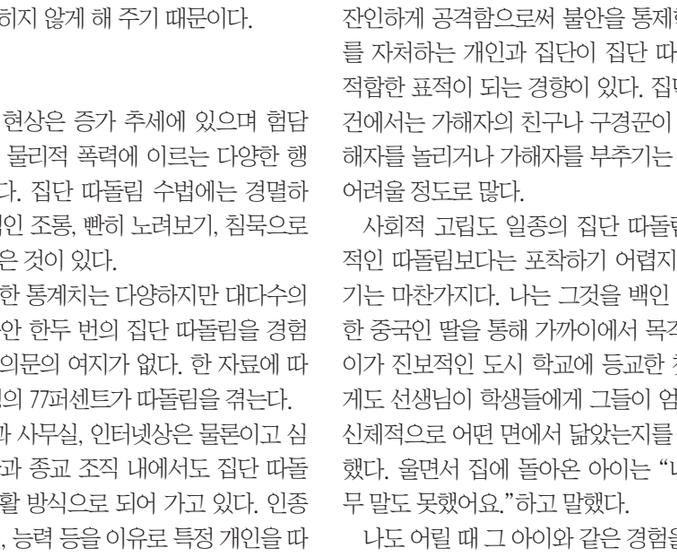
저자 : 샤론 샐즈버그, 로버트 서먼 〈담앤북스 펴냄〉

∞ 창립 40주년 ∞
한 올 한 올의 정성이 명품을 만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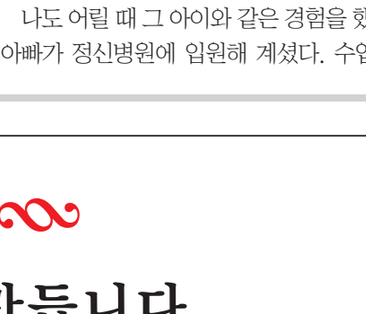
輦(연)
사찰 모든행사에 필수적인 의식구
49재 천도재 예수재 영산재 수륙재 등 각종 행사


인로왕번 아미타번 삼신번 오방번 좌보처 지장보살 우보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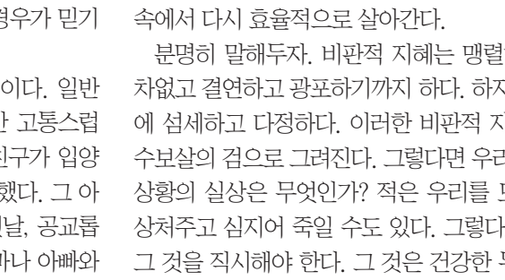

향마진언 보고번 영가번 구병시식 산신번 관세음 용왕번 대세지번 옴마니번
규격 : 480x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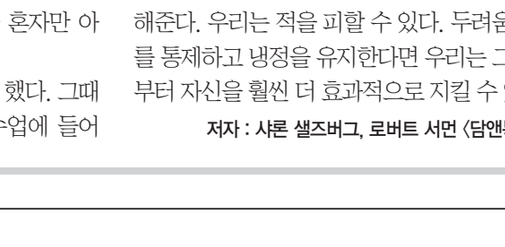

3단 조립식
*몸체길이 가로 650x세로 1100
*가볍습니다. 20kg


닷집번


반야용선
규격 : 높이 1300 x 길이 1600

감사행사 (번)幡
오래전에 저희 회사에서 구입하신(퇴색 및 훼손)된 번 교환시 20% 할인금액으로 새번으로 교환해 드리겠습니다. 기간 : 2월 30일 까지


시왕번 규격 : 180x1400


칠여래번 규격 : 350x1400

한국불교전통의식구
주소:서울 중랑구 상봉중앙로 10길 8 풍산쉐르빌 105동 201호
전화번호:010-8441-6814



대행 스님

지구의 오염을 막는것도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인사드릴 기회가 없어서 인사가 늦었습니다. 서울 법회 때 너무들 애를 쓰셔서 정말이지 감사한 마음 말로는 어떻게 형용할 수 없습니다. 회장님 이하 여러분, 모두 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신력이 여기 이렇게 몸을 끌고 오신 거죠? 하하하. 이 몸뚱이라는 것은 사실은 로보트 같아서…, 제가 겪어 봐도 그래요. 독일에서 캐나다로 왔는데 캐나다인지 독일인지 처음에 갔을 때는 멍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하, 이거 로보트는 로보트로구나!' 하는 생각 말이에요. 또 여기에 와서 드러누웠다 일어나니까 방문이 어딘지, 허허허. 그렇게 멍해지더군요. 그래서요, 이 정신력이 없으면 사람은 그냥 송장이죠, 뭐.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자동차를 인간이 부리는 로보트로 생각을 하지 진짜 '나'라고 생각을 안 하죠? 자동차 속의 운전수가 진짜 '나'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저 스님은 지원을 저렇게 여러 군데다가 내고 돌아다니는지, 또 말끝마다 왜 저렇게 주인공, 마음을 찾으라고 간곡히 그러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다 함께 한마음으로 지구를 보존해야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지원을 각처에 손닿는 데는 다 이렇게 내는 것은 그 지역에서 역사적 사건으로 죽은 모든 사람들, 모든 갇혀 있는 영혼들에게 다 문을 열어 주어 한마음으로 귀정 짓게 하고, 또 산 사람도 역시 그렇게 하려는 겁니다.

신도들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지역에 지원을 내기만 하면, 벌써 그것은 우주하고도 직결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진실한 실천이 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맹세코, 실천하지 못한다면 도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예언자들이 이 물컵이 쓰러질 것이다, 물이 다 쏟아지면 죽는다, 이렇게 예언은 하지만 그걸 안 쓰러지게 해 놓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는 소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지원에서나 본원에서나 멀고 가까움이 없이, 전 세계의 모든 잠자고 있는 사람들을 깨우고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 주고, 그렇게 해서 모두 한마음으로 이어져서 일꾼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과 더불어 같이하면서, 바깥으로 찾지 말고 꼭 안으로 찾으라고, 일거수일투족 주인공이 하고 있고, 뛰기도 주인공이 뛴다고 항상 말해 왔습니다. 이 언덕 저 언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신계와 물질계가 둘이 아니게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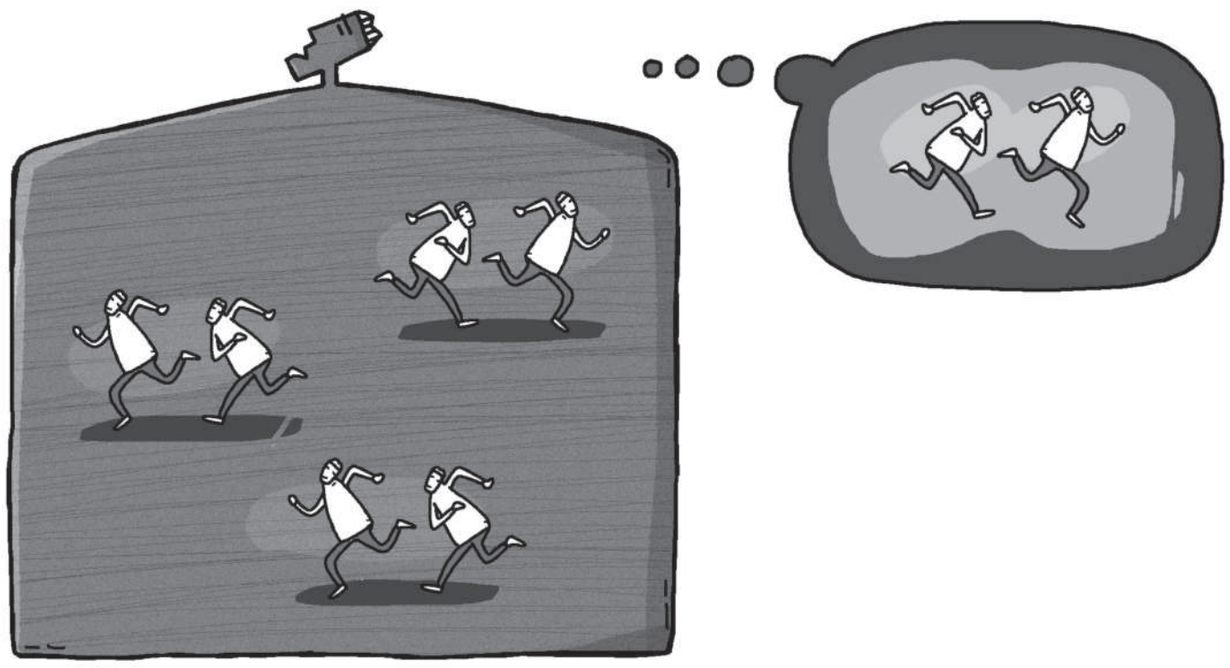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정신계와 물질계, 육신과 정신이 어디 따로 따로 놉니까? 그런데 여러분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언덕에서 저 언덕을 빨리빨리 넘어서라고 합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이 언덕은 물질계고 저 언덕은 정신계인데, 만약에 정신계에 도달하게 되면 물질계와 정신계가 둘 아닌 도리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깨달아서 저 언덕을 넘어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주인공을 찾다 보면 거기에 모든 것이 통신이 됩니다. 그러나 물질계로만 들어간다면 통신이 되질 않아서 한마음이 될 수가 없으니까 공덕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 몸 한 개체도 한마음으로 구성돼서 전부 따라 준다면 이게 공덕이 되고, 개개인으로 논다면 이건 공덕이 될 수가 없죠. 한 회사가 한마음으로 구성돼서 회사를 해 나간다면, 한 구성체지만 제가끔들 논다면 한 구성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그 마음을 합쳐서 일체가 다 한마음으로 구성돼서 일체제불과 더불어 같이 이 지구의 모습을 지속되게 하는 도량이 있어야 된단 얘깁니다. 그건 왜냐하면 운기라고 할까, 그런 따뜻한 공기가 압축을 시키기 때문에 우리 공기막은 터지게 돼 있습니다. 그 얘기는 안 해도 되지만, 여러분이 왜 그렇게 저 스님이 저러는지 그것쯤은 조금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말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터지면 만년설이나, 남극과 북극 전부, 여름이나 겨울이나 녹지 않는 얼음이 녹게 됩니다, 모두가 달라지고. 그게 터지게 되면 어떤 변화가 오느냐? 땅덩어리가 산산조각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개미처럼 어디 물 없는 데로 기어 올라가야 할까요, 어떡할까요? 그것은 장난이 아닙니다. 그것을 아마 이름해서 천지개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그런데 마음공부를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전자에는 물에 죽고, 불에 죽고, 종교 싸움에 죽고 이렇게 역사가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좀 다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달렸다는 얘깁니다. 우리가 지금 종교를 믿는다면서 절이나 하고 다니는 노라리로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더불어 같이 둘이 아닌 내 생명, 내 모습, 모두가 산 산조각이 나는 겁니다.

이번에 독일에 가서 보니까 삼백삼사십 년 전에 종교 싸움에서 수없이 죽었더군요. 그래서 나는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뛰어다니면서 죽은 사람, 산 사람, 갇혀 있는 사람들과 직접 대화를 하면서 문을 다 틔우고, 수녀나 신부 모두, 고문을 당하고 갇힌 그 장소에서 문을 다 틔워 놨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하기 이전에 먼저 얘기를 해 봅시다. 여러분이 "스님께서는 조상들을 천도시키는데 어떠한 관계로 우주떡 하나를 해 놓고 합니까?" 하고 질문할 수 있죠. 그것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극난하게 먹고 살던 그 관습이 남아서, 죽어서도 그 관습을 떼어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인식을 가졌기 때문에 죽어서도 그 먹으려고 하는 착, 살려고 하는 관습이 그냥 누더기처럼 붙어서 자식들한테나 친척한테나 접근해서 자기 갈 길을 가지 못하고 헤매고 돌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유전이 돼서 또 지금 산 사람들에게, 자식들에게 해 끼침이 됩니다.

"왜 그러면 스님은 그렇게 천도를 합니까? 남들은 위패를 써서 붙이고 하는데…." 이러는 분도 있겠죠. 부처님 법에도 '백 일만 앉을 자릴 해 놓고, 즉 말하자면, 설법을 해서 설득을 해서 구원을 하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게. 그런데 백 일이 뭡니까? 마냥 위패를 붙여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부처님 법으로도 어긋나지마는 때로는 갇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허락을 받아야 나가고 이렇게 되니 그 영령들은 도무지 헤어날 수가 없는 것이, 산 사람으로 인해서 또 그 진퇴에 걸림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백 일만 되면, 백 일 안 돼도 돌아가시면 바로 위패를 해 놨다가 딱 살라 버리고 다시금 위패를 해서 또 모셔 오고 합니다. 그 원인이 어딨는가를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깊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때에 따라서 여러분 조상님들을 다, 가난한 사람은 사십구 일이 돼도 백 일로다가 채워서 그냥 천도를 합니다. 그건 왜냐하면 이게 산 사람으로 치면 교육 기간이 있어요. 이렇게 모두 앉을 자리에 앉혀 놓고, 듣게끔 하고 보게끔 하는 겁니다, 영가님들을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 가난한 집의 부모들은 천차만별로 직책을 줘서 내보냅니다. 머리 깎고 스님만 되는 게 선지식이 아니거든요. 다시금 이쪽으로 태어나서 선지식이 되게끔 북돋아 주면서 한편으로는 그 자손들을 위해서 직책을 갖게 해 놓고 보살의 심부름꾼으로 일하게 하는 거죠. 심부름꾼이라고 해야죠.

이렇게 함으로써 자손들이 그 대에, 그 차원의 종자는 점점 점점 커지게 돼 있습니다. 보살의 행은 남을 조금이라도 해롭게 해서도 아니 되지마는 이익하게 하지 않는다면 그건 도가 아니요, 그것은 심부름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주 천지에서 인정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정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 권리를 주지 않죠. 보살의 행도 권리가 있어야만이 행을 하는 거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조상들도 모두 문을 열고 귀가 트이고 눈을 뜨게 하고, 어느 지역이든지 가서 하면 거기에 통신이 되고, 그래서 그 영령

☞ 22면으로 계속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 큰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름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기를 무시하는 것은 부처를 무시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 21면에서 계속

들이 다 깨어나게 하고….

이번에 이런 일이 있었죠. 독일에 갔는데 말입니다, 난데없이 수녀 한 분이 들어왔어요. 나는 무식해서 역사도 뭐, 잘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때에 따라서 알게 되면 딱 알고, 하게 되면 하고 그러는 거지. 그런데 누구냐고 물으니까 뭐라고 하느냐 하면 "삼백사오십 년 이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는 겁니다. 그럼 수녀인 것은 아는데 왜 나한테 왔느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종교 싸움으로 인해서 독일 사람들이 삼분의 일, 어쩌면 반이 죽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는 겁니다. 그때에 자기들은 수녀로서 성당을 하나 조그맣게 해 놓고 일판에다가 세 개의 천막을 무지하게 크게 세워서 거기에서 죽어가는 사람 치료를 했다 합니다. 치료를 하다가 막판에 가서는 뭇사람들한테 봉변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묻혔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나뿐이 아니라 그 일판의 사람들이 전부 고문당하고 갇혀 있으면서 한 발짝도 떼어 놓을 수가 없어서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 이왕 오셨으니 이 문을 다 열어 주실 순 없습니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법이나 가톨릭 법이나 사람의 근본은 둘이 아니야. 모두가 둘이 아닐진댄 어떻게 그렇게 있을 수가 있겠느냐." 하고 쭈욱 설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퍼뜩 알아듣고선 부처님 모셔 놓은 데 가서 절을 삼배를 올리고 그 수녀는 옷을 벗어서 담 너머로 다 팽개쳤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경우가 왜 생기느냐 하는 것도 문제지마는 내가 그렇게, 군묘지를 처음에 시험을 해서 실천을 해 보고, 또 그다음에 외국에 있는 군묘지를 택해서 해 보고 이렇게 해서 모두 운집을 시킨 것은, 바로 이러한 문제가 앞으로 이렇게 오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는 사람 하나하나 건지는 것만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사람도 몸 하나를 건져야 그 몸속에 들어 있는 중생들이 다 살 수 있는 거지 몸 하나 건지지 못하면 속에 들어 있는 생명들은 다 죽습니다.

그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한 마음공부를 해야만이 오고 가면서도 영령들에게 모두 문을 열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 죽은 영령들은 누가 자기를 이익하게 할 수 있는지 그걸 알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찾아온다 그래서 발로 걸어서 찾아오는 것은 아니죠. 빛보다 더 빠르니까요.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귀중하고 그렇게 광대무변하고 묘하니까 여러분이 오직 한마음에…, 한마음도 체가 없는 겁니다. 한마음에서 검부락지 하나를 일으켜 세운다 하더라도 지구를 들 수 있는 그런 태세라야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그런 관계상 여러분한테 간곡히 이날까지 이렇게 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점점 그것이…. 내가 지금 지어 놓은 이름도 무식해서 모르고 내가 지으려니 그건 안 되고, 그래서 이름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더운 기가 압축이 되면 공기막이 터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니 되니까 그것을 높게 하면 얼음이 녹지 않고…. 또 지금 오염이 된다는 사실도 큰 문제죠. 중생들이 오염이 되게 하면 가차 없이 모두가 살림을 다시 해야 합니다. 그런데 더러운 걸 버려서 오염이 되나 했더니, 이번에 알프스산에 가서 보니까 케이블카가 올라가고 이러느라고 땅을 파고 쇳덩어리를 박고 이런 것부터 벌써 오염이에요. 이 모두가 오염이에요.

그건 왜 오염이 되느냐. 의사가 완전히 배워 가지고 수술을 할 때에 세포를 건드리지 않고 살을 각을 뜹니다. 그런데 이건 그것도 모르고 세포고 동맥이고 뭐고 막 끊고 쇠를 박으니 이게 오염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의사도 아니면서 의사 노릇을 하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생기는 그 오염을 막는 것도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끊어진 세포를 잇고…, 하여튼 마음은 체가 없는 겁니다. 체가 없는 건 뭐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그 오염을 전체 깨끗하게 막아 준다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가만히 보니까 남극이고 북극이고, 만년설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리고 이게 북극에서 남극으로 통로가 돼 있다면 남극 바로 옆에, 아래 옆에 또 통로가 하나가 있거든요. 그것은 그 분비물이 다 나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구는 비었죠. 지구가 비었다고 볼 수 있죠. 사람도 소장이 있고 대장이 있고 그렇게 해서 소통이 되듯이, 우리가 보통 상식으로는 비었는지 차 있는지 그걸 모르겠지만 이 마음공부를 열심히 해 보면 그것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달도 비어 있지만 양극이 크게 구멍이 나서 연결이 되니까 양쪽으로 들이고 내고 하는 그 소통이 아주 정연하게 돼 있기 때문에, 너무 팽창되지도 않고 너무 타 버리지도 않게끔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통이 잘되고 수명이 길게 되고 짧게 되는 것도 이 모두가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다 이겁니다. 그것은 전체 우리 마음이 은하계에 결부가 돼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러분한테 옛날에 이런 얘길 했다면 '저 스님 왜 저래?' 이럴까 봐 안 한 겁니다. 십 년 전에도 내가 한마디 웃으면서 한 얘기가 있죠. "야, 지구도 비었어. 달도 비었어. 모두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차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큰 오산이야."라고요.

화성에도 사람이 살다가…, 생명이 없으면 공기가 없어지게 돼 있거든요. 대기권이 없어지고요. 그것은 모두가 오염을 시켰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생명체가 좀 살아나고 있죠.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들의 마음에 생명이 자라게 하려면 자라게 하고 또, 생명이 없어지게 하려면 없어지게 하고, 물이 생기게 하려면 생기게 하고 그럴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권을 여러분이 가졌습니다.

자기를 무시하지 마세요. 자기를 무시하는 것은 부처를 무시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나도 모르면서 그냥 죽을 수는 없죠. 죽는 게 아까워서가 아닙니다. 새로 살림을 하자면 너무나 처참한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미생물에서부터 항상 둘이 아니라고 했죠? 내 부모, 네 부모가 따로 없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미생물에서부터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형제가 되고 하면서 형성돼 올라왔고 진화돼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이 마음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이름은 벌써 우주에 다 기록이 돼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거짓말 같죠? 거짓말이 아니에요. 보이는 데 글자 쓰는 것만 글자가 아닙니다. 그래도 미쳤다고 하시겠습니까? 글쎄요, 미쳤다고 하는 소리 난 뭐, 백 번도 더 들었으니까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렇게 외국으로 돌면서도 간곡히…, 삼백몇십 년 전만이 아니라 불로 죽고 하던 시대에 있었던 영가들도 그렇게 좋아서, 물에서나 어디서나 다 좋아서…, 폼페이인가 하는 거기도, 세 지역이 물이 이렇게 같이 돌아 나가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서도 그렇게, 우리 스님네들이 한 바퀴 도는데 전부 선처를 빌더랍니다. 그래서 다 해 주고 왔다고 합디다. 우리 스님네에게도 직접 그렇게 부탁을 해서, 어떤 때는 잠 한잠도 못 자고 그 이튿날 아침까지 해 주고 끝내고 왔다고 그러는데, 내가 그랬죠. "그렇게 밤까지 샐 게 뭐 있니? 마음인데, 허허허. 이 종지의 물도 (법상 위의 컵을 가리키시며) 바닷물로 만들 수 있다. 마음이기 때문이다. 마음은 한계가 없다. 그리고 과일도 이 세상 거를 다 갖다 놔도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도 한 예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왜 이렇게 공부를 해야만 하는지를 알고나 가야죠. 여러분이 이렇게 공부를 하는 동시에 내 집을 길이길이 보존하게 함으로써 그 차원이 정말이지 높아져서 세세생생을 얻을 수가 있다는 그 사실도 또 덧붙여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스님이 이렇게 물어요. "스님은 왜 우주떡 하나를 해 놓고 그렇게 천도를 하십니까?" 이러길래 "아, 평생에 살면서 한 평생만 아니라 수없는 겁을 내려오면서 먹고 벌고 파고, 그냥 입고 싸우고 죽고 이러면서 살아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그거를 면제해 주려면 아주 우주에다 집어넣어서 '너 마음대로 먹고 너 마음대로 해라.' 한다면 아,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공(空)한 줄 알게 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에너지지만 충당할 줄 알면 그뿐인데 뭘 그렇게 그럽니까?" 그렇게 말을 했죠.

그런 거와 같이 우리들이 이렇게 그냥 부처님 한 분 모셔 놓는 것도 장난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눈물 나는, 그 뼈저린 아픔으로 부처님 한 분 한 분 모셔 놓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느냐는 얘깁니다. 부처님 한 몸이 여러분의 몸도 될 수 있고 내 몸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 정신계로 들어가라고 하니까 공에 빠져서 물질계는 우습게 생각하는데, 물질계와 정신계가 둘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자체를 보면 알 겁니다, 아마. 여러분의 정신이 빠져도 육신은 송장이 되니 무효고, 또 정신계만 있으면 보이지 않아서 무효고. 그러면 어떡해야 옳을까요? 정신계와 물질계가 혼합이 돼서 둘 아니게 사셔야 정상이 아닙니까?

지금 이 우주에 관한 건도 말 못 할 문제가 너무도 많아서 말을 못 합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해서 그 마음을 먹고 있으면 또 마(魔)가 들까 염려도 되죠. 그러나 이것은 귀신이든 사람이든 어떤 영가든 둘 아니게 다루는 멋있는 법이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되지마는 여러분이 그것을 듣고 '정말 저이가 성한 사람인가.' 이럴까 봐 더는 그 말을 못 합니다. 나중에 또 모르죠. 여러분이 그거를 집어넣고도 소화가 될 수 있다면 또 모르죠.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니 하면 안 되리만큼 돼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에 관한 건도 생각해 봅시다. 만약 우리네들의 천차만별의 차원의 종자가 얼마만큼 커져서, 아주 그냥 깎고 깎고 깎아 여기 하나도 붙지 않게 돼서, 마치 하늘을 닿게 할 수 있는 배나무가 누런 배 다섯 개를 달고 있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배가 무얼 먹고 삽니까? 무슨 생명을 뜯어 먹고 삽니까? 또 그렇지 않으면 동물을 잡아먹고 사는 겁니까? 그렇지도 않잖아요. 꼿꼿하게 올라가서 우주를 삼킬 수 있는 큰 배들이 열렸는데 그것이 자기라고 생각했을 때 어떠한가.

그래서 항상 그 나무들이 이 세상을 주고도 바꿀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여러분이 그런 나무로서 화해서 등장을 하신다면 이 우주를 한 손가락뿐만 아니라 (손가락을 하나 세워 보이시고) 한 검부락지로 들어도 아마 잘 보존해서 들릴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이 그렇게 일을 한다면 무(無)의 수행자일 뿐만 아니라 무의 과학자로 등장하는 거죠. 그러나 유(有)의 과학자는 그렇게 들 수가 없죠. 볼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컵이 이렇게 쓰러지는 거를 보고선 저 물컵이 다 쓰러졌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 물컵을 보존해서 들어서 옮겨 놓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그것뿐만 아니라 소소한 일이라도 보이지 않는 데서부터 보이는 데로 나오는 것이고 또, 보이는 데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렇게 행하는 것이 모두 무에 또 입력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잠이 드나 일을 하나, 모든 것을 그놈이 한다고 생각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바로 그 까닭입니다. 여러분이 좋게 이 세상을 살릴 수 있고, 이 세상의 모든 생명들을 건질 수 있는데 하나하나 오는 사람만 건지는 게 아니라 진화시키고 창조해서 모두를 다 건질 수 있어요. 그것도 누가 했다 누가 했다 이런 말 없이 그냥 묵묵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아예 우주에서 상을 받아요, 그냥.

> **소소한 일이라도 보이지 않는 데서부터 보이는 데로 나오는 것이고**
> **보이는 데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렇게 행하는 것이**
> **모두 무에 또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96년 11월 3일 법형제법회 법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현불 논단

불교, 미래세대에 투자하라



석길암 교수
동국대 WISE캠퍼스
불교학부 교수

미래세대 실종, 불교의 위기
치열한 고민과 대응은 미약
성과주의 매몰된 우리 사회가
미래세대 성장 기다리지 않아

오늘 있어야 내일도 있는 법
미래세대 있으려면 투자 선행
어느 자녀가 장성해 나타나나
절실함 거들어주는 관심 '간절'

최근 갑작스런 카카오톡을 받았다. 우리 학부 학생이 보내온 '꿈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랑이야기, 널디나(nerdina)의 데뷔 EP(Delicate daydream)'이라는 제목을 붙인 공유링크였다. 불교 공부를 하는 와중에 음악도 한껏 즐겼던 모양이다. 공식 데뷔앨범이라니. 반갑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다. 이 학생이 미래에 훌륭한 뮤지션이 돼, 공연을 마치고, 관중을 향해 합장하는 모습을 보여줄 미래를 꿈꿔본다.

필자가 공부를 시작할 즈음에는 인문학의 위기라는 소리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인문학이 위기라는 소리는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린다. 대학들이 저마다 위기에 몰려있는 현실이 코가 석자인 까닭이다. 불교 공부는 더 심한 위기이다. 출가자가 급감한 현실, 불교를 공부하려는 미래세대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대학 사회 전체가 그렇고, 젊은 출가자를 찾기 힘든 현실이다 보니 위기감은 매일 절박함으로 치달린다.

그런데 미래세대의 실종, 불교 미래의 위기라는 말이 끊임없이 반복되지만 정작 그 미래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치열한 고민과 그것에서 비롯되는 대응을, 현장에서 체감하기에는 아직도 미약하기만 하다. 유독 우리 사회는 성과를 중시한다. 그렇지만 성과는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결실이다. 한때라도 관심이 소홀하면 잎이 시들고, 때를 놓치면 꽃을 피우지 못하고, 피지 못한 꽃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기성세대가 보기에는 턱도 없는 새로운 꿈을 꾸고, 그 꿈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 받으면서도 인내로 색다른 꽃을 피우고 달콤한 열매를 얻는 것이, 우리를 대신할 미래세대이다.

기성세대가 생각하듯, 성과주의 사회가 생각하듯 원할 때마다 훌륭한 결과를 내놓는 것은 미래세대가 아니다. 실패를 거듭하고, 거듭해서 고통을 겪으면서도 꿈 때문에 번민하고 방황도 해야 하는 것이 미래세대인 까닭이다. 그 미래세대를 위해서 기성세대는 관심을 주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

우리 불교도 마찬가지다. 향후 100년 아니 10년만 기약하려 해도, 끊임없이 투자하고 관심을 주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 우리 불교의 미래세대를 책임지는 교육현장에 있는 입장에서는 안타깝기도 하다. 저들과 함께 어깨동무하고 길을 걷고, 그들의 길을 안내하고 지켜줄 더 많은 버팀목이 교육현장에선 절실한 까닭이다. 저들이 그리고 재학 중인 많은 학생들이 미래세대로서 불교계의 현장을 짊어질 때까지, 우리 사회가 그리고 우리 불교계가 좀 더 투자하고, 관심을 주고, 기다려 줄 수 있으면 좋을 터인데 하는 생각이 가득해진다.

불교는 한국의 전통문화를 대표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전통문화를 대표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 오늘이 살아있어서 오늘이 제대로 작동하고, 내일도 살아있어서 내일도 제대로 작동해서, 우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일상 속에서 살아있는 현재의 문화이고, 미래를 이끌어가는 문화로 거듭나야만 한다. 그래야 전통문화답지 않은가?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현재의 미래세대를 위해서 투자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들이 책임지는 것이 불교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미래를 걱정하면서 투자하지 않으면, 미래는 더욱 암울해진다. 때문에 교육은 그리고 미래는 당장의 현실이다.

어느 자식이 장성해 듬직한 모습으로 부모에게 오던가? 배밀이할 때, 첫걸음마를 뗄 때, 사춘기를 건널 때, 세상과 사회를 향해 번민을 거듭할 때, 아낌없이 거들고 관심을 나눈 긴 기다림 끝에서야 장성한 자식이 되는 법이다. 실종돼 가는 미래세대야말로 불교의 미래를 책임지는 님들일 것이다. 절실함을 거들어주는 관심이 간절하다. 기룬 것은 다 님이다!



지원 스님의
마음처방전

운명 · 행운은 움직이는 것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자신의 운명을 알고 싶어하고 자신의 미래를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길흉의 징조나 꿈, 관상, 별자리 등에 매달려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마음은 21세기가 되어서도 별로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다 보니 작은 것에도 흔들리기 쉽습니다. 사주팔자, 관상, 별자리 등 여러가지 외부의 요인에 의하여 자신의 삶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나쁜 징조로 인해 불행한 일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우연의 일치일 뿐 결코 나쁜 징조가 가져온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세상은 본래 행복한 곳도 아니요 괴로운 곳도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의해서 행복해질수도 있고 불행해 질수도 있습니다. 행위에 의해 예쁜 사람도 미운 짓 하면 미워지고, 못생긴 사람도 좋은 일 하면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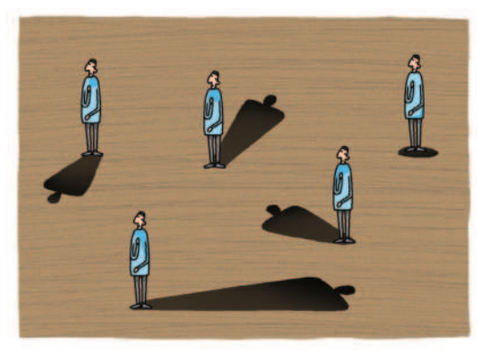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결국은 자신의 행위와 마음자세가 행복과 불행을 결정 짓는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운명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자신의 행위' 라는 것을 기억해야합니다. 남이 보기에는 행운인 것 같지만 숨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강인한 의지와 강인한 정신력 앞에는 모든 것이 무력화되고 맙니다.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지 하늘이나 신이 어떻게 해줄 수 없습니다.

좋은 습관의 씨를 뿌리는 것이 운명을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가 됩니다. 그리고 좋은 행동의 씨를 뿌리는 것도 운명을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됩니다.

운명과 행운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운명을 움직일 수 있다면 행운 또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행운은 내 행위의 그림자와 같습니다.

앉아있는 사람에게 행운은 앉아있습니다. 서 있는 사람에게 행운은 멈춰 서있습니다. 누워있는 사람에게 행운은 누워있습니다. 움직이는 사람에게는 행운 또한 움직입니다.

자신의 운명을 움직이고 싶은 사람은 선한 행위를 하고, 좋은 습관을 몸에 들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행운도 따라 움직입니다.

〈육지장사 회주〉

社 說

지방선거 당선인, 불교 공약 지켜야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완료됐다. 이번 선거는 광역지자체장을 비롯한 기초단체장, 시 · 도의회 및 구 · 시 · 군의회 의원과 교육감 · 교육위원까지 새롭게 선출하는 대대적인 변화의 장이었다. 당선인만 4131명에 달한다.

이번 선거에서 특히 17개 광역지자체 시도지사가 새롭게 선출됐다. 17명의 당선인 중 불자는 단 3명에 불과하다. 원칙적으로 종교와 무관하게 국가적 소임을 맡은 이들이기에 종교 여부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도 불자들이 불자정치인에게 기대를 하는 이유는 다른 종교신자들에 비해 전통문화 보존과 종교화합이라는 사회적 과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것이란 점 때문이다.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광역단체장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래도 희망이 보인다. 개인의 종교와 상관 없이 전통문화가 지닌 가치를 인지하고 있거나, 불교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온 당선인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지역구에 속한 봉선사를 찾아 경청하고 소통하며 전통문화 보존의지를 공약으로 제시했으며, 이철우 경북도지사 당선인과 김태흠 중남도지사 당선인도 전통문화 활성화에 관심을 드러낸 바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과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 역시 불교계와의 협력관계를 어느 정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모인다.

일견 씁쓸하기도 하다. 우리 전통문화를 보존계승하고 종교화합을 이룬다는, 너무도 당연한 사회적 과제가 당선인의 종교나 그간 행보에 따라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달 뒤 다가올 새로운 변화는 더 이상 불교의 숙원과제가 아닌 국민의 열망이 실현되는 토대가 되길 바란다.

'국가부도' 스리랑카에 자비 손길을

국가 부도 위기에 처한 인도양 섬나라 스리랑카의 5월 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39.1%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식료품 가격은 45%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948년 독립 이후 최악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스리랑카는 현재 국제통화기금(IMF)과 구제금융 지원 협상을 벌이고 있다.

스리랑카에는 현재 외화 부족으로 생필품 수입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기름과 의약품 부족이 심각한 상태다. 지난 6개월간 경유 가격은 230%, 휘발유 가격은 137% 상승했다.

무엇보다 의약품 부재가 스리랑카 국민들의 생명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노령 · 기저질환자의 생명을 연장시켜 줄 필수적인 의약품은 물론, 갑작스러운 사고와 병고로 치료가 필요한 환자, 임산부가 아이를 출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일체의 의약품까지도 구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한 스리랑카인들의 안식처인 아산 마하위하라 사원이 스리랑카에 의약품 보내기 운동을 시작한 이유다. 스리랑카 정부가 지정한 한국불교 교류 총괄 책임자이자 마하위하라 사원 주지 담마끼띠 스님은 정치상황을 떠나, 인도적 차원에서 고통받는 스리랑카 국민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고 판단, '스리랑카 국민들을 위한 필수의약품 지원을 위한 모연'을 시작했다.

모연금은 전액 스리랑카 국민들을 위한 의약품 구입에 사용되며 주한스리랑카대사관을 통해 국적기를 활용, 스리랑카로 배송될 예정이다. '보시이타(布施利他)' 정신으로 꺼져가는 스리랑카 국민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불자들의 보시행렬을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대표이사 : 혜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14, 8216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일상화된 바이러스와 황사 먼지! 마스크가 최고의 방역입니다!

FDA 등록

기능성 비말차단 연꽃·패션·구리마스크

연꽃마스크 (연꽃문양/5색)

2중 압축 NEW!!

기능성 비말차단 **연꽃마스크**는 이중압축으로 제작하여 기존 제품보다 발수기능이 우수한 **숨쉬기 편한 마스크** 입니다.


연회색 블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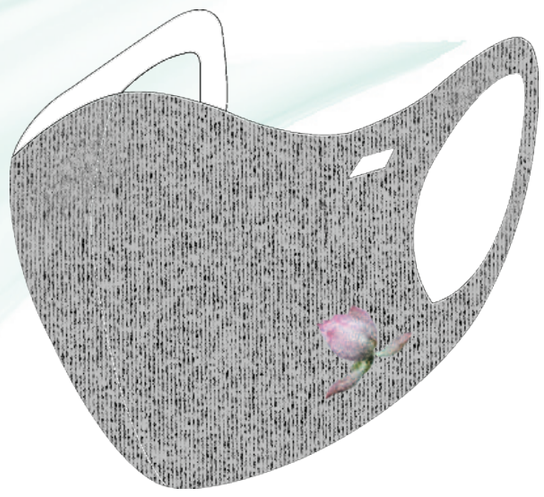
기존제품과 다른점

❶ 바깥면의 발수기능이 기존제품보다 우수합니다.
❷ 이중 압축으로 기존제품보다 얇아 숨쉬기가 편안합니다.

색상별 1세트 (100장)
~~550,000원~~ → **350,000원**


화이트 연분홍 스카이블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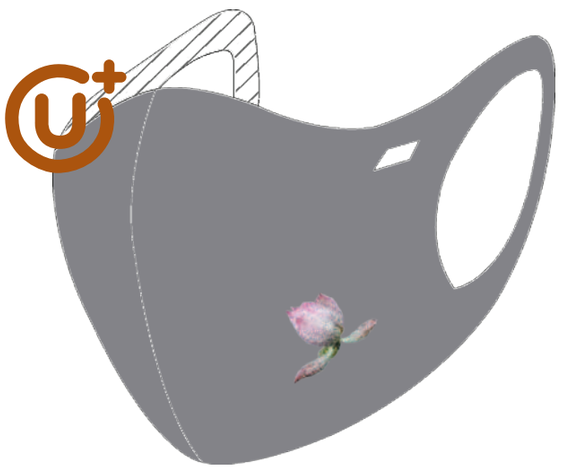
패션마스크 (연꽃문양/4색)



- **재 질** : 폴리에스테르 92%, 스판 8%
- **색 상** : 연회색, 백색, 청색, 검정색
- **판매가** : 4개 1셋트 15,000원 (개당 3,750원)
  / 3만원 이하 택배비 3,000원 별도
  (제주·도서지역 택배비 6,000원)
- **기능성 순수 국산원단 사용**

100개	300개	500개	1,000개	2,000개
(개당) 2,500원	(개당) 2,400원	(개당) 2,300원	(개당) 2,200원	(개당) 2,000원

구리마스크 (연꽃문양/진회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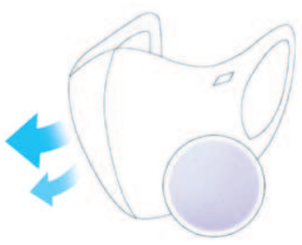


- **재 질** : 폴리에스테르 81%, 구리 7%, 스판 12%
- **색 상** : 진회색 (그외 색상 주문 가능)
- **판매가** : 4개 1셋트 22,000원(개당 5,500원)
  / 3만원 이하 택배비 3,000원 별도
  (제주·도서지역 택배비 6,000원)
- **기능성 순수 국산원단 사용**

100개	300개	500개	1,000개	2,000개
(개당) 3,500원	(개당) 3,400원	(개당) 3,300원	(개당) 3,200원	(개당) 3,000원

Deodorization 소취 / Antibacterial 항균 / Anti-Splash 비말차단
UV Protection UV차단 / Fast Drying 빠른건조 / Reusable 재사용가능

AeroCool™
코오롱의 AeroCool™원단은 특수 원사단면제어 기술을 적용해 천연섬유보다 땀과 수분을 잘 흡수하고 빠르게 건조 가능한 기능성 소재입니다.



※ **연꽃마스크는 주문제작상품으로 제작기간은 5~7일 소요** ※ **최소주문수량은 색상별로 100장 이상**
※ 색상 및 디자인 변경가능하오며, 로고 및 사찰명 인쇄시 장당 300원 별도 추가됩니다.
※ 대량주문 및 전체디자인 변경 등은 별도 문의 바랍니다.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문의 : 02)732-1520 www.mahamall.co.kr

해양심층수 100%로 만든 청정, 안심 건강소금
MQ해양高미네랄로 가족건강을 지키자!



엠큐 해양 高 미네랄 세트



MQ해양고미네랄은..
– 강원도 고성에서 100% 해양심층수로 탄생한 고미네랄 소금
– 해양심층수의 모든 미네랄을 담은 MQ해양고미네랄
– 일반 정제염 대비 마그네슘 380배, 칼슘32배, 칼륨 49배 등 풍부한 미네랄 함유
– 일반 정제염 대비 나트륨이 23% 이상 적은 저나트륨(염도75%) 소금
– 한포(3g)를 물(500ml)에 타서 마시면 경도 1,000이상의 고미네랄 워터로 변신하는 미네랄 워터용 소금

제 품 구 성 MQ해양 고미네랄 스틱 2박스 (31포 x 2박스) + MQ해양 고미네랄 1병

특별보급가 75,000원

엠큐 눈소금 세트



매일매일 건강에 도움을 주는 필수 미네랄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엠큐눈소금, 매일 모든 음식에 넣어 먹는 소금을 바꿔 건강을 지키자!
해양심층수 이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습니다. 해양심층수 100%를 사용하고, 순간공중결제염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소금 엠큐눈소금은 요리의 맛을 살려주고 건강을 드립니다. 엠큐눈소금으로 온가족의 맛있는 식사와 건강을 지키세요.

제 품 구 성 고운소금 150g x 2EA + 굵은소금 125g x 1EA = 425g

특별보급가 52,000원

김오곤원장의 엠큐 해양 高 미네랄 침향





세계 3대 향중의 하나로 불리는 그 귀한 침향,
김오곤한의사의 배합기술로 엠큐눈소금과 만나 엠큐해양고미네랄 침향으로 탄생

– 건강을 한번 더 생각하고 만든 미네랄과 침향제품으로 성분과 맛이 입증
– 김오곤한의사의 엄선한 배합 기술을 토대로 탄생한 한방과 과학이 어우러진 제품
– 낮은 염도, 고미네랄 그리고 침향이 한 포 한 포에 들어 있는 제품
–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 깨끗한 미네랄의 참 맛, 침향의 건강한 향과 맛까지 포함한 신개념 제품
– 한 포 (3g)을 물 500mL에 타면 맛있는 고미네랄 침향 워터로 황홀한 변신

제 품 구 성 279g (3g x 93포) / 원재료 : 소금 93% (해양심층수 100%), 침향 7% (인도네시아 수입산)

특별보급가 125,000원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이란?** 해양심층수를 미세한 안개 상태로 쪼개어 공기중에 분사한 후, 열풍을 불어 넣어 수분을 순간적으로 증발시키는 기술로 이렇게 해서 해양심층수의 수분을 제외한 모든 미네랄을 소금에 포함시키고, 눈처럼 아래로 떨러뜨려서 소금을 제조하는 기술

구입처 :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문의 : Tel 1688-9099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